

12. 2016 + 0  
2016





5월의 테마토크

## 5월, 거리에서 문화예술로 즐기는 봄

5월은 야외활동을 하기에 1년 중 가장 좋은 시기이기에 서울시내 여기저기에서는 시민들이 쉽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들이 펼쳐진다. [문화+서울] 5월호 테마토크에서는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들을 낮과 밤으로 나눠 전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행사들 모두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해도 좋고 혼자라도 호젓하게 즐기기 좋다.



사람과 사람

### 12년 만에 개인전 연 미술가 김정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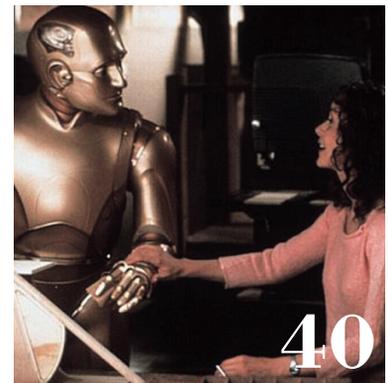
김정헌 작가는 1980년대 오윤, 임옥상 등과 함께 현실 참여적 작품을 선보인 민중미술 1세대 작가다. 직설적이기보다 위트와 어백이 느껴지는 그의 작품은, 문화운동과 환경운동, 예술행정 등 틀에 갇히지 않고 '잡다하게' 활동해온 그의 궤적과도 통한다. 그가 12년 만에 개인전을 열었다. 장소는 종로구에 위치한 대안공간. 한 발짝 떨어져서 한 템포 늦게, 캔버스에 조곤조곤 기록해온 '지금, 여기, 우리'의 이야기를 그는 청소년, 대학생을 비롯해 다양한 관객에게 풀어내 보였다.



진실 혹은 대담

### 예술가가 당면한 문제: 공적 지원, 작가보수, 검열, 그리고...

예술가에 대한 공적 지원은 왜 필요한가, 또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공공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전개된 적이 많지 않다. 최근 예술계 전반에 불거진 검열 문제도 창작자들을 위축시키는 가운데, 예술가가 직면한 문제를 차근차근 진단해보고 더 넓은 영역에서의 논의를 촉발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되었다.



쟁점1

### 자동화 시대, 인간과 인공지능의 바람직한 공존법

지난 3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406개 직업군의 자동화 대체 확률의 순위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 현실을 가늠하게 했다. 이 중 자동화 대체 가능성이 적은 직업으로 화가, 작곡가, 무용가 등 예술인이 상당수 포함된 것은 눈길을 끌었다. 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 영역은 기술과 어떻게 공존하게 될까.

# contents

02 커버스토리 | 이달의 표지 작가 리우

## 테마 토크

### 5월, 거리에서 문화예술로 즐기는 봄

- 06 주말 오후에 만나는 <거리예술 시즌제> | 서울의 낮이 특별해진다
- 10 거리예술의 꽃 비보잉, '서울시 대표 B-boy단'이 전한다 | 가장 큰 에너지는 시민과의 호흡
- 12 서울밤도깨비야시장@여의도 월드나이트마켓 | 서울의 밤이 즐거워진다!
- 16 5월의 밤, 서울 거리에서 즐기는 다채로운 행사 | 역사 산책부터 빛의 퍼레이드까지

## 사람과 사람

- 20 12년 만에 개인전 연 미술가 김정현 | 그림, 조용히 내뿜은 '지금, 여기, 우리'의 기록
- 26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커스 창작워크숍> 연출가 배상 고메즈 | 자유롭고 즐거운 것이 서커스다

- 30 진실 혹은 대담 | 예술가가 당면한 문제: 공적 지원, 작가보수, 검열, 그리고...
- 36 예술가의 밥그릇 | 팝업 아트 엔지니어 김수현
- 38 서울 할나 | 5월, 비눗방울 꽃처럼 흩날리다

## 이슈&토픽

- 40 쟁점 1 | 자동화 시대, 인간과 인공지능의 바람직한 공존법
- 42 쟁점 2 | CGV 영화 관람료 차등제 논란
- 44 화제 | 거리를 수놓은 한복 입기 열풍

46 아트 캠페인 '바람난 미술'

## 공간, 공감

- 48 공간 1 | 지속 가능한 무용 예술 실험 공간 '서울무용센터'
- 52 공간 2 | 책에 아름다움을 더하는 콜라보 서점 '북티크'
- 54 공감 1 |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웅녀>와 뮤지컬 <맘마미아>
- 56 공감 2 | 전시 <사군자, 다시 피우다>와 <풍속인물화-일상, 꿈 그리고 풍류>
- 58 공감 3 | 책 <분홍나무신>과 <헛디디며 헛짚으며>

60 예술적 상담소

## Soul of Seoul

- 62 메모리 인 서울 | 시민 정치 참여의 핵심인 선거 그리고 선거포스터
- 64 서울 단상 | 심리지리학 기법으로 복춘 산책하기
- 66 이명석의 썰(說) | 간판 풍경과 서울 거리의 미학
- 68 장운선의 음악 정원으로 | 한국 교향악의 역사와 더 채워갈 것들
- 70 서울 건축 읽기 | 숭실대학교 학생회관
- 72 연극인 10분 희곡 릴레이 | 류연웅 작 <경찰의 고깃집>

## 5월의 서울문화매뉴얼

- 74 5월 Calendar
- 84 편집 후기

##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조선희

편집기획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 오니트(주)

디자인 오니트(주) 사진 249 스튜디오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00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발행일 2016년 4월 29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BOUNDLESS BODY〉  
Mixed media on figures & Digital animation Dimension Variable(approx) | 360×1200×600cm | 2013

## 이달의 표지 작가 리우

표지작 <COSMOS>는 컴퓨터 부품과 디지털 모니터로 ‘미래의 인간상’을 조형화한 작품이다. 2150년 지구는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곳이 된다. 우주정거장에 거주하며 인류는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야만 한다.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낸 한 우주인이 우주정거장 발코니에서 오염된 지구를 바라보며 아름다웠던 숲과 냇물, 그리고 나비를 떠올리고 있다.

그동안 나의 작업 방향은 ‘나는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인문학적 주제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고민으로부터 동시대의 과학적 성과물을 상상의 밑거름으로 삼아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인간의 신체는 휴먼에서 포스트 휴먼으로 진화한다. 나는 이 새로운 인간상을 ‘라타바(RATAVA)’라 부른다. 아바타(AVATAR)는 ‘자아의 형태’를 뜻하는 산스크리트어다. 신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뜻하는 힌두교의 용어다. 즉 아바타는 신이 이 세상에 내려오기 위해 몸을 빌려 변화

하는 화신(化身)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 가상공간에서의 아바타는 자신을 대리하는 가상의 신체, 새로운 정체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디지털 공간의 아바타는 영어 철자의 역순인 라타바(RATAVA)로 불러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은 사이보그와 컴퓨터를 입고 가상공간 안에서 시공간을 넘나들며 신을 꿈꾸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신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기 위한 화신(化身)이 아니라 인간이 신의 영역을 향해 나아가는 화신(化神) 즉, 아바타의 역순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실과 가상, 일상과 디지털의 구분은 희미해져 간다. 그리고 시공간은 직선 운동을 멈추고 경계 없이 유동한다. 그 증강현실의 시공간 속에서 우리는 라타바를 꿈꾼다. 바야흐로 인간은 아바타의 역순인 라타바를 입고 신이 되려 하는 것만 같다.

이야기(소설)와 작품은 구상 단계에서 떠오른 아이디어를 상호 보완한다. 당분간은 이런 형식을 통해 작품을 발표하고자 한다. <sup>리우</sup>



〈BODY〉  
Computer Case, Beam projection on aluminum, Digital Animation(12sec) | 170×70×15cm | 2016



〈BODY〉  
Computer Case, Monitor, Digital Animation(50sec) | 110×70×200cm | 2016



표지작 〈COSMOS〉  
Computer Parts, Monitor |  
80×60×180cm | 2014

#### 리우(이장우)

2014년 서울문화재단 시각예술 분야 지원작가. 〈BOUNDLESS BODY〉(대구MBC, 갤러리 M, 2012), 〈The Empty Digital Body〉(한전아트센터, 서울, 2011) 등 개인전을 17회 열었고, 〈몸의 현재〉(대구미술관, 2013), 〈NOW ASIAN ARTIST'S 부산비엔날레 특별전〉(부산, 2010), 〈아키타 국제조각 심포지엄〉(아키타, 일본, 2007) 등 다수의 기획전에 초대되었다. 〈Time & Space 몽골 노마딕 레지던시〉(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 〈시안미술관 레지던시〉(2013)에 참여했으며, 포스코 스틸아트 어워드 우수상을 수상(2009)했다. 〈리우의 작업이야기 THE EMPTY DIGITAL BODY〉(주노아트, 2010), 〈작업일지, 우리시대의 미학-사이보그, 동양, 디지털〉(천부도원, 2006) 등 단행본을 냈다.



글 리우



# 5월, 거리에서 문화예술로 즐기는 봄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3월을 지나,  
막 움트는 새싹과 봄꽃에 눈이 즐거운  
4월을 보내고 나면 봄에서 여름이 살짝  
엿보이는 5월이 시작된다.  
야외활동을 하기에 1년 중 가장 좋은  
시기이기에 서울시내 곳곳에서는 시민들이 쉽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들이 펼쳐진다.  
[문화+서울] 5월호 테마토크에서는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낮과 밤으로 나눠 전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행사들 모두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해도 좋고 혼자라도  
호젓하게 즐기기 좋다.

그림 이승정



주말 오후에 만나는 <거리예술 시즌제>

# 서울의 낮이 특별해진다!



올해 3회째 맞이하는 <거리예술 시즌제>는 4~6월 석 달 동안 매 주말, 서울시내 네 곳의 장소에서 번갈아가며 진행된다. 서커스와 퍼레이드부터 음악 공연, 다양한 콘셉트의 인형극 등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거리예술 작품이 시민을 찾아갈 계획이다. 5월의 한낮, 색다른 일탈을 경험하고 싶다면 다음 페이지의 일정표부터 확인해도 좋다.

원, 사슴방사장 등을 고루 갖춘 서울숲은 가벼운 피크닉이나 산책을 즐기기에 그만인 곳이다. 여기에 햇살이 적절히 좋은 오후 2시부터 서울숲 방문자센터 앞, 야외무대, 바닥분수 등지에서 <거리예술 시즌제> 공연이 펼쳐졌다. 팀 클라운의 '경상도 비눗방울'(2시), 창작중심 단디의 '단디우화'(3시), 팀 퍼니스트의 '퍼니스트 코메디 서커스 쇼'(4시), 그리고 그 전주에 우천으로 선유도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일정이 취소된 프로젝트 모아의 '바가&본드'(5시)까지 총 네 팀이 서울숲을 찾은 시민과 만났다.

근처를 지나다 걸음을 멈춘 시민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공연에 함께했다. 네 편의 공연 모두 중간부터 봐도 쉽게 몰입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팀 클라운이 '경상도 비눗방울'에서 만들어내는 커다란 비눗방울에 어린이 관객의 눈은 비눗방울만큼 커졌고, 훑날리는 벚꽃잎만큼 많은 비눗방울을 공중에 날릴 때에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동심에 젖어 환호했다. 건물 외벽에서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버티컬 서커스를 펼치며 에벌레부터 나비가 되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창작중심 단디의 '단디우화'도 지나는 많은 시민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건물에 단단히 고정된 줄을 몸에 묶은 배우들이 번데기에서 나비로 피어날 때, 몸짓이 표현하는 아름다움은 고스란히 관객에게 전해졌다. 한편 चल인 음악과 함께 저글링, 마임, 아크로바틱을 재치있게 선보인 팀 퍼니스트의 '퍼니스트 코메디 서커스 쇼'는 관객과의 즉흥적인 호흡이 '빅 재미'를 선사한 비언어 코미디 쇼. 잠자코

## 인간의 몸짓, 표정, 마음이 전하는 재미

지난 4월 둘째 주 일요일, 성수동 서울숲 공원은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다. 맑고 따뜻한 봄날임에도 미세먼지 주의보로 날씨가 쾌청하지 않았지만, 예년보다 일찍 꽃망울을 터뜨린 벚꽃이 벌써 만개해 바람이 조금 불면 꽃비가 흩날릴 정도였다. 넓은 부지 곳곳에 자연체험학습장, 곤충식물



있는 관객을 무대로 이끌어 장난기를 슬슬 발동시키는 팀 퍼니스트의 능청스러운 연기가 일품이었다.

평소에 쉽게 만날 수 없는 거리공연을 우연찮게 접한 시민들은 인상적인 장면을 사진으로 남기며 공연을 한껏 즐겼다. 다섯 살 딸과 함께 산책하러 서울숲을 찾았다는 한 어머니 관객은 ‘단디우화’와 뒤이어 진행된 ‘퍼니스트 서커스쇼’를 재미있게 봤으며, 둘 다 언어를 쓰지 않는 공연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으면 집에서 중일 TV를 봤겠죠. 매시간 TV와 컴퓨터, 스마트폰을 접하며 사는데, 거기서는 끊임없이 말과 글자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공연을 보니까 몸짓과 표정만으로도 이렇게 아름답고 재미있을 수가 있네요. 열 마디 말이 필요 없었어요.”

### 놀이극부터 서커스까지, 석 달 동안 만나는 다양한 거리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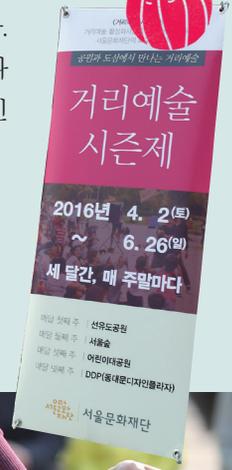
〈거리예술 시즌제〉는 서울문화재단이 2014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해 올해 3회째를 맞이한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내 주요 공원과 도심에서 거리예술 공연을 펼쳐 시민이 일상과 가까운 공간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단체들에는 공연 발표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시작됐다. 지난해까지는 1년에 두 시즌(봄, 가을)씩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야외활동과 공연 관람이 원활한 4~6월 석 달에 집중해 공연을 펼친다. 매월 첫째 주말에는 선유도공원, 둘째 주말에

는 서울숲, 셋째 주말에는 어린이대공원, 그리고 넷째 주말에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되는 등 좀 더 많은 시민이 공연과 함께할 수 있도록 장소를 다양화하는 것도 〈거리예술 시즌제〉의 특징 중 하나다.

올해 〈거리예술 시즌제〉에 참여하는 예술단체는 14개. 공모를 통해 선발된 14개 단체는 3개월 동안 총 84회의 공연을 선보인다. 다양한 개성을 지닌 단체들이 관객과 만나는데,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버티컬 퍼포먼스와 공중서커스, 서커스 코미디 팀 등 서커스 공연을 비롯해 관객 참여형 놀이극, 팝업북 형식 인형극, 국악 중심 월드뮤직 등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공연이 석 달의 일정을 빠곡히 채우고 있다.

공연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트러스트 무용단의 ‘꿈꾸는 사람들-춤추는 돌’은 ‘바둑판 위의 먹고 먹히는 돌처럼 우리의 인생은 살아 있는 돌’이라는 콘셉트에 착안해 삶의 한 판의 놀이로 풀어낸 현대무용으로 몸짓의 아름다움이 기대되는 작품이고, 극단 배낭속사람들의 거리극 ‘WORK’는 아이에서 어른이 되기까지 반복되는 ‘일(노동)’이라는 굴레를 함축적으로 표현해 성인 관객의 공감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오정은의 ‘여행-가방 속에서 꺼낸 기억’은 보는 이들에 따라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인형극. 50번째 생일을 맞은 주인공이 마트료시카 인형처럼 가방 속에서 또 다른 가방을 꺼내며 시간을 거슬

- 1 팀 퍼니스트 ‘퍼니스트 코메디 서커스쇼’.
- 2 팀 클라운 ‘경상도 비눗방울’.
- 3 창작음악그룹 THE톤 ‘인생예찬 콘서트 길기락유랑’.





러 자신의 과거 속으로 여행을 떠난다는 내용이다. 연극인 집단 더더더의 '자전거극장 모빌리베라'는 '팝업북으로 개조된 자전거'라는 무대의 독특함이 눈에 띄는 작품으로 공원에서 책을 읽다 잠이 든 엘리스와 요정 텅커벨이 주인공인 인형극이다. 각 공연은 짧게는 30분, 길게는 50분 동안 진행돼, 주말에 도심으로 나들이 나온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거리예술 시즌제>, 단순한 볼거리 그 이상으로 자리잡아**

<거리예술 시즌제>는 축제나 일반적인 의미의 버스킹과도 조금 다른 성격을 띠는 프로그램이다. 축제, 페스티벌의 경우 이를 목적으로 한 시민이 일부러 찾아가 즐기는 데 비해, <거리예술 시즌제>는 일상과 비교적 가까운 장소(도심, 공원 등)에서 열려 다른 목적으로 그곳을 찾은 이들이 우연히 관람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일상과 가까운 공간으로 비일상적인 예술, 공연이 찾아가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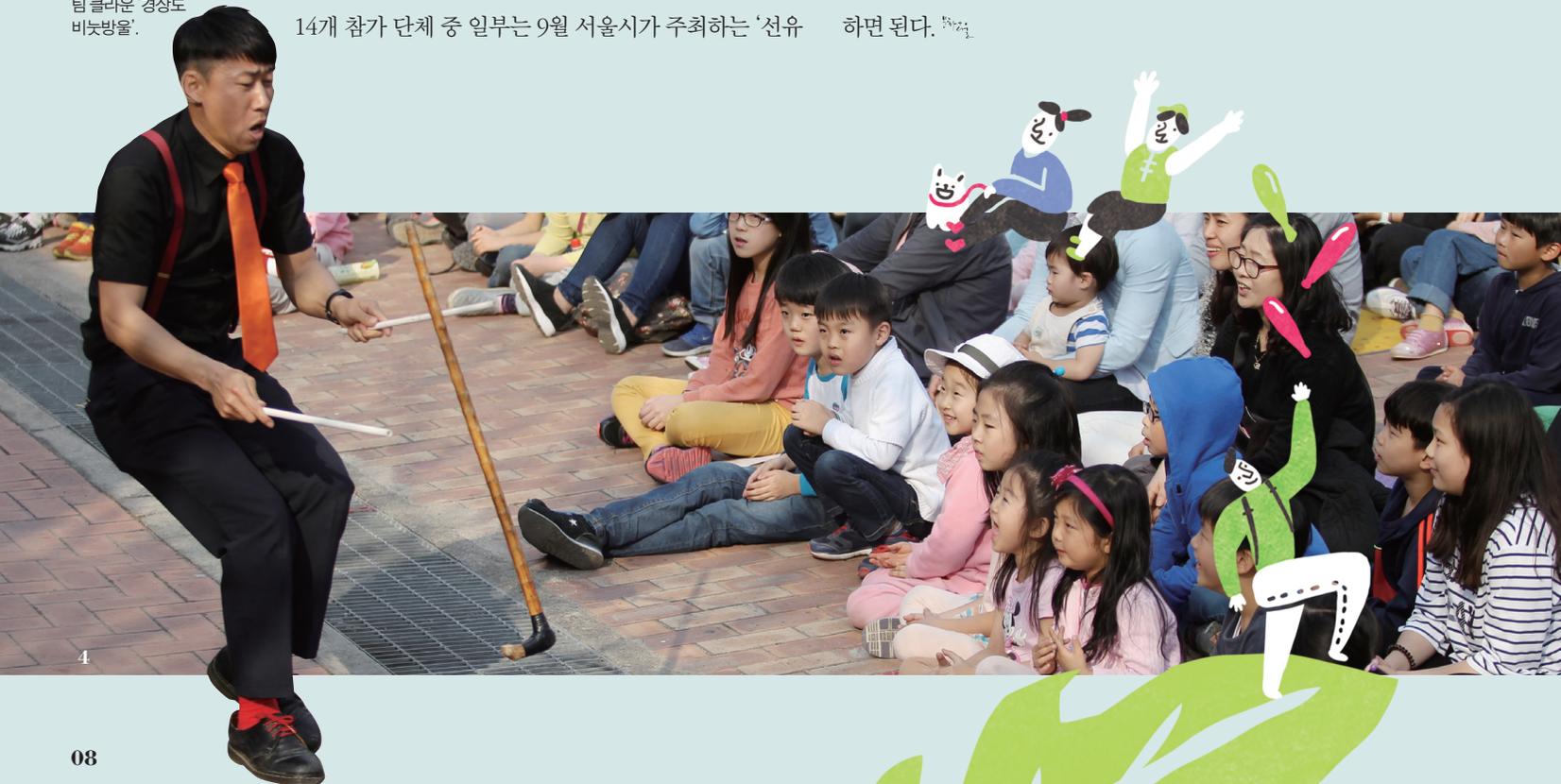
거리예술 작품의 경우 실내(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에 비해 관객과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올해 거리예술 시즌제를 봄 시즌에 집중해 개최하는 데에는 이 프로그램을 거리예술의 체계적인 배급이나 지원 시스템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이유도 작용했다. 올해 공연하는 14개 참가 단체 중 일부는 9월 서울시가 주최하는 '선유

도 거리예술 마켓'에 참여할 기회를 갖는 것. 선유도 거리예술 마켓은 올해 4회째 열리는 행사로, 다양한 장르의 거리예술 콘텐츠가 유통되는 축제형 아트마켓이다. 행사 기간에 거리공연이 진행되며 예술가 단체의 홍보 부스가 운영되는 등 국내 문화예술 기획자와 정책 담당자(구매자), 작품 창작자(판매자)가 참여해 교류하는 장이 되고 있다. 이로써 거리예술이 활발하게 창작되는 환경을 마련하고 더 많은 관객이 작품과 만날 수 있도록 하자는 <거리예술 시즌제>의 목적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

거리예술은 조금씩 천천히 예술의 흥미로운 장르로 자리잡아가는 중이다. 과천거리예술축제, 안산거리극축제, 춘천마임축제 등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거리예술 축제가 이름을 알리고 있으며, 하이서울페스티벌(서울거리예술축제)과 서울프린지페스티벌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페스티벌도 거리예술이 시민과 만나는 중요한 장이다. 서울숲에 들렀다가 공연을 본 시민의 소감처럼, 거리예술은 사람의 몸짓과 표정이 빚어내는 아름다움, 무언의 소통 가능성을 서로가 딛고 선 땅 위에서 직접적으로 전한다. 왁자한 극은 익살을, 서커스와 미술은 일탈을 선사하고 퍼레이드 형식의 공연은 공연에 대한 고정관념을 흔들기도 한다. 일상에서 이러한 일탈을 경험할 시간은 아직 넉넉하게 남아 있다. 봄, 한낮에 거리에서 예술을 만나는 데에는 '열린 마음' 하나만 준비하면 된다. <sup>이정민</sup>



4 팀 클라운 '경상도 비눗방울'.



**May**

**<거리예술 시즌제> 일정표 (5월)**

	선유도공원 첫째 주		서울숲 둘째 주		어린이대공원 셋째 주		DDP 넷째 주	
	5/7(토)	5/8(일)	5/14(토)	5/15(일)	5/21(토)	5/22(일)	5/28(토)	5/29(일)
14:00~15:00	원시인 HOT Show(45')	바가&본드 (35')	놀이 사용 설명서(60')	놀이 사용 설명서(60')	음악의유령 (25')	음악의유령 (25')	인생예찬 콘서트 길가락유랑(60')	바가&본드 (35')
15:00~16:00	갈피를 잃은 그대에게, 책갈피(60')	갈피를 잃은 그대에게, 책갈피(60')	WORK (40')	WORK (40')	퍼니스트코메디 서커스쇼(40')	바가&본드 (35')	놀이 사용 설명서(60')	놀이 사용 설명서(60')
16:00~17:00	꿈꾸는 사람들- 춤추는돌(40')	꿈꾸는 사람들- 춤추는돌(40')	자전거극장 모빌리베라(30')	자전거극장 모빌리베라(30')	WORK (40')	WORK (40')	자전거극장 모빌리베라(30')	자전거극장 모빌리베라(30')
17:00~18:00	여행- 가방속에서 꺼낸 기억(30')	자전거극장 모빌리베라(30')	항해 (20')	항해 (20')	꿈꾸는 사람들- 춤추는돌(40')		꿈꾸는 사람들- 춤추는돌(40')	
18:00~19:00			여행- 가방속에서 꺼낸 기억(30')					

**June**

**<거리예술 시즌제> 일정표 (6월)**

	선유도공원 첫째 주		서울숲 둘째 주		어린이대공원 셋째 주		DDP 넷째 주	
	6/4(토)	6/5(일)	6/11(토)	6/12(일)	6/18(토)	6/19(일)	6/25(토)	6/26(일)
14:00~15:00	원시인 HOT Show(45')	원시인 HOT Show(45')	인생예찬 콘서트 길가락유랑(60')	인생예찬 콘서트 길가락유랑(60')	단디우화 (30')			
15:00~16:00	여행- 가방속에서 꺼낸 기억(30')	자전거극장 모빌리베라(30')	여행- 가방속에서 꺼낸 기억(30')	경상도 비눗방울 (50')	놀이 사용 설명서(60')	놀이 사용 설명서(60')	원시인 HOT Show(45')	원시인 HOT Show(45')
16:00~17:00	단디우화 (30')	단디우화 (30')	음악의유령 (25')	음악의유령 (25')	여행- 가방속에서 꺼낸기억(30')	경상도 비눗방울(50')	WORK (40')	WORK (40')
17:00~18:00	음악의유령 (25')	음악의유령 (25')	항해 (20')	항해 (20')	항해 (20')	항해 (20')	인생예찬 콘서트 길가락유랑(60')	바가&본드 (35')
18:00~19:00	갈피를 잃은 그대에게, 책갈피(60')				퍼니스트코메디 서커스쇼(40')			

※ ( ) 안은 공연시간(분). 공연시간 및 공연 작품은 날씨 또는 단체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리예술의 꽃 비보잉, '서울시 대표 B-boy단'이 전한다

# 가장 큰 에너지는 시민과의 호흡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2013년부터 '서울시 대표 B-boy단'을 선정, 운영해오고 있다. 세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한국 비보이들의 춤은 계절을 막론하고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에너지일 것이다.



1, 2 B-Boy 배틀 전용 무대가 될 '서울시 대표 비보이 존(B-boy Zone)'의 시작을 알리는 공연이 지난 4월 24일(일)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장충단로에서 진행됐다.  
3 드리프터즈 크루 신중훈 팀장.

지난 3월 31일, 서울문화재단은 사단법인 제로캠프와 비보이 예술놀이교육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제로캠프는 청소년 복지기관으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삶의 가치관을 스스로 정립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실, 직업교육교실 등 체험과 놀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체결한 업무협약은 2013년부터 진행해온 <서울시 대표 B-boy단과 함께하는 예술놀이 교육>이 청소년의 에너지 표출과 삶의 방향 설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왔으며 이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확대해가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읽을 수 있다. 두 대목에 눈길이 간다.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서울시 대표 B-boy단의 다양한 활동이 그것이다.

비보잉은 흔히 거리예술의 '꽃'으로 손꼽히는 장르다.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예술로, 특히 한국의 비보이는 세계적인 실력을 자랑한다.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

은 2013년부터 '서울시 대표 B-boy단'을 선정, 운영해오고 있다. 시장 해외 순방이나 서울시 자치구 행사 때에 무대를 마련해 시민에게 '춤'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비언어적 소통으로 관객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는 B-boy단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다.

2015년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 대표 B-boy단으로 선정돼 활동하고 있는 '드리프터즈 크루(Drifterz Crew)'의 신중훈 팀장은 "서울시의 여러 거리 축제 및 행사 등에서 활발하게 공연하고 있다"라며 "그 외에도 대안학교에서 브레이크인(비보잉의 정확한 명칭은 브레이크인(Breakin)이다)을 게임에 접목해, 주입식 교육이 아닌 재미있고 친근한 방식으로 학생들이 춤과 학습에 다가가는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올해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에서 운영하는 '도심권 보행전용거리' 행사와 연계해 4월부터 10월까지(※혹서기 제외) 매월 1회씩 '서울시 대표 B-boy Zone'을 시범 운영한다. '서울시 대표 B-boy Zone'은 B-boy 장르를 서울의 대표 문화 콘텐츠로 활성화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B-boy 문화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B-boy 퍼포먼스 공연을 비롯해 B-boy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배틀 프로그램과 시민들이 직접 B-boy 댄스를 배워 볼 수 있는 체험 기회도 마련될 계획이다. 아울러 B-boy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스트리트 댄스 공연도 선보일 예정이어서 이들의 춤사위가 점점 달아오르는 거리무대를 보며 잠시 어깨를 들썩여도 좋겠다. 어느 공연이든 무대에 선 예술가들은 관객의 호응을 먹고 산다고 한다. 시민이 전하는 에너지와 비보이가 뿜어내는 에너지가 만날 때 서울의 낮은 더욱 다채롭고 흥겨워질 것이다.



서울시 대표 B-boy단 '드리프트즈 크루' 신중훈 팀장

# 쉽게, 즐겁게, 더 자주 만나길

2016년 서울시 대표 B-boy단으로 선발된 '드리프트즈 크루(Drifterz Crew)'는 2003년 결성돼 유수의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거두고 공연, 영화, CF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팀이다. 비보이는 거리의 에너지를 누구보다 많이 경험하며 관객과 함께 즐기는 문화를 위해 노력해왔을 터. 드리프트즈 크루의 신중훈 팀장으로부터 서울시 대표 B-boy단 활동에 대해, 시민이 함께하는 거리예술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드리프트즈 크루는 공연과 안무를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왔습니다. 2015년에 이어 2년째 '서울시 대표 B-boy단'으로 선정돼 활동하고 계신데요, 다른 활동과 가장 차별화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서울시 대표 비보이 활동의 목적은 브레이크댄 춤을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즐거운 거리문화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시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도 얻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또한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여러 해의 행사를 통해 세계 각지의 사람들에게 한국의 비보이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대한민국 비보이로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거리 공연을 할 때 받는 에너지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무대 공연과 거리 공연의 매력은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무대 공연과 다르게 거리 공연에서는 관객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공연을 디테일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관객과 호흡한다는 걸 느낄 수 있고 호응 면에서도 더 좋아 에너지 넘치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리 공연을 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은 어떤 것이지요.**

무엇보다 날씨가 어떤지, 어떤 장소인지가 중요합니다. 실내에서 하는 공연과 달리 노출이 많고 환경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날씨 체크는 물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비하게 되죠. 두 번째로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을 어떻게 즐겁게 만드느냐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이가 편하게 춤을 즐기고 가까이 느끼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춤을 즐기려면 우선 춤이 쉽게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춤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몸치라고 생각하고 창피하니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마음먹으면 너무 어려워 포기하게 되고요. 그런 이들의 눈길을 끌려면 어떤 춤이든 동작이 쉬워 보이고, 춤을 추는 이들이 스스로 즐거워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춤은 눈으로 먼저 보고 듣고 느끼는 순서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쉬워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또 여럿이 음악에 맞춰 신나게 즐기고 있다면 옆에서 보기만 해도 영향을 받아 움직일 것입니다.

**거리 축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리예술은 예술·예술가와 시민이 가까워지는 기회죠. 비보이의 입장에서 거리예술이 활성화되고 시민도 흥겹게 즐기기 위해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거리문화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입니다. 가까운 일본은 오래전부터 거리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해왔고 그 문화를 즐기는 사람이 많잖아요. 쉬운 예로 익스트림스포츠를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겠네요. 한국의 거리예술을 더욱 활성화하려면 이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기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 이아림  
사진 서울문화재단, 드리프트즈 크루



서울밤도깨비야시장@여의도 월드나이트마켓

# 서울의 밤이 즐거워진다!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이 돌아왔다. 지난해 10월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7일간 약 21만 명이 찾았지만 비상설 시장의 형태로 운영되어 아쉬움을 남겨 2016년에는 상설 시장으로 운영키로 한 것이다. 더욱 풍성해진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가득 찬 ‘2016서울밤도깨비야시장’이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서울 곳곳에서 시민들과 만난다.



## 서울의 밤이 즐거워진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교량에 불빛이 켜지고 여의도한강공원에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하면 형형색색의 푸드트럭이 모여들어 옹기종기 자리 잡는다. 2주간의 현장포럼회를 마치고 첫 공식 오픈을 맞은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이 열리는 날이다. 오후 6시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의 문이 열린다.

한강의 야경을 배경 삼아 디자인도 모양도 제각각인 수십 대의 푸드트럭이 일렬로 서 있는 광경이 이채롭다. 닭꼬치, 김치볶음밥에 탄탄면, 감바스 알 아히요 등 익숙한 음식부터 전문 음식점에서나 볼 수 있는 음식까지 푸드트럭의 종류는 무척 다양했다. 한쪽에는 구입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도 마련돼, 아이와 함께 온 시민들도 편안하게 야시장을 즐길 수 있었다. 푸드트럭과 더불어 개성 가득한 핸드메이드 제품이 손님 맞을 준비를 시작했다. 레게 머리를 한 외국인 셀러가 실팔찌를 만드는 모습과 즉석에서 외국 동전을 이용해 반지를 만드는 소리가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친구들과 함께 야시장을 찾은 시민 정윤희 씨는 “한강에서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먹고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아직은 조금 추운데 여름에 오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라며 뜬 목소리로 말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야시장을 찾은 시민은 물론 상단들도 기대와 흥분이 가득해 보였다. 푸드트럭에서는 시식을 진행하기도 하고 판매하는

물건에 맞춰 한복을 입고 손님을 맞는 셀러도 눈에 띄었다.

야시장의 진가는 밤이 깊어질수록 드러났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자동차 불빛과 야시장을 밝힌 푸드트럭, 셀러들의 조명이 멋진 풍경을 만들어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중앙에 마련된 버스킹 무대에서 마술 공연과 어쿠스틱 밴드의 공연이 시작됐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관객과 함께 소통하는 무대로 즐거운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 밤도깨비와 함께하는 하룻밤의 세계여행



시범적으로 운영된 작년과 달리 올해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의 가장 달라진 점 두 가지는 3월에서 10월까지 매주 개최된다는 점과 여의도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목동운동장, 청계광장으로 장소가 확대된다는 점, 그리고 각각의 마켓이 독특한 콘셉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네 곳의 야시장은 순차적으로 개장하는데 가장 먼저 막을 올린 서울밤도깨비야시장@여의도의 콘셉트는 ‘월드나이트마켓: 밤도깨비와 함께하는 하룻밤의 세계여행’이다. 콘셉트에 걸맞게 다양한 세계 음식과 외국인 셀러들을 볼 수 있지만 가장 이국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역시 문화 공연이다.

의의성, 유희성, 자발성을 큰 맥락으로 한 2016서울밤도깨비야시장의 문화 공연은 크게 세 곳에서 이루어진다.





물빛무대 및 장터특설무대인 메인 스테이지와 야시장 내 한 평으로 이루어진 미니 스테이지, 버스킹이 진행되는 버스킹 스테이지다. 가장 큰 규모의 메인스테이지에서는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에 월드나이트마켓의 주제에 부합하는 다양한 콘셉트의 문화 공연이 이루어지는데 한국 전통 무용부터 유럽, 아시아 및 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등의 전통 문화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메인 스테이지뿐만 아니라 야시장 내에 마련된 미니 스테이지와 버스킹 스테이지에서는 마술과 저글링, 인디밴드 등 평소 한곳에서 만나보기 어려운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다.

각각 콘셉트에 맞는 다양한 공연이 겨울을 제외한 연중 상시 펼쳐지는 만큼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을 넘어 언제나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 문화가 있는 '장터' 서울밤도깨비야시장

항상 이동해야 하는 푸드트럭과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소규모 핸드메이드 공방으로서는 1년여에 걸쳐 소비자와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야시장은 놓칠 수 없는 기회다. 그래서일까 올해 총 30팀을 선발하는 푸드트럭 모집에 130여 팀이 지원해 경쟁률이 4:1에 달했고 수공예품 부문

역시 70팀을 선발하는데 200팀 이상이 지원해 3: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다. 소비자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에 대한 갈증이 반영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푸드트럭의 합법화는 2014년 8월 서울시가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물꼬를 텄다. 이전에는 기존의 트럭을 조리시설을 갖춘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것이 불법이었다면 규제 완화 이후에는 따로 규정된 안전설비 기준에 맞춰 국토교통부의 허가증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하지만 규제 완화와 별개로 푸드트럭에 대한 인식의 제고는 쉽지 않았고 주변 상인과의 마찰 등으로 인해 여전히 지속적이고 합법적인 판로 확보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2016년 상설 시장으로 운영되는 서울밤도깨비야시장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푸드트럭과 개성 넘치는 핸드메이드 제품, 다채로운 공연을 만날 수 있다.



#### about 2016 서울밤도깨비야시장

2016년 상설 시장의 형태로 운영되는 야시장은 여의도한강공원뿐만 아니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목동운동장, 청계광장에서 각기 다른 콘셉트로 펼쳐진다. 저마다의 개성을 살린 야시장을 구경해보자!

장소	콘셉트	일시
여의도한강공원 물빛광장	월드나이트마켓	3월~10월 매주 금·토 18:00~23:00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청춘런웨이&댄싱나이트	5월~10월 매주 금·토 19:00~24:00
목동운동장	레포츠마켓: 익스트림캠핑장	7월~10월 매주 금·토 18:00~23:00
청계광장	시즌마켓	5·7·9·12월(시즌 특별마켓)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bamdokkaebi.org) 참조



소규모 핸드메이드 공방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다. 소재, 공법 등의 차별화로 기성품과 다른 저마다의 맛이 있지만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와 만날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며 결제 시스템 역시 갖춰져 있지 않아 좋은 제품들이 제대로 빛을 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야시장이라는 새로운 공간은 푸드트럭과 핸드메이드 공방에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푸드트럭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화물차에서 한정된 음식을 파는 불법 영업이었다면 서울밤도깨비야시장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메뉴와 개성 있는 트럭 디자인은 그간의 인식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실제로 야시장을 찾은 많은 사람이 푸드트럭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음식 종류에 한 번 놀라고, 판매하는 음식의 특징에 맞게 개성 있는 트럭 디자인을 보고 두 번 놀랐다는 반응이다. 소규모 핸드메이드 공방들 역시 오프라인 매장 운영에 대한 부담 없이 지속적으로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는 반응이다. 도자기 그릇을 만드는 'The빛나요' 셀러는 "공방을 운영하기 위해 작년 여름부터 우선 소규모로 핸드페인팅 도자기 그릇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10월까지 정기적으로 열리는 야시장에 참여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고 제 꿈을 향해 한발 내디딘 기분이 들어요. 특히 작년 시범 운영 때 오셨던 손님이 다시 오시기도 하고 많은 분이 제 그릇을 직접 보고 예쁘다고 해주실 때면 밤샘 작업의 피로도 싹 달아나는 것 같아요."라며 상설화된 야시장

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야시장은 서울시에도 가능성으로 다가온다. 날씨의 영향을 받는 개방된 공간을 어떻게 운용할지, 많은 사람이 몰리는 만큼 쓰레기 처리에는 무리가 없는지 등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연인과 함께 그리고 가족, 친구와 함께 서울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 공간의 탄생이기도 하다.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을 진행하는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정상택 과장은 "서류 심사와 현장품질회 두 번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야시장 상인들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자립 기반을 만들고 야시장을 발판 삼아 오프라인 매장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야시장을 통해 성장한 상인들은 내년 야시장에 참가하는 새로운 희망 창업자에게 멘토가 되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한 밤도깨비야시장이 불거리, 살거리, 먹거리 등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문화가 결합된 관광 명소가 되길 기대합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브랜드가 되는 것이죠. 상설화를 통해 보다 많은 청년 상인이 일자리를 찾는 기회가 되고 창업을 위한 테스트 기반으로서 밤도깨비야시장이 기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며 야시장과 청년창업자들이 함께 성장하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말했다. 서울의 대표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을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김치볶음밥 푸드트럭 '미스꼬레아' 대표 백래혁

## 우리 메뉴는 두 가지, '김치볶음밥'과 '꿈'입니다

익숙한 냄새가 난다. 쉬워 보이지만 웬지 내가 하면 절대 그 맛이 나오지 않는 엄마의 김치볶음밥. 그런데 그 냄새가 난다. 기웃기웃 살펴보니 한쪽에서는 커다란 주걱으로 무쇠 가마솥에 밥을 볶고 한쪽에서는 달걀프라이와 햄을 굽고 있다. 고슬고슬 잘 볶아진 밥 위에 달걀프라이 하나와 햄 하나! '미스꼬레아' 표 김치볶음밥 완성이다.

### 푸드트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처음 제안한 사람은 아내다. 안정적인 회사에 다녔지만 업무가 뭐가 삶의 동기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내심 아이를 낳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들어오는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아내의 결심이 확고해졌다. 고민 끝에 장사를 해보기로 하고 주변 변화가의 가게들을 알아보았는데 잘못하면 2억~3억 원 날리는 건 문제도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불현듯 생각난 게 푸드트럭이다. 마침 푸드트럭에 대한 여러 규제가 완화되고 영화〈아메

리카 세프〉 등으로 푸드트럭이 부상하던 시기였다. 그래서 푸드트럭을 해보기로 결심했고 쉬우면서도 친근하고 회전율이 높은 음식을 고민하다가 김치볶음밥으로 결정했다. 메뉴를 개발하는 동안 주말 식사는 김치볶음밥뿐이었다.

### 푸드트럭 운영의 가장 좋은 점과 힘든 점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지?

푸드트럭의 좋은 점은 자유로운 시간 운용 등이지만 가장 좋은 건 끊임없이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거다. 푸드트럭을 하다 보면 한 장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물론 가끔은 힘들게 하는 손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 트럭 안에서 바깥을 보면 꼭 영화 스크린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매일 다른 영화를 보는 기분이니 늘 새롭고 재미있다. 힘든 점은 아무래도 야외에서 하는 일이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허탕이다.

###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푸드트럭이나 소규모 핸드메이드 상인들에게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

물론이다. 지금까지는 푸드트럭에 대해 불법이라는 인식은 물론이고 푸드트럭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거나 조언을 받고 또 테스트할 수 있는 창구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을 통해 많은 푸드트럭과 시민들을 만날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사업 아이템을 시험할 수도 있고 끊임없이 개선할 수 있다. 서울시도 단순히 지원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야시장이라는 새롭고 질 좋은 문화 콘텐츠를 갖게 되는 거니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 앞으로의 포부가 궁금하다.

'미스꼬레아'라는 상호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로 향하는 게 목표다. 김치볶음밥이라는 우리나라의 음식을 들고 나중에는 칸 영화제나 선댄스 영화제에 가는 기분 좋은 상상도 해 본다. 또 한 가지 계획은 다른 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싶다. 푸드트럭이 재미있고 좋아 보이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 뛰어들면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망할 수 있는 사업이다. 생각보다 훨씬 변수가 많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기틀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정보도 부족하다. 우선 푸드트럭의 기반을 단단히 한 다음 우리처럼 막막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다. <sup>백래혁</sup>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밤도깨비야시장에 참여하게 된 푸드트럭 '미스꼬레아'의 백래혁 대표.



글 박지영  
사진 박정훈, 박지영



5월의 밤, 서울 거리에서 즐기는 다채로운 행사



# 역사 산책부터 빛의 퍼레이드까지

‘서울의 밤’이 다양한 즐길 거리로 속속 채워지고 있다. 가정의 달이자 석가탄신일이 있는 5월의 밤에는 역사와 전통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K-pop 콘서트, 연등회까지 다양한 행사를 야외에서 만날 수 있다. 낮의 서울과 전혀 다른 밤의 서울, 그 진가를 그림 그리듯 고즈넉한 빛과 이야기가 수놓일 밤에 확인해보자.

## 서울, 봄밤, 그리고 ‘궁’

서울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이다. 조선왕조부터 시작된 600여 년 수도의 역사는 서울을 설명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 고층빌딩과 콘크리트 건물이 도시 곳곳을 빼곡히 채우고 있어 잊기 쉬운 서울의 역사를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장소는 ‘궁궐’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궁의 야간 개장이 부분적으로 진행되면서 시민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밤 산책하기 좋은 5월에는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궁의 야간 프로그램들이 시민을 기다린다.

올해 2회째 열리는 궁중문화축전은 대표적인 ‘궁궐 축제’로 조선시대 4대 궁으로 꼽히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과 종묘에서 열린다. 궁이 지닌 역사성과 장소성을 바탕으로 궁중문화를 새롭게 해석해 시민과 나누는 축제다. 장소별로 각 장소 특성에 맞는 주제에 따라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덕수궁에서는 축제 기간 저녁에 근대 조선의 역사와 음악을 만날 수 있다. 석조전 콘서트 시리즈 <황제를 위한 아리아>(4.30~5.4)와 중화전에서 열리는 덕수궁 근대음악회(5.5~7)가 그것으로, 고종 황제가 덕수궁에 머물던 시기 비운의 역사 속에서도 꽃피기 시작하던 근대 문화의 풍경이 해설을 곁들인 다양한 형식의 음악 공연으로 펼쳐진다. 종묘 정전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종묘 제례악이 이틀(5.3~4)간 야간 공연으로 진행되며, 조선 16



대 왕 인조를 재조명하는 연극 <인조, 길 끝에서>가 창경궁 문정전에서 공연된다. 창덕궁의 역사와 문화를 ‘이동형 이야기극’이라는 독특한 형식으로 전하는 ‘창덕궁 별빛야행’도 주목할 만하다. 이 중 중요제례악 야간 공연과 연극 <인조, 길 끝에서>, ‘창덕궁 별빛야행’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이외 궁중문화축전의 자세한 일정과 프로그램은 궁중문화축전 홈페이지(www.royalculturefestival.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봄밤 궁의 여운이 잊히지 않는 이들에게 ‘창덕궁 달빛기행’과 경복궁·창경궁의 야간특별관람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창덕궁 달빛기행은 매년 봄, 가을에 열리는 행사로 2012년 시행 이후 관람객의 뜨거운 호응을 얻어온 인기 프로그램이다. 창덕궁은 조선시대 궁궐 중 가장 한국적이고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곳. 음력 보름을 전후해 진행되는 창덕궁 달빛기행은 은은한 달빛 아래 전문해설사의 안내로 창덕궁의 후원과 전각을 돌아보는 산책 코스와 다과를 즐기며 전통 공연을 관람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시행 횟수를 대폭 늘려(37회⇒61회) 운영되며 그중 상반기 행사는 6월까지다.(www.cdg.go.kr)

경복궁과 창경궁의 야간특별관람 역시 봄밤 나들이의 인기 코스다. 고궁 야간특별관람 역시 관람 기간을 연간 48일에서 120일로 늘렸으며 연간 4회차로 진행되는 일정 중 현재 2회차가 진행되고 있다(4. 30~6. 2, 오후 7~10시). 경

복궁의 경우 올해 개방 장소가 사정전, 강녕전, 교태전까지 확대됐으며 야간특별관람 기간 궁 내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도 연장 운영된다. 입장 마감 시간은 9시까지, 하루 2500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경복궁은 화요일, 창경궁은 월요일 휴궁한다.

### 정동길에서 1900년대 ‘달덜골목’으로 타임슬립

정동 일대는 한국 근대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장소다.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접어들어 이후 외국인이 드나들고 거주하던 중심지로 국제교류의 주 무대이자 신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곳이기 때문이다. 옛 러시아공사관과 정동제일교회, 배재학당 역사박물관(배재학당 동관), 이화박물관(이화여고 심슨기념관)은 당시에 건립돼 현재까지 남아 있는 대표적인 유산이다. ‘정동야행’은 이러한 조명이 찾아드는 밤에 정동 일대 문화시설을 돌아보며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역사도보투어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열리는 5월 27~28일 이틀간 덕수궁, 서울시립미술관, 정동제일교회, 구세군역사박물관, 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등에서는 그림자 인형극, 파이프오르간 연주회, 라이브드로잉쇼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며, 약 90분 동안 진행되는 도보담사 프로그램 ‘다같이 돌아 정동 한바퀴!’에 참여



- 1 서울의 궁궐 중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진 창덕궁(주합루)의 야경.
- 2 궁중문화축전 기간에 창경궁에서 공연되는 야외 정통사극 <인조, 길 끝에서>(5. 5~7).
- 3, 4 정동야행기간 동안 덕수궁길을 비롯한 정동 일대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투어 등의 문화행사가 진행된다.



3 4



5, 6  
5월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진행되는 연등회에는 전통등전시회, 연등행렬과 연등놀이,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하면 정동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옛 러시아공사관, 이화박물관,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등 근대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공간을 탐방할 수 있다. 덕수궁 돌담길 일대는 '덜덜골목'으로 변신해 흥미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근대 신문물의 시작점인 만류, 모르스 부호를 이용해 문자를 완성하는 '전신으로 소통하다', 커피콩을 절구에 갈아 만들던 옛 커피 제작 방식을 체험하는 '가비의 향', 근대 복식을 입을 수 있는 '묘화 양복점' 등이 운영된다. 한국사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이자 가장 매력적인 시기로 이야기되는 1900년대로 5월의 봄밤 타임슬립을 경험할 기회다.

### 음악의 열기와 아름다운 빛의 퍼레이드 속으로

고궁에서 조선시대를, 정동 일대에서 신문물의 시작과 어지러운 정치사가 혼재된 근대를 만난다면, 2016년 서울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행사도 있다. 삼성동 코엑스 일대에서 펼쳐지는 씨-페스티벌(C-Festival)은 아토틀리 전시와 디자인페스타, 글로벌컬처퍼레이드, 무지개칠판 드로잉 체험 등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의 현재를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이다. 이 중에서도 주목도 높은 것이 5월 8일 저녁 영동대로에서 펼쳐질 케이팝(K-POP) 콘서트, 싸이, 위너, 아이오아이 등 한국 대중가요계에서 가장 '핫한' 팀들이 출연해 케이팝의 현재를 제대로 보여줄 예정이다.

5월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서울시내 사찰에서 진행되는 연등축제도 5월의 밤을 다채로운 빛으로 채운다. 서울 조계사 앞길을 비롯한 종로 일대에서 개최되는 '연등회'(5. 6~8)는 전통등전시회, 연등행렬과 연등놀이, 연등 만들기 와 사찰음식 체험, 전통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7일(토) 저녁에 펼쳐지는 연등행렬에서는 다양한 모양과 빛깔의 수천 개 연등이 서울의 거리를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국내 사찰에서 제작한 보름달등, 연꽃등, 팔모등뿐만 아니라 미얀마와 네팔, 스리랑카, 베트남 등 해외 불교문화권의 연등도 감상할 수 있다. 대규모 연등행렬과 함께 어둑해지는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지혜, 자비, 가까운 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보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 것이다.

서울의 밤을 밝히는 아름다운 빛으로 각광받는 곳 중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장미정원을 빼놓을 수 없다. DDP 이간수문 전시장 옆에 위치한 장미정원은 'LED 장미' 2만 5550송이가 순백의 빛을 발하며 방문객의 마음을 흔든다. 2014년 10월 한 브랜드의 론칭 쇼를 계기로 설치돼 DDP에 기증된 LED 장미는 일종의 '공공미술 콘텐츠'로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2만 5550송이(70년×365일)로 증설되기도 했다. 은은한 빛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자 하는 시민들로부터 DDP 장미정원은 큰 사랑을 받으며 서울의 볼거리가 되고 있다.

글  
이아림

사진 제공  
공중문화축전추진기획단,  
문화재청, 중구청  
문화관광과, 연등회  
보존위원회



봄 은 거 리 예 술 의 계 절

# 거리 예술 시즌제

## 첫째주 선유도공원

4월 2일, 3일  
5월 7일, 8일  
6월 4일, 5일



음악의 유령  
무연극



자전거극장 모빌리베라  
팝업북형식 인형극



WORK  
거리극

4월  
5월  
6월

## 둘째주 서울숲

4월 9일, 10일  
5월 14일, 15일  
6월 11일, 12일



갈피를 잃은 그대에게 책갈피  
시리즈 민예연극



원신인 HOT Show  
전통연희



여행 - 가방 속에서 꺼낸 기억  
인형극

극단  
사하따나

더더더

배낭속사람들

앤드씨어터

## 셋째주 어린이대공원

4월 16일, 17일  
5월 21일, 22일  
6월 18일, 19일



인생예찬 콘서트 김가락유랑  
국악 중심 월드뮤직



단디우하  
버티컬 퍼포먼스



놀이사용실명서  
관객 참여형 공연

연희컴퍼니  
유희

오정은

창작음악그룹

THE툰

## 넷째주 DDP

4월 23일, 24일  
5월 28일, 29일  
6월 25일, 26일



꿈꾸는 사람들 - 춤추는 돌  
현대무용



피니스트 코메디 서커스 쇼  
서커스 코미디



경상도 비눗방울  
마임

창작중심  
단디

코끼리들이  
웃는다

트러스트  
무용단

팀 피니스트



황해  
에어리얼 아트(서커스)



비가 & 본드  
넌버널 퍼포먼스

갈피를 잡지 못해 방황하는 우리를 위한 거리극, 벽을 오르고 공중을 나는 서커스, 구수한 입담과 함께 인생을 예찬하는 국악기반 세계음악, 자전거 극장에서 펼쳐지는 동심을 자극하는 인형극, 무연극과 마임까지!

우리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가장 가까운 곳으로 새로운 예술이 찾아옵니다. 따뜻한 봄, 거리와 공원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장르의 거리예술 공연을 만나보세요.

팀 클라운

프로젝트  
루미너리

프로젝트  
모아

※ 공연 세부 일정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sfac.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올해 '거리예술 시즌제'는 4월부터 6월까지 세 달동안 진행됩니다.

일부 공연은 올 가을 서울시 푸른도시국 및 한국거리예술센터와 함께하는 '선유도 거리예술마켓(9.2-3, 예정)'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16. 9.17 - 2016. 9.17

# 생각의 그림 • 그림의 생각

불편한, 불운한, 불우의, 불륜의, .... 그냥 명작전

2016. 9.17 -

12년 만에 개인전 연 미술가 김정현

## 그림, 조용히 내뿜은 '지금, 여기, 우리'의 기록

김정현 작가는 1980년대 오윤, 임옥상 등과 함께 현실 참여적 작품을 선보인 민중미술 1세대 작가다. 직설적이기보다 위트와 여백이 느껴지는 그의 작품은, 문화운동과 환경운동, 예술행정 등 틀에 갇히지 않고 '잡다하게' 활동해온 그의 궤적과도 통한다. 그가 12년 만에 개인전을 열었다. 장소는 종로구에 위치한 대안공간. 한 발짝 떨어져서 한 템포 늦게, 캔버스에 조곤조곤 기록해온 '지금, 여기, 우리'의 이야기를 그는 청소년, 대학생을 비롯해 다양한 관객에게 풀어내 보였다.



# 김정현

## 먼 길을 돌아와 여는 12년 만의 개인전

그때 그는 창밖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월간 일정표에는 표시된 일정이 하나도 없었다. 그에게 보고를 하러 오는 사람도 없었다. 그를 만나는 사람은 보고되었다. 그에게 하라는 일은 없었지만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기록되었다. 그는 자신이 보고되고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또한 기록했다.

그는 도심 한복판에 '위리안치'되어 있었다. 법원 판결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위원장으로 복귀했지만 직원들은 아무도 그를 위원장으로 대접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감시의 대상이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어딘가로 보고되고 있었다. 2010년 김정현 당시 위원장을 찾아갔을 때의 풍경이다. '문화 유배자'를 만나는 듯한 기분이었다.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된 문체부 산하단체 기관장들을 자기 사람으로 앉힐 때 민중미술 협의회 출신인 그는 첫 번째 교체 대상이었다. 해임된 후 법원에 해임처분효력정지 신청을 하고 복직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지위는 있되 업무 권한은 없는 위원장'으로 별관에 '수용'되었다. 대신 그는 예술위의 잘못된 예술 행정에 대해 사과했다. 나중에 그는 이것을 '행정 미술'이라고 불렀다.

1980년 오윤·임옥상 등과 함께 현실 참여 작가들의 동인인 '현실과 발언'을 만든 김 전 위원장은 한국 민중미술의

1세대 작가다. 작품에 여백과 위트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민중미술 작가들과 결이 좀 다르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3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그림에는 여유가 있었다. 그가 12년 만에 여는 개인전 <생각의 그림·그림의 생각: 불편한, 불온한, 불후의, 불륜의, ...그냥 명작전>(2016. 3. 17~4. 24, 서울 종로구 아트스페이스 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의 1970~80년대 대표작들과 최신작 30여 점이 이번에 전시되었다.

## 한발 떨어져서 '그림으로 그린 사회사'

김 전 위원장은 흔히 홍성담 작가와 비교된다. 광주비엔날레에서 철거돼 이슈가 된 <세월오월>을 그린 홍 작가가 좀 더 직접적으로 현실을 고발하고 발언한다면, 그는 현실에 대해 발언하되 한발 떨어져서 보고 한 템포 늦춰서 발언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도 그런 관조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무책임한 위정자를 빗댄 <아몰랑' 구름이 떠 있는 수상한 옥상>이나 세월호 참사를 검은 바다 위에 밝은 창이 잠겨 있는 형태로 그린 <희망도 슬프다>를 보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 내세우지 않고 천천히 유추하도록 하는 그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

이번 전시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림으로 그린 사

회사'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1970년대 도시빈민 문제부터 1980년대 독재의 문제 그리고 1990년대 소비물신주의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 끝없이 발언했던 그는 여전히 이슈의 현장에 있었다. 세월호 참사부터 한인 징용자들에 대한 고려 없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일본 하시마 섬(군함도) 문제, 그리고 최근 유행하는 '꼰대' 남성들의 '여혐 현상'까지 '지금, 여기, 우리'의 문제를 그렸다.

또 하나 인상적인 모습은 전성기의 그림에 다시 덧칠을 한 점이다. 그것도 아주 장난스럽게 했다. 잘 팔릴 것 같은, 뭔가 대단해 보이는 작품에 마치 낙서를 하듯 덧칠했다. 중년의 김정현에게 노년의 김정현이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 장난을 거는 것처럼 보였다. 전시회 이름에 '명작전'을 내건 것도 그런 장난기의 연장으로 보였다. 그림으로 세상을 희화화한 그의 마지막 희화화 대상은 바로 그런 그림을 그리는 자기 자신이었다. 전시장에서 그를 만나 그의 그림과 그의 인생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 전시회에 대한 주변의 평은 어떤가요?

최진욱 작가가 내 전시를 보고 가서 실망했다는 글을 블로그에 썼다고 누가 나에게 고자질을 했다. 기대한 것이 안 나타났다는 것이다. 맥락이 단절되어 있다고, 지속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맞는 말일 수도 있다. 나는 표현 방식이 작품마다 다른데 그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그때 그때 가장 표현하기 좋은 방식을 찾아서 썼다. '시대적 과제물'에 가장 적당한 말을 찾았다. 잡다한 생각을 표현할 잡다한 방법을 구한 것이다.

### 대가로 인정받는 작가들은 보통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작가의 패턴을 이해하면서 그 작가를 이해하기도 합니다.

일관성과 패턴에 대한 집착이 우리나라 미술에서 특히 심하다. 모노크롬(단색화) 추상화 계통에서 자기복제가 만연하다. 점 하나나 두 개나로 유형을 구분하기도 하고, 나는 그런 것에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과연 그렇게 자기 라벨을 만



캔버스에 아크릴, 93×93cm, 2015

"위정자의 무책임한 말이 흘러가는 구름처럼 떠 있는 풍경이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남의 일처럼 말하는 우리 세상을 나타낸다."

'아몰랑' 구름이 떠 있는 수상한 옥상

캔버스에 아크릴, 131×162cm, 1999



이상한 풍경

드는 것이 작품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일까 싶다. 그것은 세상과 단절된 태도다. 혼자만의 밀실에서 자기만족을 위해 표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선생님은 고정된 틀에 갇히는 걸 경계한 것 같습니다.**

클리셰를 피하고 싶었다. 대가라는 사람들이 진부한 표현 방식을 우려먹고 또 우려먹는 방식이 못마땅했다. 모노크롬 작품들이 옥션에서 이해할 수 없는 가격에 팔리고, 그 그림을 찾아 사람들이 또 쿵쿵거리고 다니는 것이 싫었다. 어떤 면에서는 작품 가치가 인정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런 장난을 친 것일 수도 있다. 12년 만에 하는 전시라 부산을 좀 떨었다. 옛날 작품을 죄다 끄집어내서 다시 보았다. 그럴 때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달라진 것에는 덧칠을 하며 바뀐 생각을 그려 넣었다.

**잡다한 시대를 담다 보니 잡다한 표현 방식을 쓰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림만 그린 것이 아니라 활동도 '잡다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일을 했다. 대학에서 미술 교육도 하고 시민단체에서 문화운동, 환경운동도 했고 제도권에서 예술 행정을 하고 마을 만들기도 했다(김정현 작가는 서울문화재단 이사장도 역임했다). 한 가지만 계속한 삶이 존경스러울 수도 있지만 나처럼 잡다하게 산 사람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12년 만의 개인전인데 대안공간에서 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젊은 사람들 공간에 전시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을 보니 아직 나에게 젊은 기운이 남아 있는 것 같다. 하자센터 학생들이나 성공회대 대학생들이 왔을 때 그림 설명을 해줬는데 무척 재미있어했다. 작가에게는 젊은 감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뭔가 나오기 때문이다.

달의 중력으로 균함도를 격파하라



캔버스에 아크릴, 73×91cm, 2015  
“나에게 동그란 점은 글씨를 쓴 것과 같은 의미다. 이미지를 재해석할 여지를 준다.”

**많은 문화예술인이 전시회를 보고 갔습니다. 전시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신경림 시인이 '왜 이렇게 말이 많고 중얼거리느냐'고 핀잔을 주었다. 그림은 단순한데 글이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다. 그림이 단순하다고 해서 담긴 생각까지 단순한 것은 아니다. 그림이 그려지기까지 복잡한 형상화 과정이 있다. 관객들이 그림을 볼 때 그런 과정을 유추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읽어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글씨를 넣었다.

내 그림의 글씨는 그림의 내용을 풀어주는 기능을 한다. 그림의 완성은 관객들 몫인 것인데, 조금이나마 힌트를 주고 싶었다.

**선생님 그림에는 왜 늘 글씨가 들어갑니까?**

화가에게 그림이란 세상을 향한 끝없는 지경임이다. 나는 말을 못 참는다. 어떤 식으로든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 그리고 즐거리가 있는 것을 좋아한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서사적 인격'이 아닌가 싶다.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한 인간의 삶이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있다. 문학적 표현을 시각적 예술과 융합하는 깊이 있는 표현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싶는데, 생각을 앞세우면서도 표현력은 부족해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은근한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박찬경이 그러더라. 글씨가 없었으면 참 좋은 작품이었을 것이라고. 그래서 맞아아쳤다. 글씨 때문에 그림이 좋아지는 거라고. '쓸데없는 친절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나는 생각이 다르다. 글이 그림과 관객 사이에 소통 역할을 한다고 본다. 나에게서는 잡스러움이 필연이다. 앉아 있으면 버릇처럼 끄적거리게 된다. 붓이나 연필에 손이 가서 뭘 그리거나 뭘 쓰게 된다.

**다른 민중미술 작가들과는 다르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1980년대 초 소그룹 활동을 할 때 주변 작가들 그림은 '토해 내기'였다. 억압된 상태에서 그림을 통해서 분출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직접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기 싫었다. 자기 자신을 속시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세상도 마찬가지다. 나는 빠져나갈 구멍을 둔다.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는다.



캔버스에 유채, 75×75cm, 2015

희망도 슬프다

**그런 것이 이슈의 현장을 오래 지키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은근히 끈질긴 면이 있는 것 같다. '쇠심줄 같은 형님'이라는 후배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단절되기도, 포기하기도, 건너뛰기도, 요령을 피우기도 했는데, 돌아보니 뚜벅뚜벅 한 길을 걸어왔다. 최소한 일관성은 있는 것 같다.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서 물러난 뒤로는 한동안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을은 최소 단위의 사회다. 마을이 살아야 더 큰 덩어리인 사회가 산다. 여기가 주저앉으면 사회 전체가 무너진다. 제천의 폐교를 중심으로 마을 만들기를 시도했다. 4년 동안 했는데 결국 포기했다. 거리가 멀어서 힘들기도 해서 결국 문을 닫았다. 녹색평론 김종철 선생이 '내 그럴 줄 알았다'며 웃더라. 나도 헛웃음이 나왔다. 모든 걸 걸고 해야 했는데 아파 추어 수준으로 덤뻐던 것 같다. 그래도 부끄럽지는 않다. 시도해보길 잘했다.

**미술계 원로로서 지금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예술가에 대한 지원 문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날 때도 그 부분을 늘 강조한다. 청년수당처럼 예술가들을 별도로 지원할 방법이 없는지 모색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그들을 위해 어떤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

글  
고재열  
시사IN 문화팀장

사진  
김창제

작품사진 제공  
아트 스페이스 풀  
(www.altpool.org)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커스 창작워크숍> 연출가 뱅상 고메즈

## 자유롭고 즐거운 것이 서커스다

두려움과 자유로움이 공존하는 서커스 속에서 삶을 살고 있는 프랑스의 서커스 아티스트 뱅상 고메즈(Vincent Gomez), 그가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의 서커스 전문가 양성과정 'Jumping UP' 프로그램의 서커스 창작 워크숍을 진행했다. 화창한 봄날, 그를 만나 현대 서커스의 매력에 함께 빠져보았다.



**서커스로 굼직한 경력을 쌓아왔다. 간단한 소개 부탁한다.**

1989년부터 시작했으니 서커스를 한 지는 27년 됐다. 프랑스 국립서커스예술센터(CNAC: Centre National des Arts du Cirque)에서 5년간 서커스 공부를 마치고 12년 동안 서커스 관련 여러 단체에서 공연했으며, 그 후 단단한 몸을 좀 더 유연하게 풀어주기 위해 10년간 다양한 장르의 무용 공연을 했다. 2002년에 서커스 정신을 계승한 오희 피스트(Hors Pistes: 무대를 넘어선)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서커스와 무용의 경계가 없는 '움직임 예술'을 보여주는 데 주력했다. 우리 팀은 10년간 8편의 다양한 작품을 만들었고 서커스 음악, 서커스 연극, 서커스 무용 등 서커스 예술을 기반으로 한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공연 작업을 하고 있다.

**어떤 매력 때문에 서커스를 시작하게 되었나.**

다섯 살 때부터 열여섯 살 때까지 기계체조를 했다. 기계체조는 경쟁 장르라서 항상 누군가보다 더 잘해야 했는데 그런



경쟁이 너무 싫었다. 그래서 내 몸을 계속 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찾다가 서커스가 좋겠다고 생각했다. 누군가와 함께 더 잘할 수 있고, 상대방보다 더 잘해야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도움을 받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때만 해도 근현대적인 서커스 예술을 배운 게 아니라, 천막에서 말(동물)과 함께하는 전통 서커스를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열다섯 살 때 국립서커스예술센터에 입학해 서커스에 입문했다.

**한국에는 캐나다 서커스 팀인 '태양의 서커스'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현대 서커스가 무엇인지는 잘 모른다. 현대 서커스에 대해 간단히 얘기해줄 수 있나.**

'태양의 서커스'는 미국 스타일의 대형 쇼 개념보다는 프랑스의 예술적 움직임이 많이 들어간, 굉장히 미학적인 공연을 여럿 만들었다. 프랑스는 좀 더 내적이고 사적인 경향을 띤다. 감정이나 기분, 에너지의 느낌을 중시하는데 이런 부

분이 장점이 되기도, 때론 단점이 되기도 한다. 내가 아는 프랑스의 현대 서커스는 묘기에 중점을 두지 않고 이야기나 감정, 분위기를 묘기와 병행하며 서커스 기술과 예술을 접목하는데 주력한다.

**지금도 서커스 무대에서 활동하는데, 연출가와 배우 중에 어떤 작업이 더 좋은가.**

나는 두 가지 모두 좋다. 무대에서 아크로바틱을 하며 무대에 아직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공연 연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무대에 서야 한다. 4년간 연출만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내가 연출을 좋아하는 줄 알고 무대 밖에서 공연을 만들지만 했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걸 느꼈다. 그래서 배우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몸을 움직이면서 좀 더 명확하게 알아가기 시작했다. 가능하면 연출과 배우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한 가장 오랫동안 병행하고 싶다. 그리고 몸을 더욱 유연하고 부드럽게 활용할 수 있는 무용 공연과도 계속 손을 잡고 싶다.

**서커스 예술가 중에는 특별히 누군가에게 영감을 받거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존재하는가.**

서커스 예술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서커스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런 사람이 없었으니까. 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 자체가 좋았다. '두려움'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곳에서 아크로바틱을 하는 자체가 좋다. 내 전공은 Bascule Coréenne(한국식 널뛰기 묘기)인데, 묘기를 할 때 항상 두려웠지만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했다. 다만 조심할 것은 두려움이 사라지면 위험하고 자주 다치게 된다는 것이다. 찰리 채플린이나 버스터 키튼의 영화를 보고 영향을 받기도 했다. 많은 서커스인이 그들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들이 이미 서커스적인 움직임을 했기 때문이다. 버스터 키튼은 그 당시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아크로바틱을 선보였고, 찰리 채플린도 마찬가지였다. 알고 보면 진정한 서커스를 발명한 사람은 그 둘이지 않나 싶다.

**당신의 삶에서 서커스는 어떤 의미인가. 어떤 단어로 함축할 수 있을까.**

서커스는 내 인생에 '자유로움'을 안겨주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켰고, 나를 자주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가게 한다. 작업할 때는 굉장히 진지하고 엄격하게 임해야 하지만 무대에 올라가면 그 모든 걸 버리고 자유로워져야만 한다.



거리예술창작센터  
서커스 창작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  
뱅상 고메즈와 워크숍  
참가자들.

국인을 알고 싶고 그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필요로 하고, 나누기를 원하는지 제일 궁금했다. 나는 행운과 같은 기회를 얻었다. 어떤 작업이든 첫 단계, 첫발을 내디디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누며 같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차근차근 기본적인 단계를 밟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예술가들과 비교해 이번 한국의 워크숍 참여자들은 어떤가, 한국의 서커스가 잘 자리매김하려면 어떤 부분을 더 다녀나가야 할까.**

프랑스 예술가들과 달라서 사실 좀 놀랐다. 프랑스의 경우 15명이 같이 수업하게 되면 5분마다 그만해! 집중해! 라고 소리치게 된다. 한국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다. 집중해서 잘 듣고, 산만하지도 않고, 굉장히 예의 바르고 장점이 정말 많다. 다만 좀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든 못하든 끝없이 시도해야 한다.

프랑스에서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을 바탕으로 이것이 한국인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한국의 현대 서커스가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내겐 가장 흥미로운 점이다. 한국의 전통과 특징을 어떻게 서커스에 잘 접목 하느냐가 중요하다. 프랑스, 호주, 미국의 서커스와 달리 '한국의 서커스'는 무엇인가, 일본의 노나 가부키 공연처럼 그

그리고 완전히 자기 자신과 일치할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자유롭고 즐거운 것이 바로 서커스다.

**공연 때문에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 올해는 그때와는 달리 워크숍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는데 어떤 점이 다른가.**

6년 전에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는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에서 힙합댄스 팀의 댄서로 아크로바틱과 춤을 선보였다. 그때는 공항, 호텔, 공연장이 세 군데만 왔다갔다 했는데 올해는 완전히 다르다. 이번에는 한국의 예술가들과 교류하기 위해 왔다. 뭔가를 가르치고 보여주기보다는 한

나름의 고유한 색깔을 가진 서커스 예술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프랑스에 굉장히 많은 현대 서커스 단체가 존재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공연은 모두 제각각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 그 모든 다른 색깔이 모여서 하나의 프랑스 색깔을 만들어낸다. 절대 한 색깔에 갇히지 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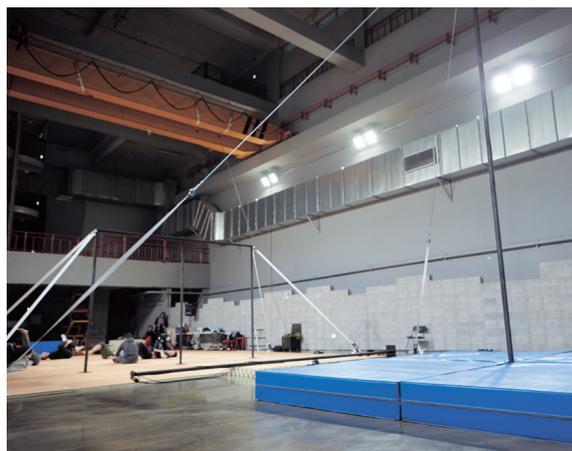
**지금 교육을 진행하는 장소인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는 서커스 예술을 하기에 어떤가.**

굉장히 좋은 배와 같다. 놀라운 점은 벌써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무언가를 할 때 다른 많은 것은 준비되어 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기는 '준비'된 장소가 있다. 내부에서 교육도 할 수 있고, 정보도 제공하고, 기록도 할 수 있다. 넓고 높고 더군다나 낮에는 빛도 잘 들어온다. 이 부분은 중요한데, 극장 공간처럼 빛이 안 들어오게 해서 작업하는 곳도 있지만 날씨의 변화도 느끼고 감각을 더 열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면 더 좋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곳은 정말 작업하기에 좋은 장소다.

**사실 한국에서는 중국의 기예 기술 위주의 단체가 서커스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럽이나 캐나다, 호주와 같은 현대 서커스 단체는 아직 없다. 한국 서커스 발전을 위한 조언 부탁한다.**

첫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부분은 '시간' 외에는 없는 것 같다. 확실한 점은 좀 더 '멀리 갈 것'이라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을 들여 사람을 찾고, 그 사람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 서커스 기술에 대한 교육, 프랑스·호주·미국의 예술가 등과 함께 학생과 교육자 모두 잘 교육해야 한다. 편편일률적인 교육보다 각자의 다른 점에 늘 호기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 또한 항상 다른 것을 시도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똑같은 것을 반복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서커스 예술은 역설적이다. 아크로바틱을 하기 위해 위험한 만큼 정확한 기술이 요구되고, 저글링이나 줄타기 기술에서도 떨어뜨리는 안 되는 단호함이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서는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 '명확함'과 '자유로움' 두 가지 모두 병행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불균형을 초래한다. 너무 예술적이면 서커스가 죽고, 너무 기술적이면 기계체조에 가까워진다. 항상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노력하며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서커스 창작 워크숍이 진행된 거리예술창작센터 내부.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해라. 특히 우리는 실수할 권리가 있다. 실수를 통해 더 많이 배우고 더 나아가게 된다. 공연 작품을 만들 때도 삶을 경험할 때에도, 실수를 하고 그것을 통해 배우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한국의 많은 예술가, 특히 무용이나 연극을 전공한, 서커스 예술과 관련이 있고 많은 관심을 가진 예술가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오세요! 호기심과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오세요.” 프랑스에 와서 문을 두드린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연기나 무용을 전공한 사람들과 자주 작업한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몸에 대해 자각하고 작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커스 외의 여러 다른 방식을 적용해 작업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작업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프랑스는 1990년대부터 연극과 무용을 서커스에 결합시키며 서커스를 발전시켜 나갔다. 장르 융합에 절대 주저하지 마라.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은 잘 유지하되 잘 섞여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잘 섞여라. 어찌면 먼 훗날 한국에서 무용수들과 음악가들이 만든, 서커스 예술가가 없는 서커스 공연이 탄생할지도 모른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서커스 예술은 몸을 기반으로 한 육체적인 접촉이 많은 예술 장르이고, 그 접촉이 곧 믿음의 기반이 되는 예술이다. 혼자가 아닌 상대방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함께할 사람을 찾아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즐겨야 한다. 서커스에서의 자유로움은 이 모든 것을 즐길 때 가능하다. 우리는 여러 많은 규칙 속에서도 즐겨야 할 권리가 있다.

글 정안영  
‘프로젝트 외’ 대표,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커스 전문가  
양성과정 Jumping UP  
(서커스 창작워크숍)  
코디네이터.

사진 김창제



예술가가 당면한 문제: 공적 지원, 작가보수, 검열, 그리고...

## 지금 우리가 예술가에 관해 이야기해야 할 것들

예술가에 대한 공적 지원은 왜 필요한가, 또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공공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전개된 적이 많지 않다. 몇 년 사이 젊은 창작자를 중심으로 예술인 복지와 작가보수 이슈 등이 부분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지만 대중의 보편적인 이해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예술·예술인 지원이 뒷받침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예술계 전반에 불거진 검열 문제도 창작자들을 위축시키는 가운데, 예술가가 직면한 문제를 차근차근 진단해보고 더 넓은 영역에서의 논의를 촉발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되었다.

사회	임인자	독립문화기획자
토론	전운환	연출가, 앤드씨어터 대표
	박은선	리슨투데이 대표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대표이사
	송혜진	숙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 교수
	안애순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
	최선	설치미술가
	이규석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본부장
일시	2016. 4. 12	
장소	대학로연습실 다목적실	

**예술정책을 수립할 때 예술가가 원하는 지원 방식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올해 어떤 이야기를 예술가들과 해야 할지 정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해 동안 나뉘었다면 하는 의제들에 대해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원환** 저는 2008년 극단을 창단해 9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많은 지원사업을 신청했고, 올해 처음으로 서울문화재단의 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젊은 창작자들이 재단의 지원금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젊은 창작자 지원금이 있지만, 그 젊음이 어떤 젊음인지 모르겠다는 것이 젊은 예술가들의 의견이에요. 신진 예술가 지원이라면서 그들에게 사실상 포트폴리오를 요구해요. 지원 제도에서 결과물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항상 쫓아오는 것 같고,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도 점수에 해당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젊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놀이터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책 쪽에서 그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만 만들어줘도 재미있게 놀 수 있을 텐데, 그들의 이야기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새로 생긴 서울문화재단의 최초예술지원사업\*이 반갑게 느껴졌어요. 지원을 못 받은 사람들에게 최초 지원금을 주는 정책이 많으면 이들에게 활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지원제도 이외에 사회가 예술가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잖아요. 젊은 창작자들은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원환** 젊은 창작자들은 사회에 처음 나오면 본인의 작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내가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기보다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사회에 나와서 작업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창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이걸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기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청년들이 겪고 있는 너무나 큰 벽을 실감하게 되면서 어디서부터 기회가 없어지게 된 것인지, 혹은 기성세대도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기성세대가 퇴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같은 처지에 놓인 청년 세대의 문제에 먼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작업으로 풀 수밖에 없는 응어리가 안에 쌓이거든요.

**최신** 저는 서울문화재단의 지원금을 데뷔 8년 만에 받았습니다. 그때 기뻐서 며칠을 설레는 마음으로 보냈어요. 일주



예술을 욕망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존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까지 고민하게 됩니다.

**임인자** 독립문화기획자

일찍 지나고 나니 현실적으로 제 전시를 열어줄 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지원금 500만 원 중 450만 원을 대관료로 낼 수는 없었어요.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대안공간에 지원해보았는데 작품에 대한 견해 차이로 전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서울문화재단 지원금 받은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따졌어요. 그런데 ‘누구나 받는 건데 뭘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느냐’는 반응이어서 의아했어요. 저는 너무나 받기 어려운 기금을 받은 건데, 한쪽에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사업의 하나로만 대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지원금이 창작 욕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꺾는 일이 지난 10년간 있어온 것 같아요. 사업의 성격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방법도 거기에 맞춰 조금 달라지면 좋겠어요. 10년 전의 문화정책 이야기, 서울문화재단의 지원 방식을 들었을 때나 지금이나 거의 흡사해요.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새로운 예술을 담아내기에 적합한지 회의가 듭니다.

**송혜진** 저는 지원 심사에 참여해보고 지원을 받는 대상이 되어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는 지원 유형이 결정되면 지원자들은 거기에 맞춰 자기를 변형시켜가는 경향이 있어요. 기금을 받아야 활동할 수 있으니까, 지원 금액과 정책의 방향에 따라 별로 원하지 않았지만 응용을 해서 작품 활동을 해요. 이것을 몇 년간 하다 보면 예술가 개인이나 단체의 정체성이 모호해져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 ‘내가 지원금을 받지 말고 다른 일을 해야 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동안의 지원 방식은 주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던져지는 것이 문제예요. 수요자가 원하는 지원 방향과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융통성 있게 돈을 쓸 수 있는 방법

**\* 최초예술지원사업**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진 예술가와 소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응원하기 위한 서울문화재단의 비기너스(Beginner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데뷔 및 초기 단계의 창작 활동을 희망하는 만 35세 미만의 신진 예술가 중에서 문화예술 관련 공공지원금 지원 수혜 경력이 없는 예술가를 우선으로 창작지원금 20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 제도.



정책 쪽에서 젊은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놀이터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재미있게 놀 수 있을 텐데, 그들의 이야기가 반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윤환 연출가, 앤드씨어터 대표



지원금 형태 말고 미술하는 사람들에게 지켜져야 할 것은 작가보수예요. 작가보수는 보편 복지와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박은선 리스튜디오 대표

이 마련되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예술가의 사회적 가치를 논하는 것과 예술 자체의 사회적 가치를 논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회적 가치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당장의 결과물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무조건 믿고 예술 창작 채널을 유지해가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들어 다소 소외되고 있는 예술 자체로서의 창작에 대한 지원이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상 예술 창작의 중요성 때문에 정책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창작 분야에 대한 지원은 축소되는 상황인 해요.**

전윤환 예술창작지원이 어떻게 보면 예술가의 등급을 매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이들의 활동이 어땠는지가 3월에 평가되는 것이죠. 내년엔 받으려면 올해 또 열심히 달

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원금이 줄어든다면 그 경쟁은 더욱 심해지겠죠. 특히 젊은 예술가의 경우 경향을 읽어내고 거기에 맞춰서 작업할 수밖에 없는 태도를 취할 것 같아요.

송혜진 그게 위험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의 사업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지만,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써야 한다는 것에 예술단체들이 훈련돼 있는 것 같아요. 지원을 받지 않고 작업했는데 훌륭하다고 인정해서 상을 주는 개념으로 균형이 맞춰지면,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내대로 무언가를 해보는 것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요. 지원제도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슬프지만 현실이에요. 빠져나오기도 힘들고요.

최선 예술가가 어떤 사업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데 그치는 것 같아요. 말은 지원금이라고 해왔지만 결국 떠나 살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특히 미술가들은 돈을 받지 않으면 작품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미술은 미술가가 망쳤다는 말도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염두에 두면서 작업하고 있는데요. 예술가라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하고, 봐주지 않아도 혼자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서 무언가를 해왔거든요.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많은 예술가가 사회의 허점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어째서 이렇게 되었나를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지원금을 받기 위해 자기를 적용시키는 부작용도 있었고요.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이 굳고 감각이 굳는 일이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라면 어떻게 예술 시장을 확대할 것이며,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는 예술을 할 것이며, 미래를 열어가는 예술을 할까요. 지원금을 축소하더라도 방식을 바꾸면 창작자들의 창작에 대한 욕구를 바꿔나갈 수 있을 겁니다.

박은선 예술가들이 돈을 받지 않으면 미술을 안 한다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입니다. 저는 2010년에 서울문화재단의 지원금을 받은 후로 신청을 안 했어요. 그 행위 자체가 너무 소모적이라서요. 저 같은 예술가도 많습시다. 요즘 예술가들은 시야가 좁고 자질이 부족하다고 해버리면 논지가 좁아 집니다.

기본적으로 미술, 음악, 무용을 하나로 묶어서 예술정책을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통점이 하나도 없거든요. 성향도 다 다르고요. 미술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스스로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해서 2012년 '미술생산자 모임(artworkersgathering.wix.com/arts)'을 만들었어요.

지원금의 형태 말고 기본적으로 미술하는 사람들에게 지켜져야 할 것은 작가보수(아티스트피: Artists' fees)예요. 캐나다의 카팍(CARFAC: Canadian Artists' Representation/Le Front des Artistes Canadiens)은 이미 1968년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제도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캐나다에서는 국·공립 공간 위주로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 작가의 경력을 따져서 반드시 보수를 지급하라는 것이 2014년 대법원 판결로 의무화되었어요. 모든 미술관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국·공립 미술관과 지원금을 받은 기관에서 전시를 할 때 작가에게 어느 정도 보수를 지급하라는 얘기입니다. 작가보수는 보편복지와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 사업비가 지원될 때 재료비로 나오잖아요. 예술지원사업의 성격이, 다른 서울시 사업의 성격과 동일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아티스트가 거기에 없거든요. 지원금을 증액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업비의 일정 부분이 작가보수로 인정되어야만 예술지원사업의 성격에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없으니까 돈을 어렵게 쓰고, 몇 개월 동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원금을 쪼개서 살기도 해요.

**김성규** 저는 예술가를 창작자로 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가보수 문제는 중요하지만 앞으로 개선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예요. 공공에서 지원금이 나갈 때, 예를 들어 용역의 성격으로 나가는 것에는 작가보수가 책정되어 있어요. 지금 한국의 창작 지원이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은 민간경상보조예요. 단체들이 하는 사업을 정부가 일부 도와주는 거예요. 용역은 아예 창작 지원에 빠져 있어요.

결국 정부에서 쓰는 돈과 예술 지원은 증가하는데, 창작자들은 점점 더 힘들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생각해보면 상대적인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10년, 20년, 30년 전 예술 창작자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지금이 나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는 훨씬 더 커졌는데, 예술가들은 아주 더디게 성장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는 것이고요.

**작가보수는 공연 분야의 경우 공연료와 연관되어 있어서, 미술에만 한정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안애순** 국립현대미술관에는 매년 10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있고, 거기에 맞춰 아티스트들이 왔다갔다 하는데요. 사업비로 1억 원이 있으면 아티스트에게 들어가는 돈이 70~80%예요. 그 외에 다른 스태프, 보조 인력에 들어가는 하지만

결국 공연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은 예술가예요.

항상 예술가들이 먼저인지 제도가 먼저인지 얘기하잖아요. 현장에서 예술가의 이야기에 의해 제도가 만들어졌는지, 제도와 정책이 만들어져서 예술가를 이끄는지 하는 부분이요. 현장 예술가들의 소리를 들으려면 정말 예술가들과 함께해야 하고, 각 장르에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해요. 앞서가는 개념과 제도를 만들었다면 제도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해서 예술가들을 이해시키고 따라가게 하고요.

**김성규** 1972년에 문예진흥기금이 처음 만들어진 것도 일단 프로젝트 기반으로 지원을 해준 것이 계기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거예요. 우리나라에 예술 공급이 안 돼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돈을 줄 테니 빨리 만들라고 보조해준 것이 45년 동안 이어진 것이거든요. 틀이 바뀌어야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정립하는 것과 어떻게 알리는 일을 할지도 예술지원정책에서 다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대표이사



지원 방식의 일방성이 문제예요. 수요자가 원하는 지원 방향과 유형을 수용해 융통성 있게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면 좋겠어요.

**송혜진** 숙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 교수

하는데 더 고착화되는 거예요. 이 구조를 어떻게 전환할지 생각해봐야 해요.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봐요.

**이규석** 작가보수 문제에 대해 저는 ‘예술 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 체계에 대한 고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술이라고 통칭할 때는 대부분 물질화된 형태의 예술작품을 지칭하는데요. 예술작품은 기존의 지원제도나 예술 시장 체제 안에서 교환가치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술 활동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은 교환가치가 아니라 사용가치의 문제거든요. 작가보수는 예술 활동에 대한 사용가치를 사회적으로 보상하는 게 정당하다는 인식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 시장 체제에서 예술작품에 대한 교환가치가 저평가되는 부분을 지원제도가 어떻게 보완해 줄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예술가의 소리를 들으려면 정말 예술가들과 함께해야 하고, 각 장르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해요.

**안애순** 국립현대미술관 예술감독



어쨌서 이렇게 되었나를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지원금을 축소하더라도 방식을 바꾸면 창작자들의 창작에 대한 욕구를 바꿔나갈 수 있을 겁니다.

**최선** 설치미술가

**작가보수를 중심으로 많은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이제 근본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규** 먼저 창작자를 왜 공공에서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술의 가치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것이 곧 창작자에 대한 공공지원의 당위성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창작자를 지원해주려면 사실은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명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 정립되어야 하고 이것이 일반 시민에게 공유되어야 당위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지원해야 하는지 얘기해보라고 하면 사실 저 자신부터 설득이 잘 안 돼요.

**박은선** 당위성은 지금까지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회적으로 공유돼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사회의 불특정 다수가 예술의 효과나 혜택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는 식으로 회자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애순** 미국에서 현대무용의 1세대 거장들이 나오고 이들이 추축이 된 시절이 있어요. 다음에는 유럽으로 옮겨가는 상황이 왔어요. 예술지원정책과 관련이 있는데, 사실 현대무용가들은 환경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곳에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시장, 관객, 예술은 그냥 그 시대에 멈춰버렸거든요. 아예 예술가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정책 지원과 예술가의 행위와 그 시대의 창작은 예술가들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많아요. 지금 왜 예술가들을 지원해야 하냐고 얘기할 때, 지원정책이 없으면 결국 자기 장르에서의 표현이겠지만 무엇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지원의 이름으로 예술가에게 기회를 주는 것, 예술가가 모일 수 있는 자리, 그게 그냥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송혜진** 문예진흥기금이 고갈되고 있고, 공공 지원에 대한 시각이 회의적인 상황에서 왜 공공 지원을 해야 하는지 질문하고 다양한 의견을 끌어내는 것은 필요합니다. 질문에 각자 답을 하면 그것이 하나의 담론으로 형성될 것입니다.

**전운환** 저는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 문제를 꼭 다루었으면 합니다. 국가 지원금을 갖고 있는 기관, 지원금을 주는 곳에서는 거의 검열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시스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시할 수 있는지, 제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논의되면 좋겠어요. 검열이 무서운 게, 창작자들이 내면을 감시하게 만들거든요. ‘내년에도 지원금을 받고 싶은데, 국·공립 공연장에서 공연하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는 배제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해요. 그들의 입맛과 정책에 맞는 이야기를 했을 때, 지원금의 수혜자가 되는 것으로 좁혀지거든요. 창작자로서 가장 큰 가치를 거세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규석** 논의 주제 중 하나를 ‘예술지원제도의 재구성’으로 해서 현장 예술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단 지원사업도 구조적인 문제와 제한적인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지원금의 운영 방식에 대한 결정권을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요. 그 부분을 돌파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최초예술지원사업은 올해 새롭게 시도해보는 사업이거든요. 지원사업 심사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개입하게 되는 것이 전문가주의와 엘리트주의입니다. ‘최초예술지원’은 그런 맥락에서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예술가에게만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일정 기간 3번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어요. 기존 지원제도의 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혜진** 저는 현재 민간 예술단체(숙명가야금연주단)를 이끌고 있는 입장인데요. 문제는 지원금 없이 공연하는 것은 고사하고, 생활을 해야 하는데 전통 분야라 그런지 시장이 더 없는 거예요. 공공 지원을 받아서 하고 싶은 작품을 완성하면, 다른 곳에서 연속으로 공연해서 스스로 작품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초청으로 이어지는 생존의 사이클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인데요. 그게 잘 안 만들어져요. 지원에 의해 탄생된 좋은 작품들이 유통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노력에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해요. 지원사업을 보완해서 자생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줄 수는 없는 걸까요. 신진 예술가는 3년 정도 지원받으면 겨우 걸음을 뚝 수 있는 단계가 되는데, 그들이 갈 데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자생성과 시장에 관한 것이 우리가 다뤄야 할 주제 중 하나가 되었으면 해요.

**안애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유럽에서는 작품(repertory)이 하나 만들어지면 3년에서 5년 동안 150회 이상 공연을 해요. 이미 시장이 있고 몇 십 건의 유통을 확보한 상황에서 작품을 시작할 정도입니다. 그 구성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예술가들만으로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예술가가 유통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정말 문제인데, 작품 만드는 사람이 시장 개념을 무시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김성규**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리는 일을 어떻게 할지도 예술지원정책에서 다뤄야 할 문제



‘최초예술지원’은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예술가에게만 신청 자격이 주어져요. 기존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규석**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본부장

인 것 같습니다. 예술인 입장에서만 보면 이해가 되는데 사회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는 예술의 공적 지원에 대한 답을 못 내는 거예요. 서울시 공무원, 기획재정부 공무원에게는 설득이 먹히지 않아요. 그분들에게 얘기할 근거를 텍스트로 정립해야 해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당위성도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1970년대 예술 지원에 대한 당위성과 지금의 예술 지원에 대한 당위성은 달라야 하는데, 자꾸 옛날 얘기만 해요. 당대에 왜 공적 재원을 예술 창작에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재생산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적 지원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협의를 해서 예술이 가치가 있다는 전제를 하고, 왜 공공에서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에서의 인정이나 예술의 가치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차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심화해서 하고, 자생성과 시장 부분은 ‘예술지원제도의 재구성’에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나누면서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이외에도 논의해야 할 내용이 많지만 ‘공공지원의 필요성’, ‘겸열문제’, ‘작가보수제도’, ‘예술지원제도의 재구성’ 4개로 주제를 정하겠습니다.**

**예술을 정의하고자 하고 욕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살아가야 하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존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문화정책과 예술정책을 끌어나가는 것은 예술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늘 제안해왔다고 생각해요. 그 제안의 영향력이 좀 더 발휘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올해 동안 있을 포럼에서 잘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정리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사진  
최영진

팝업 아트 엔지니어 김수현

# 재료의 힘과 각도만으로 입체를 구축하는 마술

기본 좋은 날 받은 축하카드에서, 무심코 펼쳐 든 그림책에서, 짠! 하고 등장한 작은 입체 세계를 만나본 일이 있을 것이다. 이른바 ‘팝업(POP-UP) 아트’는 종이, 나무 등 2차원 평면 재료를 정교하게 오리고 세우고 설계해 3차원 입체를 구축하는 장르다. ‘팝업북’으로 익숙한 이 표현 방식은 국내에서도 점점 활용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 고민 많은 인생에 짠(POP-UP)! 등장한 팝업 아트

팝업 아트(POP-UP ART)는 평면의 이미지를 입체화하고 나아가 대상의 움직임이나 특징까지 구현할 수 있는 작업이다. 수치와 각도만을 이용해 마치 건축을 하듯 구조물을 지어나가는 과정의 특성 때문에 작업자들을 ‘팝업 엔지니어’라고 칭할 정도로 예술보다는 설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바로 그 점이 팝업의 매력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처음 팝업 형태의 페이퍼 아트를 만난 것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한창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였다.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심지어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까지 많은 생각이 오가던 때다. 돌이켜 보면 엉뚱한 고민이었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었다. 팝업 아트를 접한 후 그 원리를 하나하나 깨우칠 때마다 오는 성취감과 자신감에 폭 빠지면서 드디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롯이 팝업 아트 작업에 몰입하게 됐다.

간절함 때문인지 운이 좋았는지, 나는 대체로 노력한 만큼은 성과가 드러나는 편이었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시즌에 친구들과 ‘첫 번째 프로젝트: 다가가기’를 계획하고는 팝업 원리를 간단하게 풀어낸 빨간 리본머리띠 ‘빨강머리띠엔’을 개발해 거리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소비자 와 직접, 즉각적으로 소통한 소중한 값진 경험이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각종 페어와 전시에 참여했고, 그곳에서

브랜드와 인연을 맺어 샤넬 ‘마드모아젤’ 향수의 팝업 홍보물을 만들었다. 이 콜라베레이션 작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6년여 동안 브랜드와의 협업을 위주로 팝업 아트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 평면 재료의 힘과 각도만으로 구축하는 입체의 세계

팝업 작업에는 현란한 기술이랄 게 없다. 오직 종이와 펼쳐지는 힘에 기대어 성이 세워지고, 말이 달리고, 사람이 활을 쏜다. 다른 기계장치 없이 종이와 접히는 힘을 빌려 설계하고 구조화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수치와 각도의 힘만 이해할 수 있다면, 표현의 한계란 없는 분야가 팝업 아트다. 누구의 손에 쥐여지느냐에 따라라도 구현되는 것은 천차만별이다. 어떤 아티스트는 움직임의 구현에 힘을 쏟고, 어떤 아티스트는 도형적인 아름다움에, 또 다른 아티스트는 스토리 표현에 힘을 실는다. 즉 창작자의 취향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개발이 가능하다.

재료의 폭과 응용되는 분야도 넓어지고 있다. 입체화한다는 개념으로 종이를 사용하기도 하고, 보다 단단한 아크릴, 금속, 나무를 이용하기도 한다. 작게는 지류 홍보물 제작부터 요즘에는 광고 촬영용 아트 제작에 활용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대형 무대를 꾸민다거나 디스플레이에 활용하는 등 상품, 패키지, 광고, 인테리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기도 한다.



국내 디자인 시장에서 일하며 체험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여러 분야를 아우르며 변신이 가능한 ‘팔방미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분야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협업이 활발해짐을 느낀다. 덕분에 항상 새로운 작업을 대하며 긴장하고, 한계를 넘어 구현되는 가능성을 확인하며 피로함을 잊고 다시 도전을 기대하게 된다.

국내 디자인 시장의 빠른 흐름 덕이랄까, 떠밀리다시피 하면서도 그간 많은 다양한 작업을 개발해왔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kt wiz’ 캐릭터 패키지, 코스메틱 브랜드 에워드 인테리어 작업과 설화수 브랜드북, 르베이지 패션쇼 무대 디자인 정도다. 모두 3개월 이상의 시간을 들이면서 애착이 많이 생긴 작업물이고, 이 중 ‘kt wiz’ 캐릭터 패키지는 독일의 이프 디자인 어워드(IF Design Award)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dot Design Award)에서 수상(2014)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미개척 장르’

팝업 아트는 해외에서는 일본의 오리가미처럼 꽤 오래전부터 개발된 분야이고,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작업하는 아티스트도 눈에 띄는 데 비해, 국내에는 아직 팝업의 저변이 넓지 않기 때문인지 이렇다 할 전문 디자이너나 아티스트가 없다. 내가 처음 활동한 시기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다. 국내에는 대량생산 및 개발을 촉진할 만한 소비 시장이나 제작

### 팝업 아트 엔지니어가 되려면?



- ① 팝업 구조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이 기본.
- ② 멀티플레이어의 자질이 필요하다. 작업의 특성상 진행에 분업이 어렵기 때문에 기획에서부터 그래픽 디자인, 구조 개발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능력이 요구된다.
- ③ 그림을 잘 그린다면 금상첨화!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은 탓이다. 다행히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큰 비용을 들이면서도 새로운 모험을 하고자 하는 브랜드들을 중심으로 서서히 대중화하고 있다. 매력적인 분야이면서 아직 미개척 영역에 가까운 분야이기에 팝업 아트의 미래는 아주 낙관적이다. 앞으로 꾸러갈 길이 무궁무진하다. 더욱이 수작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특별한 콘셉트의 팝업 아트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생기고 있고, 트렌드를 이끄는 브랜드에서도 특별함을 찾아 투자를 아끼지 않는 지금의 변화가 있어 반갑다.

앞으로의 바람이라면, ‘made in Korea’가 찍힌 제대로 된 팝업북을 만들어보는 것이다. 제작비용과 시간 면에서 당장 여력은 없지만, 5년 안에 깊이 있는 팝업북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더불어 작품 개발과 팝업아티스트 양성에도 관심을 두고 꾸준히 노력하고자 한다. 딱 노력한 만큼의 값진 결실이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매력적인 팝업 아트를 알아보고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 <sup>1)</sup>

글·사진  
김수현  
국내 최초의 팝업 아트 전문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팝업’의 원리를 팝업북 외에 상품, 광고, 인테리어,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에 적용해 팝업 아트 활용 영역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수현팝업디자인 연구소 www.popupaper.com)



# 5월, 비눗방울 꽃처럼 흩날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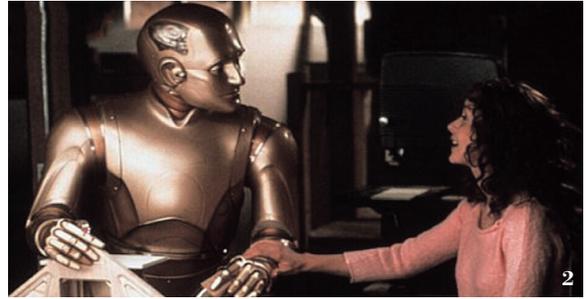
〈거리예술 시즌제〉 '경상도 비눗방울'



자동화 시대, 인간과 인공지능의 바람직한 공존법

# 인간의 감성과 AI의 분석이 만날 때, 노동의 종말 이겨낼 것

지난 3월, 바둑 최강자인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알파고’의 대국은 대중으로 하여금 인공지능과의 공존이 현실로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한 사건이었다. 비슷한 시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406개 직업군의 자동화 대체 확률의 순위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 현실을 가능하게 했는데, 이 중 자동화 대체 가능성이 적은 직업으로 화가, 작곡가, 무용가 등 예술인이 상당수 포함된 것은 눈길을 끌었다. 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 영역은 기술과 어떻게 공존하게 될까.



## 기술혁신에 의한 인간의 일자리 감소, ‘예견된’ 실업

“첨단 기술과 정보화 사회, 기술혁신은 인간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제레미 리프킨이 1995년 쓴 <노동의 종말>의 한 대목이다. 기술적 실업에 대한 그의 통찰은 20년이 지난 지금에야, 새삼스러운 공포로 다가온다. 인간계 바둑 최강자인 이세돌 9단이 구글의 자회사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소프트웨어 ‘알파고(AlphaGo)’와 벌인 사투를 목격한 인간들은, 인공지능·로봇·자율주행차 등 어느새 우리 앞에 닥친 신기술에 본질적인 공포를 느끼는 듯하다.

비관적 전망도 거세다. 지난 1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은 ‘직업의 미래’ 보고서를 채택하고, 2020년까지 불과 5년 동안 인공지능·로봇·생명과학 등의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21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72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계류가 대체할 비약적인 생산력 증대에 따라 510만 명의 ‘실업자’가 양산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다. 다보스 포럼은 이 같은 산업·경제 환경의 변화를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했다.

실제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에 대한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 끊이지 않고 제기돼온 노동경제학의 화두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인공지능과 일자리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경제학자 마이클 오스본과 칼 프레이 교수의 연구 결과가 대표적이다. 이

들은 <고용의 미래: 우리의 직업은 컴퓨터화에 얼마나 민감한가> 저작을 통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미국 등 서방세계의 직업군 702개 가운데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7%가 컴퓨터·자동화에 밀려 사라질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미국의 IT 전문 컨설팅 회사인 ‘가트너’사도 “2025년쯤이면 전체 직업의 1/3에 이르는 직업군을 로봇과 드론 등이 대체할 것이며, 재무 분석, 의료 진단, 각종 데이터 분석 등 지식 작업도 자동화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 바 있다. 이 같은 현상을 ‘기술적 실업’이라고 명명하고 예언한 경제학자도 있다. <화폐개혁론>의 저자인 경제학자 너드 케인스가 “우리는 지금 이름조차 생소한 새로운 병을 앓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자주 듣게 될 이 병의 이름은 바로 기술적 실업이다. 이 병은 인간이 노동의 새로운 용도를 찾아내는 것보다 노동을 절약하는 방법을 더 빠른 속도로 찾아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예언한 시기가 1930년이다.

## 예술적 감성과 소통 능력은 자동화로 대체할 수 없다

이 가운데 우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3월 국내 통용되는 406개 직업군의 인공지능·자동화 대체 확률을 분석·발표했다.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 대체될 확률을 직업마다 분석해 1위부터 406위까지 순위를 매긴 것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들은 정교하지 않은 작업을 단순 반복하거나,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중요치 않은 업무 특성

1, 2  
지능과 호기심을 가진  
로봇을 소재로 한 영화  
(바이센테니얼 맨).

자동화 대체 확률 높은 직업

1위	콘크리트공
2위	정육원 및 도축원
3위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조립원
4위	청원경찰
5위	조세행정사무원
6위	물품이동장비조작원
7위	경리사무원
8위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수거원
9위	세탁 관련 기계조작원
10위	택배원
11위	과수작물재배원
12위	행정 및 경영지원 관련 서비스 관리자
13위	주유원
14위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15위	건축도장공

자동화 대체 확률 낮은 직업

1위	화가 및 조각가
2위	사진작가 및 사진사
3위	작가 및 관련 전문가
4위	지휘자·작곡가 및 연주가
5위	애니메이터 및 만화가
6위	무용가 및 안무가
7위	가수 및 성악가
8위	메이크업아티스트 및 분장사
9위	공예원
10위	예능 강사
11위	패션디자이너
12위	국악 및 전통 예능인
13위	감독 및 기술감독
14위	배우 및 모델
15위	제품디자이너

을 보였다.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에는 ‘콘크리트공’ ‘정육원 및 도축원’ ‘고무제품 조립원’ ‘청원경찰’ ‘조세행정사무원’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경리사무원’ ‘환경미화원’ ‘세탁 관련 기계 조작원’ ‘택배원’ 순이었다. 뒤로도 ‘수금원’ ‘철근공’ ‘주차관리원’ 등이 30위권 안에 포진했다.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흔히 전문직으로 생각하는 지식산업 종사자들도 상당수 자동화의 영향권에 놓였다는 점이다. 보험 사고 등의 손해를 산정하는 직업인 ‘손해사정인’은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 40위에 랭크됐다.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 의사’는 55위로 분석됐고, 항공·철도·해운 등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관제사’도 79위로 비교적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과 로봇은 특정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능력에서 이미 인간을 추월한 지 오래다. 인간끼리 경쟁에서 이겨 ‘자격증’을 받는 수준의 지식산업은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는 뜻이다. 실제 IBM이 개발한 인공지능 ‘왓슨’은 뉴욕의 암진단 센터에서 폐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으며, 이미 전공의 이상의 의료진단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자동화로 대체될 수 없는 직업들의 순위를 보면, 결국 ‘인간다움’에서 해답을 찾게 된다. 대체가능성이 가장 낮은 10개 직업은 ‘화가 및 조각가’ ‘사진사’ ‘작가’ ‘지휘자 및 작곡자’ ‘만화가’ ‘무용가’ ‘가수’ ‘메이크업 아티스트’ ‘공예원’ ‘예능강사’ 순이다. 감성에 기초한 예술 관련 직업들은 인공지능과 컴퓨터

가 넘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 셈이다. 또 ‘대학교수’(21위), ‘출판물 기획자’(23위), ‘초등학교 교사’(26위), ‘임상심리사’(30위), ‘기자 및 논설위원’(38위) 등 인문·사회적 가치를 고민하거나, 높은 수준의 소통 능력이 필요한 직업들도 대체 가능성이 낮은 쪽이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법

바둑에 앞서 인공지능에 정복당한 체스는 어떻게 됐을까? 인간은 체스 종목 자체를 소멸시키는 대신, ‘프리스타일’이라는 새로운 게임 방식을 고안했다. 인간과 인공지능,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인간과 인간 등이 자유롭게 팀을 꾸려 서로 경쟁하는 게임 방식이다. 재밌는 것은 프리스타일 체스 게임에서 ‘인간+인공지능’ 팀이 가장 강력한 조합을 보인다는 점이다. 인간 특유의 ‘전략과 통찰력’이 인공지능의 ‘분석 능력’과 결합할 때 최고의 성과를 보인다는 뜻이다.

앞서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에릭 브리올프슨과 앤드루 맥아피 교수는 <제2의 기계시대>를 통해 “기계를 활용할 줄 아는 인간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인간 특유의 감성과 사회적 소통 능력, 인공지능의 정보처리 능력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켄타우로스(반인반마의 괴물)’ 모델이야말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바람직한 공존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이야기다.

글  
노현용  
한겨레 경제부  
정책금융팀 기자.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출입하며 나라살림과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다.

도표 및 그래프출처  
한국고용정보원

CGV 영화 관람료 차등제 논란

## 실질적 가격 인상, 포장 아닌 ‘설득’ 했어야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멀티플렉스 영화관 CGV의 ‘좌석 차등제’에 대해 실질적인 ‘관람료 인상’이라는 평이 우세하다. 관람 환경의 개선은 없고 ‘메뚜기족’ 등장에 보인 미흡한 대처 방식은 관객의 공분을 샀다. 영화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관람료 인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객을 위해’라고 포장하기보다 실질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로 관객을 설득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소비자 선택의 다양화인가, 극장 관람료 인상을 위한 꼼수인가. 멀티플렉스 영화관 CGV가 3월 3일부터 좌석·시간대별 가격 차등제를 실시한 이후 두 달 가까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CGV 측은 “고객 스스로 관람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폭을 넓혔다”며 ‘가격 다양화’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관객은 사실상 ‘가격 인상’으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 한 달이 지나자 우려했던 ‘메뚜기족’ 문제도 수면으로 떠올랐다. 저렴한 좌석으로 예매한 뒤 비싼 좌석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부 관객 때문에 제값을 치른 관객은 분통이 터진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

### ‘조삼모사’격 티켓값 인상, 관객 우롱

가격 차등제 시행을 일주일여 앞두고 CGV는 상영관 좌석을 ‘이코노미존’ ‘스탠더드존’ ‘프라임존’ 세 구역으로 나뉘, 스탠더드존을 기준으로 이코노미존은 1000원 낮게, 프라임존은 1000원 높게 받는 요금 체계를 발표했다. 시간대도 종전 4단계였던 주중 시간대를 ‘모닝’ ‘브런치’ ‘데이라이트’ ‘프라임’ ‘문라이트’ ‘나이트’ 등 6단계로 세분화해 가격에 차등을 뒀다.

문제는 가격이 오른 프라임존의 비율이 35~40%를 차지하는 데 반해 가격이 내려간 이코노미존은 20%로 낮다는 점이다. 가격 인상 효과로 귀결된다. 일반적인 관객들이 뒷좌석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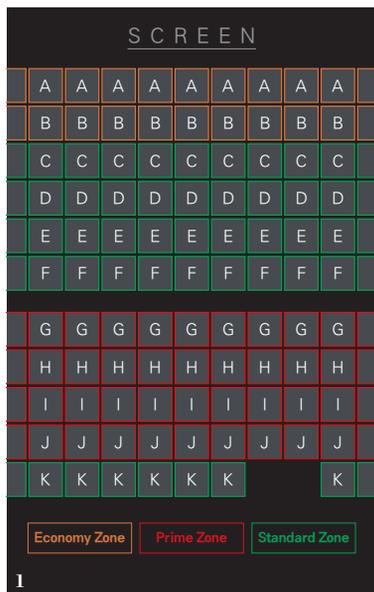
하는 프라임존을 선호한다는 점도 가격 인상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시행 후 일주일간 서울시내 CGV 상영관 5곳의 좌석별 예약 상황을 분석한 결과 프라임석은 1만 500명인 데 비해 이코노미석은 87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매율 역시 이코노미석은 평일 1%, 주말 20%이고, 프라임석은 평일 20%, 주말 60%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극장은 일주일간 약 96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올렸고 좌석당 평균 430원의 인상 효과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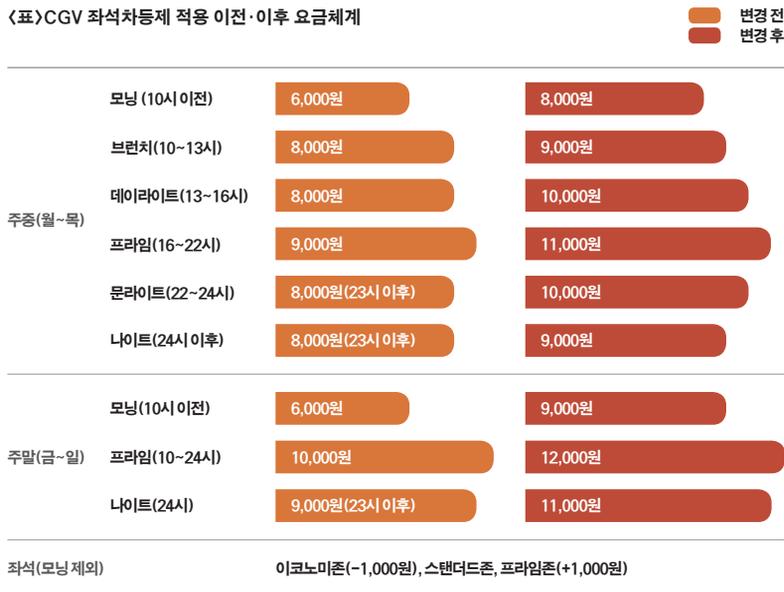
### 메뚜기족 양산… ‘관객 혜택’은 어디에

무엇보다 가격 차등제에서 극장 측이 주장하는 ‘관객 혜택’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가격 인하 효과를 보기 위해 선 브런치(10~13시)나 나이트(자정 이후) 같은 시간대를 선택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CGV 조성진 홍보팀장은 “평일 오전 브런치 시간대에 주부들이 선호하는 영화를 편성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가적인 마케팅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

가격 인상에 걸맞은 서비스 향상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대표적으로 스크린 독과점으로 인한 관객의 영화 선택권 제약, 10분 가까이 억지로 봐야 하는 극장 광고는 해결되지 않은 숙제다.



<표>CGV 좌석차등제 적용 이전·이후 요금체계



허남웅 영화평론가는 “극장의 주 수입원은 티켓 값이 아닌 비싼 팝콘이나 광고 수익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관객을 배려하지 않고 극장이 이득을 취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 없이 입장료만 올리려는 것은 본질에 어긋난다”며 “가격 차등제는 가격 인상을 위한 정당성 확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불만 사항이 접수된 경우는 거의 없다”던 ‘메뚜기족’ 문제도 가시화됐다. 최근 이코노미존의 좌석을 사고 프라임존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던 한 관객이 차액을 지불한 사연이 SNS에 올라와 논란의 불을 지폈다. 꼼수를 쓴 ‘메뚜기족’에 대한 비판부터 추가 결제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은 극장 측의 잘못과 좌석 이동 제재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까지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애초에 관람료 인상을 하지, 왜 관객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 차라리 속 시원히 ‘인상’했더라면

극장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관객 2억 명 시대가 3년째 정체된 상황에서 극장 임차료, 인건비 등 관람료 인상 요인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에 비하면 이번 가격 차등화로 인한 인상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로 꼽히는 CGV도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객석 점유율이 하루 평균 30%, 평일에는 6%가 채 안 되는 상황에서 가격 차등제는 마케

팅 강화의 전초 작업인 셈이다. CGV 측은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의 심리적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민 끝에 가격 차등제를 내놓게 됐다”며 “가격 인상 효과가 있는 것은 맞지만 기껏해야 한 좌석당 200원 정도다. 고객 마케팅 세분화를 위한 기초 단계로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영화 관람료 인상이 정당하다는 의견도 많다. 예술영화관 아트나인의 정상진 대표는 “영화관람료가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률에 한참 못 미친다”며 “가격 인상은 극장 가격 체계의 정상화를 위해선 칭찬받을 일이다. 다만 ‘가격 다양화’로 포장한 것이 소비자의 공분을 샀다”고 진단했다. 또 “CGV가 리딩 기업으로서 영화산업을 대표해 관객에게 관람료 인상을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접근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영화산업 전반에서도 관람료 인상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 영화의 경우 ‘부울’에 따라 투자자·제작사·배급사가 통상적으로 수익의 55%를 가져가는데 이보다 줄어드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소형 배급사에 따르면 극장 스크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부울을 10%까지 내리는 ‘딜’을 하기도 한다고. 최광희 영화평론가는 “CGV가 경영적 선택을 한 것일 뿐 가격 차등제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영화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제작사에 돌아가는 수익이 많아져 산업적으로 순기능이 더 많다”고 평가했다.

1 CGV 좌석도 (소형관 기준). 전체 좌석(117석) 중 가격이 오른 프라임존 좌석(44석)의 비율이 37.6%를 차지한다 (좌석도는 CGV 각 지점 및 상영관마다 상이함. 출처: CGV).



거리를 수놓은 한복 입기 열풍

## 한복, 청춘을 만나 꽃피다

최근 10~20대를 중심으로 불고 있는 '한복 나들이' 열풍이 화제다. 한복을 입고 인사동이나 삼청동 또는 가까운 궁을 산책하며 길거리 음식을 사 먹고 사진을 찍는 '놀이'가 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것. 낡고 불편하다는 이미지가 강했던 한복 입기가 일상의 놀이로 성큼 다가왔다는 소식은 고무적이다.

서울 도심의 거리가 화사해졌다. 한복을 입고 종로구 인사동, 삼청동, 북촌 등지를 누비는 젊은이들 덕분이다. 작년부터 SNS에서 불기 시작한 한복 입기 열풍이 봄을 맞아 절정에 이르렀다. 10~20대를 중심으로 인근 한복 일일 대여점에서 한복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놀이가 유행하고 있다.

인스타그램(instagram)의 해시태그 검색 결과 '#한복'은 384,935개, '#한복스타그램'은 39,395개, '#한복체험'은 19,096개에 이른다(2016년 4월 기준). 아직까지는 한복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이라기보다는 '나도 한번 입어봐야지' 하는 심리가 더 강해 보인다. 색감이 고와서 사진이 잘 나오고, 입으면 단아해 보이는 한복의 매력도 한몫하고 있다.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 4개 궁과 종묘 무료 입장은 덤이다.

일회성 소비, SNS 과시용이라 할지라도 그 대상이 한복이라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제까지 한복은 명절은 고사하고 평생에 한 번 입을까 말까 한 옷이었다. 불편하고 비싸다는 고정관념도 강했다. 예복으로 맞춰 입고는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두면서도 아까워서 버리지는 못하는 애물단지였다. 이마저 1998년 한복 대여점이 생기면서 점점 더 한복을 구입하지 않게 되었다. 지금의 유행은 한복 대여도 아닌 외국인 관광객들이 하던 '일일 한복 체험'에 가깝다. 대여비는 시간과 한복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1만~2만 원 선이다.

젊은 층이 스스로 한복을 입기 시작하면서, 한복은 세대와



국경을 넘나드는 소통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은 즉석에서 기념 촬영을 제안하고, 지나가던 어르신들은 한복 입은 젊은이들을 신기하게 보면서 대견해한다. '인생 낭비'라는 비판을 받던 SNS가 한복 유행의 기폭제 역할을 하면서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시민으로부터 시작된 열풍

사실 한복 바람의 진원지는 전주 한옥마을이다. 서울에서 유행하기 전 이미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한복을 빌려 입고 다니며 사진을 찍는 것이 필수 관광 코스로 자리 잡았다. 전주 출신의 박세상(사회적 기업 불가능공장) 대표가 2012년 '한복데이'라는 축제를 기획하면서 한옥마을에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혔다. 그가 2015년 1월 시간당 한복을 빌려주는 대여점을 최초로 연 이후 1년이 채 안 되어 14개(2015년 전주문화재단 조사 결과)의 대여점이 생겼다.

이보다 앞선 2011년 창단한 비영리 민간단체 '한복놀이단'은 10~20대를 주축으로 한복 입기 캠페인을 벌여왔다. 2011년 8월 26일 홍대 앞에서 개최한 대규모의 플래시몹(flashmob)이 그 시작이었다. 한복여행가로 알려진 권미루 단장을 중심으로 대학 동아리 등과 연합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복 입기는 어찌 보면 몇 명의 시민과 민간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시작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공공 영역에서의 노력도 있었다. 199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복의 생활화를 위해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한복 입는 날로 제정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현재는 2014년 6월 17일 출범한 '한복진흥센터'가 정부의 한복 관련 정책을 전담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에서도 한 대학생(나혜린)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장롱한복변신프로젝트'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어울림광장(2014년 4월)과 시민청 시민플라자(2015년 2월)에서 진행한 바 있다. 일상에서 입기 편한 생활한복과 오래된 한복을 수선해 전시하고, 직접 입어보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렇다면 한복을 입는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 많아졌을까? 20년 전인 1996년 문화체육부의 '한복의 생산·유통·소비 실태 조사연구'(서울, 부산, 대전 거주 성인 여성 800명)를 보면 연간 한복 착용 횟수는 1~2회가 58.7%로 주로 결혼식이나 잔치집에 갈 때(66.7%)나 명절 때(55.2%)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여 년 후인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복 진흥을 위한 기초실태



조사'(전국 남녀 1,038명)에 의하면 연간 1~2회가 68.8%로 다소 높아졌으나 명절이나 혼례 등에 입는 경우가 대부분(95.8%)으로 외출용으로 입는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2016년 2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팀의 조사 결과(서울·경기지역 거주, 2030세대 남녀 300명)에서는 응답자의 15.3%만이 명절에 한복을 입는다고 했다. 조사 기준이 조금 다르지만 명절에도 한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더 많아진 셈이다.

### 한복 제대로 입고 알리자

네티즌들은 기왕이면 한복을 제대로 갖춰 입고 행동도 조심하자는 의견이다. 웃고름을 대충 매거나, 긴 머리를 풀어헤치거나, 치맛단을 치켜들고 뛰어다니는 모습은 보기에 좋지 않다고 지적한다. 일일 대여업체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손님이 많아지면서 품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주요 관광지나 SNS에 질이 낮은 한복이 무방비로 노출되면 오히려 한복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도 있다. 대여업체와 우수한 한복 제작업체를 연계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유행은 반짝하고 끝나지만 진화하기도 한다. 한복의 가치를 재발견한 청년들이 장롱 속 부모님 한복을 수선해 입고 '인중 샷'을 올리기 시작할지도 모를 일이다. 잠깐 빌려 입는 것에 만족하지 못해 한복을 구입하고, 한복에 빠진 청년들이 창업을 한다는 소식은 그래서 더욱 반갑게 들린다. 한복

글  
전민정  
각원 편집위원  
사진  
서울문화재단



## 전시장을 나온 미술, 예술이 넘치는 거리

작가에게는 세상에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시민에게는 생활 속 예술 감상의 기회를 주는 아트 캠페인 '바람난 미술'. 이번 호에서는 돌, 벽에 드러난 흔적으로부터 그것을 무생물이 아닌 '무한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이를 표현한 구본아 작가의 <물(物)02>과 캔버스에 스프레이를 분사하는 작업을 통해 당시의 몸과 마음 상태, 나아가 삶에 영향을 주는 비가시적인 요인들이 있음을 표면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신현정 작가의 <오늘의 신간>을 소개한다.



구본아

물(物)02

한지 콜라주 위에 먹, 채색

33×63cm

2014

300만 원



신현정  
오늘의 신간

캔버스에 스프레이  
41×32cm  
2015  
60만 원

---

#### '바람난 미술' 사용법

- 나는 시민입니다. 작품을 구매하고 싶습니다.
- 우리는 기업입니다. 작품을 구매 혹은 대여해서 우리 회사의 예술지수를 높이고 싶습니다.
- 나는 작가입니다. 내 작품이 시민과 만나면 좋겠습니다. 대여와 판매의 길도 찾고 있습니다.
- 바람난 미술 전체 작품을 보려면? 바람난 미술 온라인 아트 갤러리를 방문해보세요.  
[www.sfac.or.kr/artsgallery](http://www.sfac.or.kr/artsgallery)

\*문의 02-3290-7140(서울문화재단 공공예술센터)

---

지속 가능한 무용 예술 실험 공간 '서울무용센터'

## 켜켜이 쌓인 공간의 기억이 춤을 추다

2016년 4월 8일, 옛 서부도로교통사업소 자리에 있던  
홍은예술창작센터가 국내외 무용예술가들의 통합 창작 플랫폼으로  
리모델링돼 '서울무용센터'(서대문구 홍은동)로 새롭게 출발했다.  
국내 유일의 무용 전문 창작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무용 공연, 전시, 워크숍 등 봄날 풍성하게 펼쳐진 서울무용센터  
재개관 현장을 전한다.





### 다시, “SHOW”를 시작하다

공공기관이라는 무게와 무용이라는 예술이 주는 낯선 느낌 때문에 서울무용센터의 개관식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마냥 가볍지만은 않았다. 내가 가도 되는 곳인가?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하는 의문으로 서울무용센터 입구의 돌계단을 올라섰다. 처음 마주한 것은 입구에 설치된 커다란 철제 구조물이었다. 공사 현장에서 흔히 보는 비계였다. 개관이라더니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걸까? 회색 실커튼으로 한 겹 더 가려져 있는 출입구로 들어서면서 조금 안심이 되었다. 엄마 손을 잡고 온 아이부터 학생, 나이 지긋해 보이는 분들까지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무용센터가 준비한 전시와 공연은 일반 관객들도 쉽게 보고 즐길 수 있게 극장, 관객, 무용수의 경계를 허물고 있었다. 무용수가 춤추는 곳이 극장이고, 예술가가 있는 곳이 예술 공간이라는 것을 증명하듯 각 공간은 춤추는 무용수와 전시 작품들로 인해 활기에 차 있었다. 2층 방문객을 위해 준비된 다과를 먹으면서 입구를 내려다보다 알았다. 단순한 구조물인 줄 알았던 비계가 ‘SHOW’라는 글자였던 것이다. 아, 쇼!

‘무용은 움직임의 흐름일까, 아니면 움직임의 포즈, 형태의 연속일까? 몸의 형태가 계속 변화될 때 이것은 무용일까, 아니면 살아있는 조각일까?’

- 안무가 이선아의 작품 노트 중에서

2011년 5월 문을 연 흥은예술창작센터는 구 서부도로교통사업소 이전 부지를 활용해 시각예술과 무용 분야의 예술가들이 함께 활동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며 신선한 창작 바람을 일으켰다. 서울문화재단은 무용 예술을 위한 전문 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해 작년 6월 명칭을 변경하고, 무용 전용 시설로 리모델링했다.

서울무용센터는 기존의 입주예술가 레지던시 기능을 변경하고, 무용예술가들이 필요로 하는 창작 공간을 보강했다. 새로운 지원 시스템에 맞춰 무용가들의 개인 연습실을 포함해 총 6개의 특색 있는 무용연습실로 개조했다. 1개의 무용연습실은 암막 커튼과 조명 장비, 접이식 객석을 설치해 작은 규모의 쇼케이스가 가능한 공간 스튜디오 블랙(Studio Black)으로 만들고,

- 1 4월, 재개관 행사가 열린던 서울무용센터 입구. 설치된 비계는 위에서 바라보면 글자 ‘SHOW’를 이룬다.
- 2, 3 야외마당에서 진행된 한정미 댄스PRO젝트와 덕순 엠비아이의 공연 <사자입 들여다보기>.
- 4 암막 커튼과 조명 장비, 객석을 설치해 소규모의 쇼케이스가 가능하도록 리모델링한 연습실 ‘스튜디오 블랙’.
- 5 지역 커뮤니티의 무용 워크숍에 활용 가능한 무용연습실3 공간.



6



7



6  
2층 무용연습실2에는 옛 흥은예술창작센터 갤러리의 마룻바닥을 조립해 '기억과 흔적'의 의미를 담은 이원호 작가의 작품 <두 개의 상자, 두 개의 공간>이 설치돼 있다.

7  
1층 스튜디오 블랙에서 진행된 안무가 이선아의 공연 <Trollitude>.

동영상을 활용한 무용 공연 및 전시가 가능한 스튜디오 화이트(Studio White)도 함께 만들었다. 2층에는 68평 규모로 세미나와 워크숍, 무용연습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도 마련했다. 새로 단장한 서울무용센터는 무용예술가를 위한 시설 외에도 별도의 지역 커뮤니티 룸을 무료로 운영한다. 이곳은 재봉틀 동아리, 독서 토론 등 지역 주민의 소통 공간으로 개방된다.

**시공간의 기억과 흔적 그리고 변화를 모색하는 <UP BEAT> 전**  
개관 전시 <UP BEAT>는 2011년 흥은예술창작센터 입주 작가 이원호가 기획을 맡았다. 이번 전시에 소개된 작품 대부분은 서울무용센터(구 흥은예술창작센터)의 시각예술 분야 레지던시 작가들이 작업한 것이다. 고블린파티와 함께 만든 김민정의 댄스 필름 <다이몬 에로스>, 박은영의 댄스필름 <짐노페디스>, 주정민 무용가와 박혜수의 협업 <꿈의 표류> 등 당시 입주 무용가들과 호흡을 맞춰 이루어낸 결과물들을 재개관에 맞춰 새롭게 구성했다. 움직임과 연계한 각각의 전시가 사진, 영상, 소리, 설치미술 등 다양한 표현 형식으로 무용 예술의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이원호 작가의 <두 개의 상자, 두 개의 공간>(2011)은 '기억과 흔적에 대한 기록'이라는 전시 주제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 작품은 흥은예술창작센터 갤러리에서 오래된 마룻바닥을 조립

한 것으로 최초 전시 후 전시장을 떠나 수많은 공간의 기억을 담고 원래의 장소로 다시 돌아왔다.

한편 이날 오프닝 행사에서는 국내의 무용가들이 참여한 춤 5편이 공개됐다. 이선아, 고블린파티, 한정미 댄스프로젝트 점·선/면& 딕슨 엠비아이(Dickson Mbi)의 무용 공연이 리모 델링된 각 공간과 야외마당에서 이어졌다.

특히 고블린파티의 댄스는 개막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다. <고블린파티의 고블린파티>가 2층 로비에서 시작되자 안무가들(임진호, 지경민, 이경구)은 그들의 주요 레퍼토리를 활용, 건물 곳곳을 완벽한 무대로 만들었다. 초대받은 관객은 이들을 따라 로비의 임시 객석에서 테라스 무대를 지켜보거나, 야외 정원에서 창문을 통해 연습실 안의 무용수를 엿보며 색다른 감상을 경험했다. 예술을 수행하고 즐기는 데에 정해진 법이 따로 없었다.

해 질 무렵 야외마당에는 사자탈이 등장했다. 뒤통거리는 걸음과 몸짓으로 신명 나는 탈춤이 한판 벌어지자 서울무용센터를 찾은 꼬마 손님들의 눈망울이 반짝였다. 한정미 댄스프로젝트와 스트리트 댄서 출신 딕슨 엠비아이의 <헤드인 라이언스 마우스>가 시작된 것이다. 딕슨 엠비아이의 유연한 춤과 한정미 댄스프로젝트의 전통이 깊게 뱀 무용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딕슨 엠비아이는 2016년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된 첫 번째



8

해외 안무가. 이처럼 장르와 나라, 공간을 초월한 다양한 시도가 서울무용센터가 만들어갈 미래의 예술일 것이다.

**무용 전문 창작 플랫폼: 한 걸음 더 가까이, 한 발짝 더 멀리**

새로 시작하는 무용 전문 창작 플랫폼은 예술가 및 작품 창작 분야와 여러 지원 사업을 통합 운영한다. 무용예술가에게 제공하는 혜택도 경력 단계별로 세분화했다. 10년 미만의 젊은 무용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유망예술지원사업 닷(DOT)'은 지원금, 공간, 기획 및 홍보 등 창작 활동 일체를 후원한다. 그 외에도 작품 지원과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다년간 지원 등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서울무용센터의 국제레지던시 사업도 확대된다. 현재 6개로 늘어난 국제호스텔에는 2016년에 선정된 해외예술가 15팀이 입주할 예정이다. 앞으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안무가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국내 예술가와 함께 쇼케이스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교류하면서 한국 무대에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된다. 서울무용센터는 앞으로 미국, 독일 및 일본 해외 기관과 아티스트를 교환한다. 지난 11월과 3월 두 차례의 공모를 통해 정해진 교환 예술가들이 미국 무브먼트 리서치와 독일 K3 탄츠플란 함부르크에서 꿈을 펼치게 된다. 올해 하반기에도 한 번 교토아트센터에서 기회가 열린다.

한편 서울무용센터는 다양한 강좌 등을 열어 무용 관련 예술가들의 창작 의욕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기존의 시민 프로그램 <ABCD(Any Body Can Dance)>도 더욱 새로워졌다. 시민 무용 워크숍이 '누구나 춤 수 있는 춤'이라는 슬로건 아래 매년 4월과 9월 두 차례 운영된다. 올해 첫 번째로 4월 16일(토)부터 부부가 함께하는 발레 프로그램 <부부 파드되>가 시작되었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날 행사에서 서울문화재단 조선희 대표이사는 "서울무용센터는 작품 지원 등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연습, 쇼케이스가 가능한 공간, 기획형 프로젝트 지원과 국제교류 등까지 간접 지원이 함께 어우러진 창작공간"이라며 "향후 더 많은 무용가와 협력하고 유망한 무용가를 육성해 관객과의 거리를 좁히는 무용전문 종합센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무용센터의 최재훈 매니저는 "서울무용센터에는 이렇다 할 공연장은 없지만, 무용예술가가 춤추는 곳이 바로 극장이며 무대라고 생각한다." 며 무용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위해 어떤 공간이든 개방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무용가와 시민의 예술 바람을 지원하는 서울무용센터의 멋진 행보를 기대해본다.

8 서울무용센터 전 공간을 이용하여 진행된 공연 <고블린파티의 고블린파티> 중 1층 무용연습실3에서의 장면.

9 야외마당에서 진행된 공연 <사자입 들여다보기>.

10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선희 대표이사는 서울무용센터가 '무용과 관객의 거리를 좁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9



10

글  
변경량  
서울문화재단 시민기자

사진 제공  
변경량, 최영진  
서울문화재단

책에 아름다움을 더하는 콜라보 서점 '북티크'

## 황혼에서 새벽까지, 독서를 위한 아지트

작은 책방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가운데, 강남 지역에, 그것도 대형 서점인 교보문고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의 건물 지하에, 수상한 서점이 1년여 전 문을 열었다. 층고 높은 공간을 채우는 것은 책보다 '사람'. 북티크는 다양한 독서 모임과 특별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책과 사람을 위한 아지트로 자리 잡고 있는 공간이다.

### 강남에 20년 만에 새로 생긴 서점

작은 책방의 수가 근래 2년 사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문화 흐름이 활발한 홍대 인근을 중심으로 독립출판물 유통 서점과 편집숍 형태의 책방이 하나둘 생겨나더니 이제는 그 흐름이 성수동, 장충동, 회기동 등 서울시내 곳곳에서 발견된다. 책방에 관한 책도 심심치 않게 출간돼 조용한 인기를 끌고 있고, 그중에는 작은 책

방 지도를 첨부해 독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책도 있다. 꼼꼼하게 책방을 기록한 지도가 있다면 여전히 홍대 앞과 연남동을 포함하는 마포구 지역과 이태원 인근이 가장 밀도 높은 곳으로 표시될 터인데, 이제 강남에도 점 하나가 찍힐 수 있겠다. '동네 책방'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는 논현역 인근에 2014년 12월에 문을 연 '북티크(BOOKTIQUE)'가 점의 주인공이다. 문학, 인문, 사회, 경제·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단행본과 독립출판물을 편집숍 형태로 구성해 판매하는 이곳은 멀지 않은 거리에 자리한 교보문고 이후 거의 20년 만에 강남구에 들어선 서점이라고 한다.

논현동이라는 위치도 의외인데, 서점이 건물(제이빌딩) 지하에 있어 지나가다 쉽게 발견하고 들르기 어려울 것 같다. 게다가 서점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책이 빼곡히 꽂힌 책장이 아니라 의자와 테이블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오른쪽에는 음료를 주문하는 카운터가 있고, 층고 높은 공간의 정면으로 야외 공연장의 객석을 연상시키는 계단식의 좌석이 보인다. 책방이라기보다 북카페의 인상이 강하다. 여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북티크가 방점을 찍는 것이 '책'보다는 책을 읽는 '사람'과 그 '문화'이기 때문이다. 독자와 독서 모임이 이 공간의 목적이고 중심이다.

'출판소셜벤처'라는 수식어와 함께 시작된 북티크는 독서 모임 등 책 읽기와 사람을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이다. 요즘 많이 보이는 작은 책방의 경우 책방 공간이 생기고



오가는 사람이 생기면 낭독 모임, 독서 모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 지는데, 북티크의 경우 독서 모임을 먼저 기획하다가 사람이 모일 공간이 필요해 서점을 열게 된 케이스다. 오픈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은 초기의 수식어 대신 '콜라보 서점' 북티크로 통한다. 운영진이 마련하고 열심히 다듬은 공간은 작은 책방이 그렇듯 책을 좋아하는 이들이 필요로 하던 '소통'의 요구와 맞아떨어지며 조금씩 입소문을 타고 알려졌다. 음악팬이 자신이 좋아하는 뮤지션의 공연이라면 어느 깊은 골목의 지하 공연장이라도 애써 찾아가듯, 북티크의 손님들은 공간을 알고 일부러 논현역까지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오늘 낮에는 '화요시네마'라는 영화 상영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손님 중에 한 시간 넘게 걸려 찾아오셨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북티크 박경래 점장의 말이다.

### 밤새 운영하는 '심야서점'과 자유롭게 참여하는 독서 모임

현재 북티크에서 진행되는 독서 모임은 일주일에 15개 정도. 역사, 경제, 문학, 영화 원서 등 장르별 책을 읽는 모임도 있고, 사회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책을 함께 선정해 읽는 등 주제별 독서 모임도 있다. 북티크의 운영진이 모임을 주관하기도 하지만 외부의 독자가 리더로 선정돼 모임을 이끄는 경우도 있다. 많은 모임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심야서점'과 '북모닝'. 심야서점은 매주 금요일, 말 그대로 밤새워 책을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운영시간: 오후 10시~토요일 오전 6시), 졸음이 눈꺼풀을 짓누를 새벽 2시부터는 음료로 목을 축이며 책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북토크' 시간이 마련된다. 북모닝은 주말을 부지런하게 보내고 싶은 독서 입문자들에게 열린 모임. 별도의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모임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12시까지 개별 독서 시간을 갖고 희망자에 한해 오후 12시~1시 30분까지 북토크에 참여하면 된다. 내 방이나 도서관이 아닌 공간에서 그저 좋아서 밤새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결코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이다. '토요일 아침'이라는 최소한의 시간 약속 외에 어떤 제약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북모닝은 책 읽기의 보이지 않는 문턱을 넘고자 하는 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티크는 이처럼 다양한 기회를 공간에 마련해 좀 더 많은 이들이 책과 문화를 가까이, 쉽게 경험하게 하고자 한다. 그리고 흥미로운 기획의 원동력인 '독자들의 꾸준한 호응'은 북티크를 비롯해 작고 다양한 서점이 늘어나는 현재의 흐름이 단순한 유행이 아님을 실감하게 한다.

"요즘은 책을 읽고 좋아하더라도 함께 나눌 곳이 없어요. 영화를 보면 사람들과 '무슨무슨 영화 봤어? 그거 재미있던데.' 식



의 대화를 나누는데, '요즘에 새로 나온 그 책 봤어?' '요즘 그 작가 책 재미있던데.' 같은 이야기는 나누기 꺼려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책을 보면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정도랄까요. 그런데 여기서서는 책을 읽고 서로 얘기하는 게 당연시되니, 오시는 분들도 각자 좋아하는 책을 추천하고 나누고 싶어서 또 오시는 것 같아요." (박경래)

### 출판계는 불황, 책방은 늘어나는 아이러니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인 것은, 공간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책을 정말 잘 안 읽으세요." (웃음) 언론에서 '출판계가 불황'이라는 20년째 새롭지 않은 뉴스와 '작은 서점이 뜸다'는 기획 기사가 함께 나가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운영자들은 피부로 느끼는 듯했다. 책을 어렵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 책을 아주 좋아해서 개성 넘치는 책방을 내거나 그런 곳을 찾아다니는 이들도 공존한다. 다만 전자가 많고 후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 그렇더라도 그들이 지닌 문화적인 욕구는 하나의 새로운 흐름을 형성할 만큼 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겠다. 북티크는 "책 속에서 사람들이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책과 거기 담긴 이야기를 나누고 영화 등 다양한 문화를 편하게 만날 기회와 공간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천천히 조금씩 독서를 둘러싼 문화생태계가 균형을 찾아가길 기대하는 건 무리가 아닐 것이다.

"공간을 운영하다 보면 재미있는 장면을 종종 마주쳐요. 한 번은 어머니와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아들이 함께 왔는데, 어머니는 아이에게 책 읽는 문화를 체험하게 해주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반신반의하던 어머니는 아이가 조용히 집중해 책을 읽는 모습을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읽으라'고 강요하는게 아니라 같이 읽고 얘기하는 경험, 그런 문화가 중요하게 느껴지죠." (박경래)

1, 2, 3 북티크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책보다 '사람'이다. 북티크는 다양한 분야와 성격의 독서모임을 운영하고 저자와의 만남, 전시, 영화상영, 각종 이벤트 등 사람들이 책과 더욱 가까워질 기회를 마련한다.

글  
이아림

사진 제공  
콜라보 서점 북티크  
(booktique.kr)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웅녀>와 뮤지컬 <맘마미아!>

## 무대 위에서 극을 이끌어가는 여성 캐릭터의 힘

에스24가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티켓 구매 고객을 조사한 결과, 뮤지컬 관객의 81.9%, 연극 관객의 71.0%가 여성이었다. 나머지 남성 관객 중 여자친구나 아내 손에 이끌리지 않고 스스로 공연장을 찾은 남성은 훨씬 적을 것이다. 공연 관람 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우는 사람들은 여성이라는 얘기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듯, 자기주도적인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는 공연 역시 부쩍 늘었다.

**“나는 우리 서방 찾아올랴요”**

**<변강쇠 점 찍고 웅녀>, 5. 4~22,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칼 오르프의 <카르미나 부라나> 중 ‘오 운명의 여신이어’ 멜로디가 난데없이 가아금으로 연주되자 파리 테아트르 드 라 빌 극장의 관객들은 폭소를 터뜨렸다.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자기를

이 잘 아는 음악이 색다른 음색으로 나와서 그랬을 것이다. 지난 4월 14일 국립창극단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웅녀>(고선웅 작·연출, 한승석 작창)의 프랑스 공연 첫날, 이 대목에서 여주인공 웅녀는 결의에 찬 목소리로 “나는 우리 서방 찾아올랴요” “다 싸질러 불은 무슨 수가 나겠제!”라며 일갈한다.

문제적 연출가 고선웅의 손에서 철저히 해체되고 재구성된 이 창극은 2014년 국내 초연돼 창극 역사상 초유의 26일 장기 공연을 이어가며 화제를 낳았던 작품이다. 1980년대 엄중선 감독의 영화 <변강쇠>와 고우영 만화 <가루지기>로 잘 알려졌으며 외설적인 내용으로 유명한 <변강쇠전>을 과연 어떻게 다시 무대에 올릴 것인가? 열쇠는 ‘주인공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교체하기’에 있었다. 제목부터 의미심장한데, 변강쇠는 이제 ‘점을 찍어 잊어버리고’ 웅녀가 새로운 주인공이 됐다는 뜻이다.

새로운 작품의 주인공이 된 웅녀는 단순히 음탕한 색녀(色女)가 아니라, 건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적극적인 여성상으로 변신했다. 도입부에서부터 끝 모를 상부(喪夫)의 팔자에 좌절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오나 웅녀, 오나 웅녀... 내 기필코 인생 역전하여 보란 듯이 살리라!”고 울부짖더니 보따리 싸들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난다. 그것은 가혹한 환경을 딛고 가정을 이뤄 생명을 잉태하고자 하는 투지다. 성적(性的)인 요소조차 웅녀에게선 삶의 밑천으로 승화된 것이다.

후반부에서 장승들의 동태에 의해 남편 변강쇠가 횡사한 뒤로 그녀는 대단히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고선웅은 “이미

1, 2  
2014년 초연 이후 매년 매진을 기록해 화제를 낳은 국립창극단의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웅녀>.



3, 4  
아바(ABBA)의 명곡이 귀를 즐겁게 하는 뮤지컬 <맘마미아>. 주인공 소피와 엄마 도나는 적극적인 여성 캐릭터를 꿈꿀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들이다.

너무나 많은 사내의 초상을 치른 웅녀가 장승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는 것으로 그쳤다”고 했다. 삶을 긍정하고 후손을 낳아 가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다름 아닌 성(性)이라는 것을 말하는 이 작품에서, 뮤지컬과는 달리 한국어 가사가 잘 들리는 창(唱)은 대체 불가능한 요소가 된다. 공연을 본 프랑스 관객들은 놀라다는 표정으로 “섹슈얼리티와 유머가 섞여 나오는 것은 처음 본다”고 했다. 유머는 해학이고, 해학은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연결되는 셈이다.

**“어려운 일 닦쳐와도 이겨낼 꿈이 있어”**  
**<맘마미아>, 2. 20~6. 4, 사뮈데씨어터**

어쩌면 뮤지컬 <맘마미아>는 아바의 명곡 ‘아이 해브 어 드림 (I Have a Dream)’에 대한 세 시간짜리 주석(註釋)일지도 모른다.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서 “어려운 일 닦쳐와도 난 이겨낼 꿈이 있어/ 꼭 해야 할 일이 만약 있다면 실패한다 해도 해보는 거야”라고 노래 부르는 등장인물은 모녀 주인공 중 딸인 소피다. 그리스의 한 섬에 살고 있는 그녀는 엄마 도나의 일기장을 훔쳐 본 뒤 자기가 태어났을 시기에 엄마가 사귀었던 남자 세 명을 찾아낸다. 그리고 엄마의 이름으로 초청장을 써서 그들을 모두 자기 결혼식에 초대한다(세 사람의 주소를 과연 어떻게 찾아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극 전체가 이 ‘아빠 찾기’의 노력에 따라 전개되는 것이다.

소피는 그 이유를 털어놓는다. “난 완벽한 결혼식을 바라지.

그리고 난 우리 아빠가 날 데리고 입장해주길 원해.” 극이 진행되면서 그것은 단지 예식 자체의 완결성을 위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질문을 풀기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나게 된다.

하지만 소피는 결혼식이 시작되려는 시점까지 빌, 샘, 해리 중 누가 자기 진짜 아빠인지 알 수 없다. 이 장면에서 소피는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전 제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알게 됐으니까요.” ‘아빠 찾기’가 ‘정체성 찾기’로 진화한 결과 지금 당장은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소피는 신랑 스카이에게 말한다. “막 시작된 인생이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어. 우리 이 섬을 떠나서 더 큰 세상을 만나보자.”

소피와 스카이가 섬을 떠나면서 뮤지컬은 막을 내리는데, 이번 공연에서 소피 역을 맡은 소녀시대 멤버 서현은 필자와 인터뷰에서 “자유분방하고 고집이 세며 모험심이 강한 성격이라 저하고 꼭 맞는다”고 했다. 1970년대 노래(물론 이것은 세월이 흘러도 빛바랄 리 없는 고전이지만)를 부르면서도, 21세기 젊은 여성 대부분이 공감할 성격의 소유자가 <맘마미아>의 소피인 것이다.

그렇다면 섬에 남아 즐지에 옛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엄마 도나는 수동적인 여성인가? 여자 혼자 애 낳고 20년 동안 기르면서, 게으른 그리스 남자들을 부려가며 호텔을 운영한다는 데서 그녀의 진면목이 나온다. 모두가 도나처럼만 했더라면 그리스발(發) 경제 위기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글  
유석재  
2003년부터  
조선일보 문화부에서  
주요 학술과  
출판을 담당했다.  
2000년대 중반에  
AV칼럼니스트로  
암약했고, 1991년부터  
초야의 공연 마니아로  
있다가 2014년  
1월부터 조선일보  
공연 담당 기자로 활동  
중이다.

사진 제공  
국립극장,  
(주)신시컴퍼니

전시 <사군자, 다시 피우다>와 <풍속인물화-일상, 꿈 그리고 풍류>

## 조선시대 선비들의 이상과 현실

사군자를 통해 조선시대 선비들이 지녔던 이상을 가늠할 수 있는 전시와 해학 넘치는 풍속화 속에서 조선 사람들의 일상과 욕망을 읽어낼 수 있는 전시가 나란히 열리고 있다. 그림에 깊은 취미가 없던 이들이라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김홍도, 신윤복, 정약용, 김정희 등 대가의 작품과 현대 작가의 작품이 함께한다.

### 사군자, 사대부가 꾸는 꿈

<사군자, 다시 피우다>, 3. 30~5. 25, 포스코미술관

매(梅), 난(蘭), 국(菊), 죽(竹).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사군자의 기품 있는 자태 속에서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발견했다. 그리고 먹을 갈고 붓을 들어 화선지 위에 이를 옮기며 선비로서 지녀야 할 인성을 갈고닦았다. 표암 강세황(1713~1791), 다산 정약용(1762~1836), 추사 김정희(1786~1856) 등 수많은 선비가 '문자향 서권기(文字香 書卷氣)'의 정신을 사군자로 표현했다. 그러나 '사군자'는 어디까지나 선비들이 다다라야 할 '이상적인 모습'의 상징이었다.

그러면 실제의 삶은 어땠을까. 우리는 그 같은 모습을 18세기 후반 김홍도(1745~1806)와 금재 김득신(1754~1822), 혜

원 신윤복(1758~미상) 같은 화원화가들에 의해서 완성된 풍속화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의 그림에는 평민의 노동과 휴식, 문인의 공부와 풍류의 장면 등 선조들의 일상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그런 점에서 풍속인물화는 선조들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전해주는 실체적인 역사 기록이자, 그들이 꿈꾸던 삶의 지향까지 엿볼 수 있는 가늠자이라 할 수 있다.

조선조 선비들의 그 같은 '이상'과 '현실'을 화폭의 그림을 통해 만나게 해주는 전시가 서울시내에서 나란히 진행된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포스코미술관에서는 <사군자, 다시 피우다>전이 열리고 있다. 5월 2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에는 조선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작가 32명의 작품 77점을 선보인다.

서화에 문외한인 사람도 알 수 있는 다산 정약용과 추사 김정희의 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딸의 결혼 소식을 듣고선 아내가 보낸 낚은 치마폭에 그려준 <매화병제도(梅花屏題圖)>, 추사가 종이에 난초를 그리고 그 옆에 이것을 그리는 방법을 적은 <시우란(示佑蘭)> 등이 전시작에 포함됐다.

수운 유덕장(1675~1756)의 <묵죽도6곡병(墨竹圖六曲屏)>, 표암 강세황의 <사군자도> 등도 만날 수 있다. 표암의 <사군자도>는 일반 전시에서 처음 선보이는 작품이다.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지조와 절개의 의지를 표현했던 석촌 윤용구(1853~1939)의 <사군자 10폭 병풍>, 항일운동가 일주 김진우(1883~1950)의 <묵죽도(墨竹圖)> 등도 소개된다. 비록 작품의 격은 떨어져 보이지만 일제하의 힘들었던 시대상을 반영하

1  
난초를 그리고 그 옆에  
난초 그리는 방법을  
적은 추사 김정희 작품  
<시우란>.

2  
표암 강세황의  
<사군자도>.





3, 4  
조선시대 최고의  
풍속화가로  
꼽히는 신윤복의  
<미인도>(사진 3)와  
<쌍경대무>(사진 4).

듯 결기 같은 것이 느껴진다.

현대 작가들 작품으로는 월전 장우성(1912~2005)의 <야매(夜梅)>를 비롯해 청전 이상범(1897~1972), 남천 송수남(1938~2013)의 회화, 문봉선의 <목죽도>를 소재로 한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의 영상작업 그리고 조환의 <철판산수>가 전시돼 있다. 간결하고 담담하면서도 힘이 넘치는 전시 작품들 앞에서 있으면 선비들이 추구한 정신적 이상세계가 숙연한 감정마저 들게 한다.

**해학과 풍자로 버무린 일상의 민낯**  
**<풍속인물화-일상, 꿈 그리고 풍류>, 4. 20~8. 28,**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배움터 2층 디자인박물관**

반면 간송미술문화재단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8월 28일까지 조선시대 풍속인물화를 엄선해 선보이는 <풍속인물화-일상, 꿈 그리고 풍류>전에선 선비들의 또 다른 일상, 해학과 풍자가 가미된 실제 삶의 모습들을 만날 수 있다.

전시에는 조선 전기 화가로 안견의 제자인 석경부터 전형필의 스승인 춘곡 고희동까지 조선왕조가 배출한 화가 33명의 작품 80여 점이 나온다. 백인산 간송미술관 한국민족미술연구소 연구실장은 “인물풍속화는 특히나 사회상을 잘 보여주는 지표”라면서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오늘날과 비교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시는 문인과 백성의 ‘일상’, 현세의 행복과 내세의 구원을 바라는 ‘꿈’, 흥취를 풀어내는 문화인 ‘풍류’ 등 세 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다. 일상 부문에선 봄날 젊은 선비가 말 위에서 꾀꼬리 소리를 감상하는 김홍도의 <마상청앵(馬上聽鶯)>, 들고양이가 병아리를 훔치는 모습을 익살스럽게 표현한 김득신의 <야묘도주(野猫盜雞)>, 정선의 자화상으로 추정되는 <독서여가(讀書餘暇)> 등을 만날 수 있다.

달마도로 이름난 김명국이 신선을 소재로 그린 작품들과 노승이 흰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나는 장면을 묘사한 김홍도의 <염불서승(念佛西昇)>은 꿈 부문에서 볼 수 있다. 마지막 풍류 부문에는 조선시대 최고의 풍속화가로 꼽히는 신윤복의 <쌍경대무>와 <미인도>를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미인도의 경우 ‘조선시대의 모나리자’라는 별칭이 붙여질 정도로 조선시대 인물화 중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고 있어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또한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와 구범석 작가의 미디어 작업도 전시장 방문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이이남 작가의 <꿈 속의 선비>는 단원 김홍도의 명화 <마상청앵도>의 말을 타고 가다 봄의 소리를 듣게 되는 원작의 분위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동화적으로 표현해냈다. 구범석 작가의 <간송아트컬렉션>은 조선시대 풍속인물화 걸작 10점을 선별해 초고해상도 화질로 구현, 마치 현미경을 통해 보듯 세밀한 질감과 색감으로 고미술의 색다른 영상미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sup>3/2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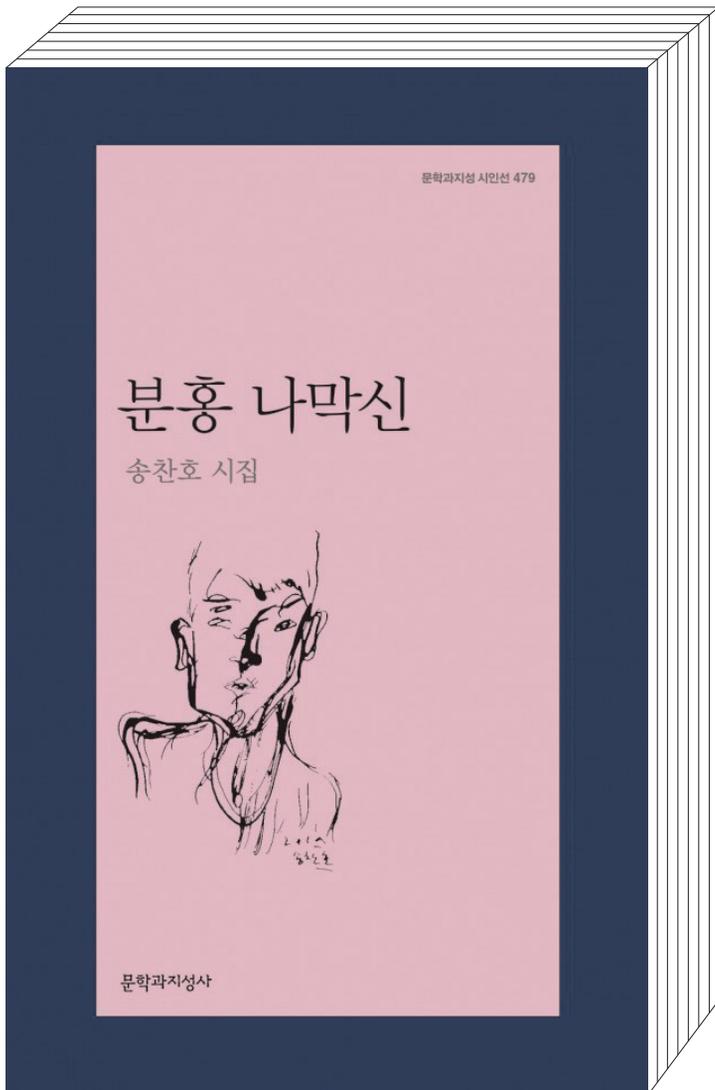
글  
이경택  
문화일보 문화부 부장

사진 제공  
포스코미술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책 <분홍나막신>과 <헛디디며 헛짚으며>

## 삶을 탁월하게 짚는 고수의 시어

'강호(江湖)의 고수'는 이들에게도 딱 어울리는 말이다. 최근 신작 시집을 낸 송찬호·정양 시인. SNS를 통해 감각적인 '요즘 시'들이 각광받을 때, SNS와는 거리가 먼 고수의 시어에서는 삶을 통찰하는 속 깊은 상상력과 익살을 맞볼 수 있다. 시인들의 시인이 건네는 언어에 귀 기울여보자.



이즈음 세상에도 백이숙제처럼 초야에 묻혀 세상으로부터 숨는 일이 가능할까. 기침 한 번 크게 해도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라도 빛의 속도로 전 세계에 그 사실을 전파할 수 있는 시대여서 은거한다는 의미는 다르게 해석해야만 할 것이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각종 매체로부터 스스로 소외당해야 비로소 어느 곳에 있던 그곳이 백이숙제가 들어간 수양산이 될 것이니 말이다. 최근 연달아 시집을 낸 송찬호(57)·정양(74) 시인은 강호에 은거하는 시인으로 평판이 높다. 나이 차이는 훌쩍 나지만, 지방에 살면서 이른바 '중앙 문단' 행사나 술자리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SNS 같은 소통 수단과는 아예 처음부터 담을 쌓은 이들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럼에도 이들이 생산하는 시는 범(汎)문단의 지지를 받는 명품이라는 공통점을 지녔다.

송찬호 시인은 1987년 <우리시대의 문학> 6호로 데뷔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의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적이 없다. 그곳에 자신이 직접 통나무집을 5년에 걸쳐 지어놓고 중심을 삼았다. 운전면허가 없는 그는 인근 상주까지 시외버스를 타고 나갔다가 터미널에서 바로 돌아오는 버스를 타고 귀가하는 일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다. 해외여행도 그의 취미는 아니다. 그렇게 살아도 전혀 따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단조롭고 권태로운 일상을 그는 누구보다 잘 견딘다고, 그래서 그의 아내조차 신기하다고 말할 정도라고 한다.

우석대 교수로 재직하다 정년퇴직한 정양 시인은 지역에 뿌리내린 상징적인 문인이다. 1968년 대한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해 50년 가까이 시업을 이어온 정 시인은 전북 지역의 토박이 문인이다. 최근에는 아들이 살고 있는 경기 용인으로 노부부가 거처를 옮기긴 했어도 오랜 세월 쌓아온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성은 달라지지 않는다. 지난 3월에는 아예 지역(전북 전주) 문인들이 출자해 만든 출판사에서 첫 번째로 시집을 내기도 했다. 안도현, 김용택, 유강희 시인 등 20여 명이 십시일반 돈을 보태 만든 출판사 '모약' 시인선 1번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 현실에 접한, 허를 찌르는 상상력

〈분홍나막신〉, 송찬호 지음, 문학과지성사

강호의 시인들이라는 점만으로 이들을 거론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시인들이야 찾아보면 적지 않을 터이지만 그들이 모두 빼어난 작품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송찬호는 시인들이 좋아하는 시인으로 꼽힐 뿐 아니라 대산문학상, 미당문학상, 김수영문학상 같은 굵직한 상을 휩쓴 고수다. 그가 7년 만에 펴낸 5번째 시집 〈분홍나막신〉(문학과지성사)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그대여, 내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사이렌 소리를 듣고/ 멀리 나를 찾아온대도/ 이번 생은 그런 것 같다/ 피는 벌써 칼을 버리고/ 어두운 골목으로 달아나버리고 없다// 그대여, 내 그토록 오래 변치 않을 불후를 사랑했으니/ 점점 무거워지는 눈꺼풀

아래/ 붉은 저녁이 오누나/ 장미를 사랑한 당나귀가/ 등에 한 짐 장미를 지고 지나가누나”(〈안부〉)

생의 고통을 사이렌 소리로 환치시킨 감각이 인상적이다. 지적인 성찰로 새로운 상상력을 보여주는 시인으로 각광받아온 송 시인의 이런 감각적인 작품은 다소 뜻밖이고 뜨겁다. 이번 시집에 이런 감각의 시들만 있는 건 아니다. “나는 천둥을 흙 속에 심어놓고/ 그게 무럭무럭 자라/ 담장의 장미처럼/ 붉게 타오르기를 바랐으나// 천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로만 훑쩍 커/ 하늘로 돌아가버리고 말았다”(〈장미〉)처럼 허를 찌르는 상상력은 여전하지만 현실로 한 발짝 내려와 일그러진 세상에 대한 서사가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 삶에 힘을 보탤 유머와 익살

〈헛디디며 헛짚으며〉, 정양 지음, 모악

정양 시인이 통산 7번째로 펴낸 시집 〈헛디디며 헛짚으며〉는 웃음과 성찰을 동시에 준다. 특히 학창시절을 회고하며 풀어내는 이런 시는 “아내가 이번 시집을 읽고 나서 웃느라고 눈물이 다 나왔다고” 처음 고백했을 정도로 익살스럽다.

“중간고사 끝난 다음 주 노총각 영어선생이/ 붉으락푸르락한 얼굴로 용출이를 불러내더니/ 답안지 한 구석을 손가락으로 꼭꼭 짚으면서/ 시험이 장난이나이 쌍녀르 새끼야/ (...) / 해브 투로 짧은 글 짓는 문제에/ 우이 해브 투 핸드플레이라고 썼더니 저런 다고/ 눈물을 훔치며 용출이는 더 크게 울었다”(〈We have to〉)

정양 시인을 사석에서 무람없이 접했던 이들이라면 그의 유머 감각을 익히 알고 있었을 터이지만 이번처럼 시에서 직접 그 감각을 살린 경우는 드물었다고 한다. 물론 이번 시집에는 익살만 있는 게 아니다. 그에게 이번 시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시는 “눈을 부릅떠야 할 일이 많은 세상인데 눈을 감고 지나온 적이 없는지 반성과 다짐을 하면서 헛디디고 헛짚을지라도 갈 데까지 가 보겠다는 오기”가 담긴 ‘눈 감은 채’라고 했다.

위에 인용한 시들만으로 두 시인의 신작 시집에 담긴 훌륭한 작품을 다 짐작하기는 어렵다. 꽃피는 계절, 모처럼 시심으로 두근거릴 독서 체험은 어떨까.



글  
조용호  
소설가, 세계일보  
문학전문기자,  
소설집 〈베니스로  
가는 마지막 열차〉  
〈왈왈리 고양이나무〉  
〈떠다니네〉, 장편소설  
〈기타여 내가  
말해요〉, 산문집  
〈꽃에게 길을 묻다〉  
〈키스는 키스 한숨은  
한숨〉 〈시인에게 길을  
묻다〉 〈노래, 사랑에  
빠진 그대에게〉  
〈둔키호테를 위한  
변명〉, 무영문학상,  
통영문학상 수상.

사진 제공  
문학과지성사, 모악

별자리 운세도 신통치 않을 때

#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똑똑똑... 여기가 ‘예술적 상담소’ 맞나요?”

여러분의 어떤 고민도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리는 ‘예술적 상담소’.

온라인으로 별도 공간을 마련해 고민 상담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려주신 고민에 대한 예술적 대책을 찾아 답변을 달어드리니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sfac.or.kr) - 열린광장 혹은 페이스북 탭에서 예술적 상담소를 찾아주세요!

다른 사람의 고민에 댓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채택된 질문은 [문화+서울]에 게재되며, 소정의 상품을 발송해드립니다.



### 엄마와 오붓하게 즐길 공연을 찾습니다!

저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20대 여성 독자입니다. 20대가 되고 직장인이 되면서 뮤지컬이나 발레, 오페라 등 좋아하는 분야가 넓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뮤지컬 공연을 보고 나오던 중 ‘이 공연 엄마랑 같이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바로! 엄마에게 “다음 달에 이런 공연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 넌지시 이야기를 들려봤지만 엄마는 “난 그런 거 잘 몰라, 재미없어. 그리고 비싸잖아!” 라고 하셨습니다. 몇 번이고 말씀드려봤지만 엄마는 그런 건 모두 어렵고 비싸지 않냐고 하시더군요. 엄마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공연은 없을까요?



### 어느 때보다 공연 상차림 풍성한 5월

그 어느 때보다 반가운 질문이네요. 저와 이렇게 비슷한 독자님이 계셨군요!

### 예술적 상담소

어릴 적부터 공연을 참 좋아했고, 지금은 공연예술계에 발을 담고 있는 저

역시 부모님과 함께 공연을 보는 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직장인보다 더 바쁜 데다, 공연 얘기만 하면 지루할 것 같고, 티켓은 또 비싸지 않냐고 3단 방어를 하시는 덕분에 부모님과 공연 데이트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버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공연을 보고 나면 이 감동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죠. 저는 독자님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연의 감동이란 함께 나눌 때 더욱 커지는 법이니까요.

자, 그럼 독자님과 어머니의 오붓한 공연 데이트를 위한 해결 방법을 제안해드립니다. 첫째, 객석에 앉아 있는 내내 절대 지루하지 않고 무대의 매력에 흠뻑 빠질 만한 작품을 선정한다. 둘째, 부담 되는 금액이 아닐지라도 티켓 가격은 무조건 비밀에 부친다. 셋째, 시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곧바로 예매에 돌입한다. 아참, 5월엔 ‘가정의 달’이라는 아주 좋은 핑곗거리도 있죠.

### 맛깔난 ‘18금 창극’, 웃음 빵빵 터지는 ‘돈키호테’

5월은 나무와 꽃뿐 아니라 공연도 만발하는 계절입니다. 이 달에 즐길 수 있는 수많은 공연 중 저는 국립창극단의 <변강쇠 점 찍고 옹녀>를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네요. (팔은 안으로 굽



<http://bit.ly/ltAX44>



고, 가재는 게 편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뮤지컬도 연극·무용도 아닌 '창극'이라니 당황하셨나요? 뭔가 국악이나 판소리가 등장하면 고리타분하고 지루할 것 같다고 생각하셨다면 이 작품을 보고 선입견을 완전히 깰 수 있을 겁니다. 무려 '18금 창극'을 표방하고 있는 <변강쇠 점 찍고 웅녀>는 스타 연출가 고선웅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창극단이 손을 맞잡고 탄생시킨 작품으로 맛깔나는 대사와 음악이 일품입니다. 올해로 3년째 공연을 올리는데도 매회 매진을 기록하고 있다니 재미와 감동은 이미 증명된 거겠죠? 특히 엄마와 딸이 함께 본다면 더욱 오붓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마냥 손 안의 자식인 줄만 알았던 '딸내미'와 이런 공연을 보다니 감회가 새롭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변강쇠 점 찍고 웅녀>는 작품성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하나로 엮어줄 수 있는 1석 2조의 매력을 가진 작품입니다. 5월 4일부터 22일까지, 약 3주간 국립극장 달오름 무대에 오릅니다.

무용에 관심이 있다면 5월 5일부터 7일까지 LG아트센터에서 공연되는 국립발레단의 <돈키호테>를 추천합니다. 이 작품 역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공연시간 내내 웃음이 뺨뺨 터지는 유쾌한 작품입니다. 스페인의 어느 광장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키트리와 바질의 사랑 이야기와 엉뚱하고 웅감한 기사 돈키호테의 에피소드가 펼쳐집니다. 흥겨운 음악에 맞춰 펼쳐지는 다채로운 캐릭터 댄스 덕분에 무대에서 눈을 떼기 어려울 거예요. 각 장 사이에는 해설자가 무대에 등장해 직접 작품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니 공연 초심자에게도 무척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네요.

###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각종 야외 공연, 훈훈한 날씨는 덤!

5월은 '가정의 달'이자 도시 곳곳에서 각종 축제가 펼쳐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환상적인 날씨를 만끽하며 야외 공연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침 다양한 무료 공연이 준비돼 있는데요. 4월 30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매일 오후 8시 경북공경희루에서는 <궁중문화축전 2016> '경희루 아간음악회'가 열립니다. 한국문화재단 예술단·국립국악원·서울시립교향악단·국립국악관현악단이 차례로 이틀씩 무대를 장식합니다. 궁궐의 정취도 만끽하고, 음악과 함께 아늑한 밤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14일 오후 6시, 예술의전당 신세계스퀘어 야외무대에서는 서울발레시어터의 <올 댓 발레>가 열립니다. 고전발레부터 모던발레까지 서울발레시어터의 대표 작품을 망라해 선보입니다. 28일 오후 6시엔 한국이 자랑하는 소프라노 신영옥의 오페라 콘서트도 준비돼 있고요. 대중에게 친숙한 여러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고 하네요. 눈과 귀가 행복해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독자님과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수많은 공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월엔 유독 '가족'을 소재로 하는 공연이 많고, 또 '가족'을 위한 할인 혜택을 내놓은 곳도 눈에 띄입니다. 뮤지컬 <친정엄마>(4월 7일~6월 18일), <맘마미아>(~6월 4일), <별이 빛나는 밤에>(5월 7일~15일), 연극 <장수상회>(5월 5일~29일) 등 약간의 발품만 팔면 좋은 작품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공연을 선택하든, 부모님과 함께 공연을 즐기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꽃피는 5월엔 그 행복한 고민이 꼭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sup>32</sup>

답변  
김태희  
월간 <객석>을 거쳐  
현재 국립극장  
홍보팀에 있다.  
극장의 소식을  
가장 빠르고  
매력적으로 전달하는  
월간 <미르>의 제작을  
맡고 있다.

시민 정치 참여의 핵심인 선거  
그리고 선거포스터

# 나라일 할 후보의 면면을 살피던 풍경

선거 포스터의 형식은 오랜 시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포스터를 바라보는  
유권자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사진1〉 1956년 선거벽보

지난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렀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거리 곳곳 담벼락에는 각 지역구 후보들을 홍보하는 선거 포스터가 나붙었습니다. 대부분의 포스터에는 공직선거관리법에서 규정한 대로 후보자의 사진과 소속 정당명, 경력, 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그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혹 얼굴 사진 없는 포스터도 눈에 띄었습니다. 얼굴 없는 포스터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충북 옥천군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후보는 선거 포스터에 ‘시원하게 굵어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얼굴 대신 효자손 사진을 넣었습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벽보 규정에는 허위 사실 기재를 금지했을 뿐 사진과 성명, 기호, 정당명, 경력 등은 자유롭게 홍보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포스터를 승인했습니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선거 포스터에 자신의 상반신 누드 사진을 넣은 후보도 있었습니다.

##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에 몰린 큰 관심

선거 포스터의 형식은 오랜 시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포스터를 바라보는 유권자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사진1〉은 1956년 열린 제3대 정부통령선거를 앞둔 서울의 풍경입니다. 당시 국민들은 6·25 전쟁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은 듯합니다. 민주당 신익희 대통령 후보와 장면 부통령 후보의 선거 포스터 앞에 많은 사람이 몰려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을 철폐한다’는 조항을 핵심으로 하는 ‘사사오입개헌’을 감행한 자유당에서는 대통령에 이승만 후보를, 부통령에 이기붕 후보를 지명했습니다.

‘구두통’을 든 소년부터 중절모 쓴 아저씨, 양복을 빼입은 신사까지 다양한 사람이 후보들의 공약이 적힌 포스터를 보고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지도자를 뽑는 일에 큰 관심을 보인 듯합니다. 머리를 양갈래로 탄 한 처자만 무심히 지나가고 있네요.



〈사진2〉 1960년 선거벽보 입간판

당시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며 상대 당 후보의 포스터를 훼손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전북 전주시에서는 과한들이 야간통행금지 시간에 민주당 정부통령 후보자의 포스터에 먹칠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서울 서대문에서도 진보정당 부통령 후보자 포스터와 정견 발표 벽보가 찢겼습니다. 부산에서는 아예 선거 포스터를 붙이기도 전에 탈취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전국 각지에서 포스터 훼손 사건이 일어나자 경찰은 적극적인 단속에 나섰고, 야간통행금지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 한 신문에 ‘벽보를 철거하고 마음도 깨끗이 하자’는 칼럼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벽보를 뜯고 거리를 깨끗이 합시다. 그리고 거칠어진 우리의 마음도 깨끗이 정리합시다. 때로는 선거에 열중해 본의 아닌 설왕설래도 있었을 것이나 모두 다 깨끗이 씻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 크게 다르지 않은 포스터, 달라지는 사람들

1960년 6월 15일 내각책임제로의 제3차 개헌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법’이 새롭게 개정된 후 6월 23일 공포돼 이전 민의원이 해산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29일 제5대 민의원·참의원 총선거가 열려 첫 양원제 국회가 탄생했습니다.

〈사진2〉는 이 선거를 앞두고, 거리에 선거 포스터와 입간판 등이 설치돼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선거법에 따르면 선전 벽보는 민의원의 경우 인구 50인당 1장, 참의원의 경우 500인당 1장 비율로 만들어 붙일 수 있었습니다.

또 소형 인쇄물에는 후보자의 이름·기호·선거구명만을 쓸 수 있었고, 후보자의 경력·정견 인사 등을 담은 선전 문서는 집마다 두 번 돌릴 수 있는 등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간판으로 다른 후보의 벽보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사진  
김현길  
전 AP통신 기자.  
1950년부터  
38년 동안 서울지역  
사진기자로 일하며  
격동기  
한국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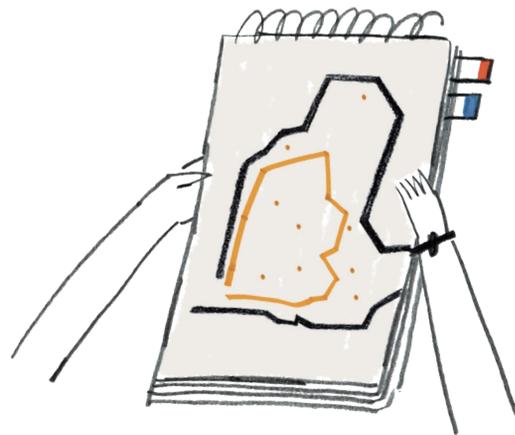
글  
김구철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대중문화팀장으로  
영화를 담당하고 있다.

심리지리학 기법으로 복춘 산책하기

# ‘서울 단상’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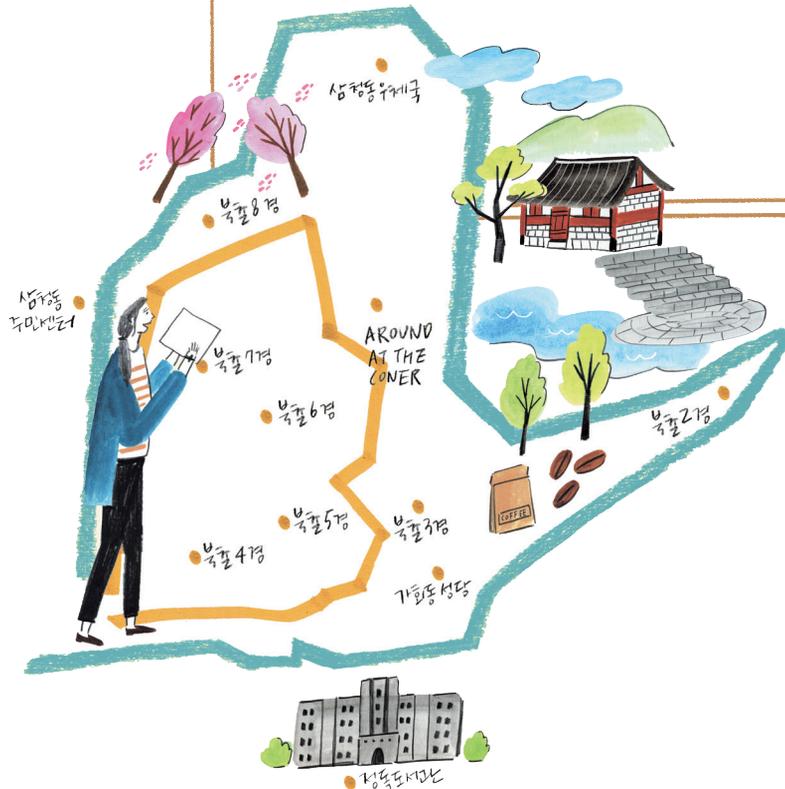
초행길이라도 스마트폰 지도 앱만 있으면 찾아갈 수 있는 세상이다. 발달된 도구는 목적을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동원되곤 한다. 걷기, 산책은 어떨까. 뚜렷한 목적이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는 일’을 ‘낭비’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한 번쯤 마음 내키는 대로 걷고 마음이 추동하는 것을 기록해보자. 이런 걷기 방식을 ‘심리지리학적 걷기’라고 한다.

『A Road of One's Own』



- 1 서울 지도를 펼칩니다. 집에 종이 지도가 없다면 웹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디지털 지도를 1:250 축척으로 확대한 뒤 프린트합니다. 무료 관광 안내 지도를 사용해도 됩니다. 스마트 기기의 지도 앱은 제외합니다.
- 2 컵을 준비합니다.
- 3 컵의 주둥이가 아래로 오도록 지도 위 아무 곳이나 놓으세요.
- 4 컵 가장자리를 따라 연필로 원을 그립니다.
- 5 이제 곧 지도를 들고 도시로 나가서 그 원을 따라 걸을 겁니다. 그 전에, 형광펜을 준비합니다. 원의 곡선에 최대한 가까이 걷는 데 도움이 되도록 원에 근접한 예상 경로를 형광펜으로 칠합니다. 원의 경계 안팎을 넘나드는 불규칙한 비대칭의 다각형이 나올 겁니다.

- 6 원을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휴대폰의 GPS 기능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형광펜 경로를 눈앞의 지형과 대조하며 걷습니다.
- 7 걸으면서 경험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어떤 매체든 좋습니다. 즉각적 기록 도구인 사진과 영상은 최대한 피하고 비일상적 감각을 수집하려 노력해봅니다. 쓰고, 그리고, 베끼고, 녹음하고, 채집합니다.
- 8 육감에 의지해 우연히 마주치는 인상을 포착합니다. 적극적으로 만지고 냄새 맡고 귀 기울이거나 어디가에 기어오르거나 수그리고 들여다 보면 손에 들고 있는 종이 지도가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이때부터는 지도를 주머니에 넣고 마음속의 경로를 따라 걷습니다.
- 9 문득 떠오르는 시 구절, 시각적 리듬감, 우연의 일치, 유추 해석, 가족 유사성, 변모하는 거리의 표정을 발견해보세요.
- 10 원이 완성되면 기록을 멈춥니다. 주머니에서 지도를 다시 꺼냅니다. 원에 가까이 걸으려고 노력했던 과정을 복기하면서 실제로 걸은 경로를 다른 색 형광펜으로 칠합니다. 원과 두 가지 다각형을 비교해 봅니다. 걸으면서 나만의 ‘서울 단상’이 만들어집니다.



이 항목들은 로버트 맥팔레인(Robert MacFarlane)이 2005년 ‘자기만의 길(A Road of One's Own)\*’이라는 칼럼에서 ‘심리지리학 초심자를 위한 지침’으로 소개한 내용을 10년 뒤인 오늘날 서울의 정황에 맞게 변안한 것입니다. 오늘 소개하려는 ‘심리지리학적 걷기’는 한 세기 전 상항주의자들이 일상의 권태로부터 벗어나 도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경험하기 위해 고안한 예술 운동의 일환입니다. 목적지를 향하는 걸기나 무언가를 소비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걸기에서 벗어나 조금 덜 스마트한 걸기, 스마트폰 없이 걸어보기를 권합니다. 변화하는 거리의 환경에 반응하는 자신의 정서와 감각을 세밀하게 의식하는 일련의 탐구를 심리지리학(psychogeography)이라고 정의한다면, 가

장 성공적인 '심리지리학적 걷기'란 도시에 젖어들어 경로를 따라 걷고 있던 사실조차 잊게 되는, '길 잃기를 위한 걷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심리적 감각으로 걷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천천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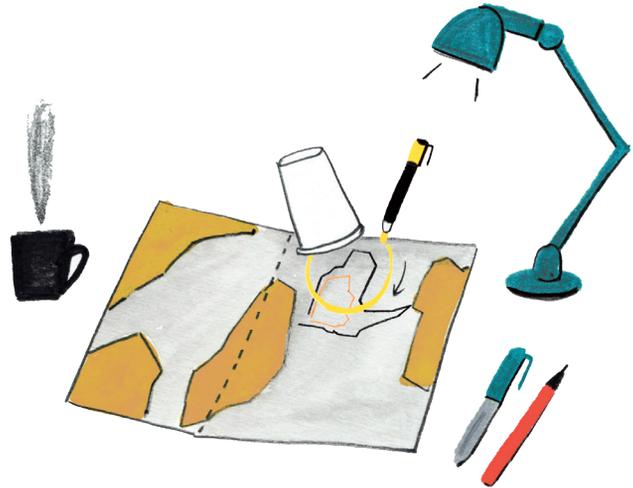
저는 심리지리학적 걷기가 북촌에도 통할지 실험해보고자 무작정 안국역행 지하철을 탔습니다. 인사동은 서울 시내에서 종이로 된 지도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안국역 1번 출구 관광안내소에서 지도를 얻은 뒤 돌 벤치 위에 펼쳐놓습니다. 광화문과 인사동, 삼청동, 북촌 일대를 확대해서 다루는 상업성 무가 지도입니다. 다 마신 테이크아웃 커피 컵을 지도 위에 무심코 떨어뜨립니다. 북촌 한옥마을이 간택되었군요. 최대한 원에 가까이, 노란색 형광펜으로 예상 경로를 그려 넣습니다.

정독도서관 정문을 지나 원두 볶는 냄새를 맡으며 골목길로 접어들습니다.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인적이 드문 쪽을 선택하면 대부분 원에 가깝게 걷게 되곤 합니다. 돌로 쌓아 올린 벽을 만지면서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하자 이내 손에 든 지도가 거추장스럽습니다. 지도는 주머니에 넣고 마음속 경로와 나의 위치를 비교하며 걷습니다. 마음의 지도는 심리적 거리 감각에 의해 왜곡되고 모퉁이를 돌 때마다 정북 감각이 흔들리며 마음이 쏠리는 장소에서 느리게 흐르는 시간의 감각에 이끌려 발걸음마다 그 모습을 바꿉니다.

한 시간 거리를 걷고 출발 지점으로 돌아와 지도 위 다각형을 비교해보니 예상 경로의 반도 채 안 되는 거리를 걸었네요! 다음 일정이 임박해오자 저도 모르게 더 큰 각도로 방향을 전환하며 다각형을 좁힌 것 같습니다. 1:1000 축척에 테이크아웃 컵 톨 사이즈의 조합이라면 한 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걷기 위해 한 시간을 온전히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엔 1:250, 2시간에는 1:500, 3시간에는 1:1000 축척 지도를 권합니다.

### 서울, 시간의 콜라주를 실험할 수 있는 도시

지도상에 북촌 8경으로 표시된 지역과 제가 우와! 했던 풍경도 전혀 다르더군요. 북촌을 소개하는 책이나 기사에서 한 번쯤 보았던, 포토그래퍼의 멋진 사진보다 절경을 뿜어낼 수 있는 현실 속 공간은 없나 봅니다. 오히려 북촌 관광 안내 지도의 변방에 있는 북촌로11길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지도상에서도 한눈에 찾을 수 있는 독특한 반달 모양의 필지 둘레를 감싸고 있는 길입니다. 언덕배기 고개를 넘어 모퉁이를 돌아 눈앞에 내려다보이는 벚꽃



과 안개, 그 사이로 내려다보이는 기와지붕들은 4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만 감각할 수 있는 공간의 정신이자 의외의 기쁨이었을 겁니다.

제 마음을 가장 강하게 붙든 것은 소리였습니다. 북촌에서 내려오는 북촌로15길 초입부터, 올라갈 때는 들리지 않던 물소리에 귀가 기웁니다. 시멘트로 마감한 좁다란 계단과 경사로 옆에 난 작은 도랑으로 물이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의 경복궁까지 출퇴근하는 고관대작들의 거주지였던 북촌은 북악산 기슭에 자리한 고지대여서 물이 지반 아래로 흘렀고 양반가 집집마다 물이 귀했습니다. 벼루 씻는 물, 머리 감는 물, 밥 짓는 물, 빨래하는 물의 수원지가 달랐고 용도별로 유명한 물을 길어다 하루 두 번씩 배달하는 물장수들이 서울 시내에 아주 많았습니다. 1908년 근대적 상수도 설치 이후 1970년대까지도 여전히 지대가 높거나 수도꼭지는 설치되어 있더라도 급수가 어려운 가옥이 드물지 않았고 서울 시내에서 물장수를 자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내리막길을 따라 지대가 낮아질수록 물소리는 더 커져서, 삼청로에 이르자 맨홀 뚜껑에 난 구멍으로 팔팔대는 소리가 뿜어나오다 인파와 차 소리에 이내 흡수됩니다. 시인 김동환의 시 속의 한옥, 안방의 창문 틈으로 들리는 물 쏟는 소리, 웅기로 만든 물 저장소, 수기로 물 배달을 확인하는 나무판 물표, 가벼워진 물 지게를 지고 내려왔을 이 삼청로 비탈길을, 밟은 채, 상상합니다. 600년 도성 서울은 물리적 길 잃기뿐 아니라 시간의 궤적마저 잃기에 최적인 도시입니다. 임의의 원을 따라 걷는 가운데 나만의 서울 단상 채집을 엮고 기워 '시간의 콜라주'를 실험해볼 수 있는 곳이지요.

여러분, 지도를 펴고 컵을 올려놓으세요!

\* 자기만의 길  
(A Road of One's Own)  
Robert MacFarlane,  
'A Road of One's Own',  
(Times Literary  
Supplement)  
(2005. 10. 7)

글  
김린  
도시 속에서 디자인이 작동하는 방식에 관심이 많은 그래픽 디자이너. 1인 출판사 겸 심리지리학 연구소인 '서울할머니(seoul grandmother.com)'를 운영하면서 이화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겸임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그림  
Meg

간판 풍경과 서울 거리의 미학

## 레이디 디올은 왜 서울에서 길을 잃었나?

간판의 거리 풍경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다.

인구와 점포의 밀도가 높은 서울에서 무질서하고  
요란하게 자리한 간판 풍경은 종종 이 도시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명동, 홍대 앞, 서촌의 풍경은  
각각 다르게 자란다. 모두가 서울의 모습이면서  
그 가운데 좀 더 꾸준히 가꾸고 싶은 풍경이 있다.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



세종상회

느낌을 찍는 사진관  
필운동 사진관

'무질서한 간판=다이내믹 서울'이라는 클리셰

레이디 디올이 서울에서 길을 잃었다. 패션 브랜드 디올이 청담동 매장에서 가방을 테마로 한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사진작가 이완은 빨간 가방을 든 여성 모델을 '룸비 무료' '룸소주방'이라는 글자가 선명한 유희가에 세웠다. 사진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자 여성들은 격렬한 비난을 쏟아냈다. '유희가에서 번 돈으로 명품 백을 산 젊은 여자'라는 한국 여성에 대한 전형적 편견과 여성 혐오의 코드를 그대로 사진에 담았다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전시회 측은 슬그머니 작품을 내렸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의 재현인가, 작가가 다루어온 소비사회 비판의 연장선상인가의 문제는 제쳐두자. 저런 사회적 의미도 파악하지 못한 디올 측의 몰상식은 다른 사람들이 꼬집어주길 바란다. 내가 주목한 것은 모델이 아니라 배경이었다. 레이디 디올보다는 간판들에 눈이 먼저 갔다. 서울의 거리를 요란하고 무질서한 간판으로 상징한 작가의 구태의연함에 쓴웃음이 났다. 나의 재미교포 친구는 이 사진을 보자마자 SNS에 북미판 <올드보이> 포스터를 올렸다. 오대수와 미도는 '몽셀 통통' '바렌타인' 등 어지러운 네온 간판들 사이를 걸어가고 있다.

외국인의 눈에는 한국 거리에 넘쳐나는 간판이 꽤나 이국적인 풍경 같다. 전통적으로 '야시시한' 불빛을 걸어두는 흥등가만이 아니다. 명동, 신촌, 홍대 앞 어디에나 간판의 풍경은 요란하다. 행인들은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하는 가게들의 아우성속을 걸어야 한다. 일산이나 분당 같은 신도시의 상가 건물에는 거대한 건물 외벽을 온갖 간판이 콜라주처럼 뒤덮고 있다. 서울 외곽의 지하철역 주변 상가들은 똑같은 체인점 간판들을 '복사하고 붙이기' 해서 편집해놓았다.

인상적이라면, 비록 추하더라도 어떤 효과는 있는 법이다. 예술가들은 때론 그런 과도함을 어떤 문화로 전향시키기도 한다. 일본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1995)는 홍콩 거리의 잡다한 간판을 모델로 해서 기묘한 미래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냈

Flower & Tea room

서촌꽃다방

다. 설치미술가 최정화는 아르코미술관 벽면을 상업 플래카드로 뒤덮은 <아무나 아무거나 아무렇게나>(2004)라는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10년, 20년 전에는 인상적이었던, 철이 지나도 꽤나 지난 아이디이다.

### 공공의 경험인 간판, 그 공해와 통제

외국인이나 예술가가 아니라, 매일 그 거리를 오가는 생활인의 입장은 어떨까? 간판들의 공격에 매일 시달리다 보니 적당히 내성이 생겼을까? 유럽 여행을 갔을 때처럼, 눈에 띄이는 간판이 없어 가게를 찾을 수 없는 괴로움보다는 나은 걸까?

소규모 요식업의 창업과 폐업이 번갯불에 콩을 볶는다. 퇴직금에 대출을 끼고 학원 몇 달을 다닌 뒤 급히 가게를 열자니, 그 생김새에 대한 깊은 고민은 어렵다. 그러나 7080 스타일의 복고풍 주점, 만화책 벽화가 있는 맥주집, 박력 넘치는 손 글씨의 간판 등 체인 사업 본부에서 찍어내는 알은 유행을 가져온다. 때론 고급스러운 유럽풍 외관을 복제해보지만, 여기저기 튀려고 안달하는 가게들 사이에서는 맥을 못 춘다.

그런 와중에 요즘 눈에 띄이는 풍경이 있다. 기묘하고 요란스러운 간판의 일본식 선술집이 여기저기 들어서고 있다. 좋게 말하면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온천장 요리점 같다. 한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다층의 목조건물, 활짝 열린 나무 창 안으로 보이는 아련한 장식들... 일본의 소도시로 여행 온 듯한 기분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경성 어저고'라며 모던보이를 소환하는 간판이 당혹스럽다. 서울이 여전히 일본의 식민지로 남아 있다는 설정의 테마파크 같다. 국적도 불명이고 의미도 불명이다. 간판과 가게의 외관은 혼란스러운 한국 문화의 생살을 드러내는 것 같다.

종로를 중심으로 서울시에서도 간판 정비 사업을 꾸준히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 초에도 주인 없는 간판, 위험한 간판을 정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렇게 정비된 거리에서는 과거

처럼 거대한 간판들의 공습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아기가 기하지만 비슷비슷한 글씨에 지루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디자인과 학생이 무료 한글 폰트 몇 개로 졸업작품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 같다. 물론 지방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 새마을운동식의 간판 정비사업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 모두가 요란한 간판을 거는 것은 아니다

얼마 전 동네의 가게 주인이 여행하는 동안 가게 뵈줄 사람을 찾았다. 그래서 재미 삼아 하루에 몇 시간씩 문을 열고 점장 놀이를 했다. 한옥을 개조한 작은 인쇄물 가게인데, 건물에 붙어 있는 간판이 없다. 문을 열어두었을 때만 접이식 나무 간판을 밖에 세워둔다. 그걸로 손님을 끌 수 있을까? 며칠 지나다 보니 깨달았다. 어차피 지나치다 들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입소문을 듣고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에겐 그 작은 표시로 충분한 것이다.

그리고 보니 요즘 작은 간판의 가게가 제법 늘어났다. 간판이 아주 작거나, 글씨가 없어 아이콘 같다. 아예 간판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주인이 허세 떠는 걸 싫어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아이트 같아 좋다고 해서, SNS 보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 필요 없어서... 이유는 다양하다. 어쨌든 그 가게가 자리 잡은 골목길은 아늑하다.

간판은 가게 주인과 손님만 보는 게 아니다. 거리를 오가는 모든 사람이 그 외관을 경험해야 한다. 즐겁고 흥분되는 간판들도 있다. 동대문이나 명동에서는 그런 간판들이 다이내믹한 서울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아우성에 동참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동네들도 있다.

언젠가 외국인들이 서울을 지금과는 사뭇 다른 이미지로 기억하게 되면 안 될까? 작고 예쁜 간판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거리, 단골들이 사랑하는 오래된 가게들이 가득한 곳. 그러면 그 앞에서 누가 어떤 가방을 들고 사진을 찍든지, 욕먹을 일은 없을 거다.

글  
이명석  
문화비평가 겸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여행의 즐거움과 인문학적 호기심을 결합한 <여행자의 로망백서> <지도는 지구보다 크다> <도시수집가> <모든 요일의 카페> 등의 저서가 있고, KBS 라디오 <신성원의 문화공간>, SBS 라디오 <책하고 놀자>에 고정 출연 중이다.



BARCELONA

Sherry & Beer



효자 베이커리



한국 교향악의 역사와 더 채워갈 것들

## 교향악의 봄에

일본은 서구 교향악의 절정기에 서양음악을 수용하면서 1900년대 무렵 서양음악 용어를 번역하고 음악 학교 설립과 오케스트라 결성을 활발히 했다. 공공장소에서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연주하는 교향악이 공동체의 이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한국 역시 교향악의 발전에 노력했는데, 한편으로는 아직도 교향악을 사명감의 대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무엇을 위한' 음악이 아닌, 우리의 특성과 아름다움을 지닌 음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으로 시작하는 ‘동무생각(思友)’은 이은상(1903~1982)의 시에 박태준(1900~1986)이 곡을 붙인 초창기 우리 가곡으로, 도입부의 가사는 매년 봄 열리는 ‘교향악 축제’ 시기가 되면 자주 인용되곤 한다. 올해도 ‘스물여덟 번째 봄’이라는 주제로 지난 4월 전국의 19개 교향악단이 참여해 서울 예술의전당 무대에 올랐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에게 ‘봄의 교향악’ 이미지를 전해준 ‘동무생각’은, 한반도에 교향악이라는 서양음악 장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인 1925년에 창작된 노래다.



‘교향악(交響樂)’은 서양음악 용어 ‘심포니(Symphony)’의 한자어 번역으로, 일찍이 1880년대에 독일로 유학했던 메이지 시기 일본의 군의(軍醫)이자 문예가 모리 오가이(森鷗外, 1862~1922)가 옮긴 말이다. 서양음악 연주를 직접 들을 기회가 적었던 당시에는 먼저 번역 문헌을 통해 음악을 알게 되는 경우가 흔했다. 1888년 메이지 정부가 전문 음악가 양성을 목표로 도쿄음악학교를 개교한 이래, 서양 용어의 번역 작업은 더욱 활발해졌고 이렇게 만들어진 용어들은 음악보다 빠른 속도로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 널리 공유됐다.

### ‘공동체’의 이상과 밀접한 독일 교향악, 그리고 일본과 한국

일본 근대화 초기인 19세기 중후반 동시대 서구 음악계에서, 교향악은 독일어권을 중심으로 위상을 높여가며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오랜 기간 ‘신성로마제국’이라는 느슨한 연합 아래 수백 개의 서로 다른 지배 체제로 나뉘어 있던 이른바 ‘게르만인’은 통합된 국민 국가로서의 ‘독일’을 구체화해가는 과정에서 교향악을 중요한 매체로 여기게 되었다. 교향악은 공공장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청중을 대상으로 연주한다는 점에서, ‘공동체’ 실현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장르로 받아들여졌다. 1810년 독일 튀링겐 주에서는 최초의 교향악 축제가 열렸고, 이후 교향악 중심의 음악 축제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서구 교향악의 절정기에 서양음악을 수용한 동아시아에서 독일어권 교향악이 우위를 차지한 것은 필연적 흐름이었다. 일본에서는 1900년대 초부터 이미 주요 대학마다 아마추어 오케스트라가 설치되었고, 1910년대에는 아마다 고사쿠(山田耕筰, 1886~1965) 등 1세대 음악가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오케스트라 운동’을 통해 교향악단 결성 움직임이 빨라졌다. 1920년대 중반 일본 최초의 전문 오케스트라이자 NHK교향악단(N향)의 전신인 ‘신교향악단’의 설립을 이끈 고노에 히데마로(近衛秀麿, 1898~1973)는 학생 시절부터 베토벤 교향곡 지휘를 꿈꾸며 악보를 수집해 여러 차례 사보, 분석했다는 일화도 남아 있다.

N향의 수석지휘자 파보 예르비(Paavo Järvi, 1962~)는 작년 연말 한 인터뷰에서 “N향은 독일 음악 연주의 전통을 갖고 있는 훌륭한 오케스트라”라고 말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교향악단을 가리켜 독일

의 연주 전통을 언급하다니 얼핏 모순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독일의 작품을 모범으로 삼았던 일본의 서양음악 수용 역사와 아울러 N향이 당초부터 추구해온 독일 교향악 계승이라는 방향성을 감안하면 적절한 찬사에 해당하는 셈이다.

서양음악 수용 초기 한반도에서도 교향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홍난파(1898~1941)는 “경성에서도 하루바삐 교향악단 창설 운동이 일어나기를”(《동아일보》, 1939년 3월 30일) 바랐으며, 프로 오케스트라가 없는 당시 상황을 “문화도시인 경성 시민의 치욕”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음악 평론가 김관(1910~1946)은 ‘교향악단의 대망(待望)’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교향악은 가장 복잡한 사회조직을 가진 국가 형태에 비교할 수 있다”(《매일신보》, 1939년 4월 23일)라고 썼는데, 그야말로 교향악을 공동체 구현으로 여긴 19세기 독일 정서의 영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지금 ‘한국의 교향악’은 무엇일까

교향악단을 향한 초창기 음악인들의 염원이 무색할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쟁쟁한 연주자들로 구성된 크고 작은 교향악단이 다수 활동하고 있다. 서구화 정책을 추진하던 동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그렇듯,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교향악단의 관리와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매년 교향악 축제에 참여하는 교향악단만 보아도 몇몇을 제외하면 대체로 ‘시립’ ‘도립’ ‘구립’ 형태로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이들 교향악단에는 해당 지역의 대표 또는 더 나아가 대한민국 대표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기도 하고, 협연하는 연주자나 지휘자 중에는 서양에서 활약하며 ‘한국을 빛낸’ 경력을 부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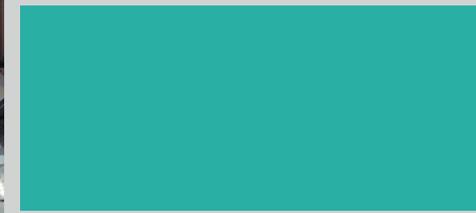
서구 교향악의 역사가 공동체 이념 표현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전개되어온 맥락을 고려하면, 우리 사회가 서양음악 연주자나 단체에 부여하는 ‘국가대표’ 성이 마냥 엉뚱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음악 인구가 늘고 음악계의 저변이 확대되는 데 비해, 아직도 근대화 시기처럼 교향악을 당위성이나 사명감의 대상으로 대하는 경향이 짙은 것도 부정하기 어렵다. 스물여덟 번째 ‘봄의 교향악’이 마무리된 시점에, 이제는 지난날과 같은 교향악의 양적 성장이나 성과주의를 따르기보다는, 한국에서 교향악이 갖춰야 할 본질적 의미와 역할을 논의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면 좋을 듯하다.



1, 2, 3  
2016 교향악축제가 지난 4월(4. 1~22)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됐다. ‘스물여덟 번째 봄’이라는 부제로 전국의 19개 교향악단이 참여했다. 사진은 KBS교향악단(지휘 요엘 레비·협연 피아노 백혜선, 사진1, 2)과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지휘 임현정·협연 클라리넷 김현곤, 사진3)의 공연 장면.

글  
장윤선  
대학과 대학원에서 음악사를 전공하고 ‘근대 일본의 서양음악 수용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라디오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다.

사진 제공  
예술의전당



1

송실대학교 학생회관

## 누구든 만나고 어디로든 통하는 '열린 미로'

5월, 중간고사를 끝낸 대학 캠퍼스는 축제의 열기로 달아오른다. 시험기간에 도서관의 불빛이 늦게까지 유난히 밝았다면 이맘때쯤 가장 불 밝고 시끌벅적한 곳은 학생회관이다. 동아리방과 휴게시설이 모여 있는 학생회관은 대학교에서 가장 활기가 넘치는 곳이다. 2011년 새롭게 준공된 송실대학교 학생회관은 이동과 만남이 잦고 누구든 편안하게 오가는 학생회관의 특성을 살리고 경사가 심한 지형적 특성을 극복해 학생들의 보금자리로 자리 잡았다.

### 급격한 단차와 빈번한 '만남'의 의미를 살린 공간

송실대학교 학생회관은 참 묘하다. 캠퍼스 정문에서 보면 고작 해야 2층짜리 건물로 보이지만, 정문 쪽 입구로 들어서면 이미 4층이다. 뒤쪽 운동장 쪽으로 3개 층이나 더 내려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대부분 경사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앞쪽에 운동장을 두고 경사지를 깎아 관중석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송실대의 경우 캠퍼스 입구 쪽이 높아 운동장이 뒤쪽에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캠퍼스 입구 쪽과 운동장은 무려 12m 이상 단차가 생기는데, 학생회관은 절묘하게 그 사이에 자리 잡아, 학생들의 휴식 공간뿐 아니라 운동 경기를 바라볼 수 있는 관중석의 역할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쪽 입구가 4층이라면 저쪽 입구는 5층이라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반대쪽으로 걸으면 어느새 3층에서 있게 된다. 별도의 계단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중정을 끼고 돌면 널찍한 카페테리아가 눈앞에 펼쳐지는데, 잠시 머물러 있을라치면 카페테리아의 기울어진 천장은 나를 다시 한쪽으로 밀어내고, 경사로를 타고 내려가면 교직원 식당과 카페에 도달하게 된다. 그것도 잠시 밖에서 비추는 환한 빛은 또



다른 공간으로 이끌려, 어느새 시원하게 운동장이 보이는 야외 테라스에 도착하게 된다. 나무 데크가 깔려 있는 이곳엔 잠시 휴식을 찾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 있고, 다시 뒤쪽 교육관과 벤처중소기업센터로 길이 이어진다.

건물 안으로 들어와 이번에는 교직원 식당·카페를 왼쪽에 끼고 돌아가면, 갑자기 거대한 웅벽이 고대의 성곽처럼 버티고 서 있는 골짜기같이 깊은 중정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기존 캠퍼스와 운동장의 단차가 얼마나 심한지 가능해볼 수 있다. 이렇게 건물이 경사지에 박혀 있지 않고 살짝 물려서 있는 것은 내부에 빛을 들이기 위함인데, 일일이 굽어내 만들어진 거친 표면은 위쪽에서 쏟아지는 햇볕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 또한 덩굴 식물들이 감아 올라갈 수 많은 줄은 지나가는 바람에 거대한 하프처럼 묘한 울림을 만들어내고, 누군가 줄 사이사이 걸어놓은 빨래들은 심지어 깃발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다시 건물로 들어와 왼쪽 입구로 들어가면 어느새 동아리 방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긴 공간이 나온다. 위쪽으로 갈수록 투명해지는 유리벽을 통해 빛이 가득한 동아리 방 내부가 어렵듯이 보인다. 물론 아예 볼 수 없게 신문지로 유리벽을 모두 가린 방도

있지만, 반투명한 유리벽은 가운데 복도를 빛으로 가득 채우고, 학생들은 동아리방에 들어가고 나가면서 끊임없이 서로 만나고 또 이야기하게 된다.

### 어쩌면 강의실에서보다 많은 꿈을 꾸는 곳

건물을 빠져나와 운동장 끝에 서서 건물을 사진에 담아보려 하지만 만만치 않다. 건물이 주변 건물에 묻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송실대 학생회관의 건축가 최문규는 인사동 쌈지길의 건축가이기도 하다. 쌈지길의 경사로를 따라 걸어 올라가면,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골목길을 걸어 올라가는 느낌인 것처럼, 송실대 학생회관도 하나의 건물이기보다는 캠퍼스를 연결하는 골목길에 가깝다.

다시 건물로 들어와 위층의 또 다른 동아리 방들을 지나치면, 오른쪽의 거대한 웅벽을 넘어가는 다리들이 또 다른 입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다. 곳곳에 테라스가 있고, 곳곳에 입구가 있다. 학생들은 끊임없이 나가고 들어가며 수많은 만남이 이루어진다. 공간을 점유하는 사람은 없고, 끊임없이 다양한 사람의 만남만 있다. 입구도 많고, 사람도 많고, 어떻게 보면 참 관리하기 어려운 건물이다.

캠퍼스에는 관리하기 편한 건물이 몇 개 있다. 보통 교수 연구실이 있는 건물이거나 본부 건물일 확률이 높다. 솔직히 학생 시절에 교수 연구실이나 본부 건물을 찾아간 기억이 없다. 건물의 형태도 종종 권위적이었지만, 공간의 기능도 명쾌해서 특별히 용무가 있지 않는 한 갈 필요가 없는 공간이었다. 또한 강의실에서 배운 것도 기억에 남는 것이 별로 없다. 심지어 그 수업을 들었다는 것을 나중에 오래된 교과서를 보고서야 알고 쓴웃음을 지은 적도 있다. 오히려 지금도 기억에 남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선후배와 같이 어울리면서 몸으로 체득한 것들이고, 학생회관도 그런 공간 중 하나였다. 특별히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열린 공간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만나고, 자유롭게 생각하면서, 나만의 꿈을 키워갈 수 있다. 누군가 정해지지 않는 그런 꿈 말이다.

프랑스 철학자 들뢰즈는 <의미의 논리(The Logic of Sense, 1990)>에서, 진정한 의미의 생성은 다양한 관계가 끊임없이 만나는 '사건의 평면'에서 만들어진다고 한다. 어떤 초월적인 권위를 강요하지 않고, 특정한 프로그램을 강요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다. 바로 이런 곳에서 진정한 대학의 모습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진우

1 많은 출입구와 계단 등 연결 통로로 각 층과 공간이 이어진 송실대학교 학생회관의 내부.

2, 3 정문에서 학생회관의 입구(사진2)를 바라보면 2층짜리 건물로 보이지만 뒤편 운동장쪽(사진3)과의 단차가 12m나 돼 독특한 구조와 특유의 경사로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글 조한  
현재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교수이며 한디자인(HAHN Design) 대표로 건축·철학·영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시간·공간'에 관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서울, 공간의 기억 기억의 공간: 건축가 조한의 서울탐구> (돌베개, 2013)가 있다.

사진 제공 송실대학교



**등장인물** 경찰, 박사, 후배경찰, 정운, 취객, 복면  
**무대** 오른쪽에 테이블, 그리고 의자 두 개.

*불이 켜지면 의자에 경찰과 박사가 앉아 있다.*

**경찰** 학생 흡연율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낮출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박사** 경찰서에서 담배를 팔면 됩니다.

**경찰** 학생 음주율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또 어떻게 낮춰야 할까요?

**박사** 경찰서에서 술을 팔면 됩니다.

**경찰** 잠깐! 그러면 고깃집의 술은 어떻게 하란 소리지? 담배는 몰라도 술을 파는 곳은 편의점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박사** 경찰서에서 고기도 팔면 되죠. 돼지고기를 경찰서에서 파는 겁니다. 동시에 술도 팔고. 그러면 애들이 절대 술을 못 뚫겠죠.

**경찰** (객석을 바라보며) 그래서 경찰서를 고깃집으로 위장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죠.

*경찰과 박사, 일어난다. 웃으면서 앞치마를 두른다. 문이 열리고 후배 경찰과 정운이 들어온다.*

**경찰, 박사** 어서오세요!

**후배경찰** 선배님! 이 중딩 꼬맹이가 겁도 없이 뒷골목에서 담배를 파우고 있길래 잡아왔습니다!

**박사** 그러면 이제 이놈을 어떻게 하면 되지?

**후배경찰** 교육법상으로는 우선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전화를 한 후에 보호관찰소로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 좋아! 녀석 부모에게 어서 전화를 걸자고 하하!

*문이 열리고 취객이 들어온다.*

**경찰, 후배경찰, 박사** 어서오세요!

**취객** 삼겹살 1인분!랑 소주 2병만 주세요.

**경찰** 네. (후배경찰을 쳐다본다)

**후배경찰** 제가가요?

**경찰** 그럼 내가가나? 네가 후밴데?

**후배경찰** 빌어먹을 계급사회. (무대 뒤편으로 사라진다)

**경찰** 자, 우리는 하던 일을 마저 합시다. 아, 엄마 번호 말해.

**박사** 잠깐!

**경찰** 응?

**박사** 이보게 경찰. 우리가 마침 학생들의 일탈행위, 즉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 고깃집을 차린 거 아닌가. 이 녀석을 취조하면서 그 해결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자고!

**경찰** 예리하군요. 역시 박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들었지, 이 골초 꼬맹아. 그러면 일단 음, 뭐 먼저 물어보는 게 좋을까. 그래. 일단 너 몇 살이야.

**정운**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경찰** 닥쳐. 묵비권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아니야. 박 경찰! 이 녀석 지갑 취조해.

**후배경찰** (무대 뒤에서 불판을 들고 등장한다) 고기 좀 나르고요.

**경찰** 인정한다. 언제나 손님이 왕이야.

*후배경찰, 취객의 식탁에 고기와 소주를 세팅한 다음 자리로 돌아온다.*

**경찰** (정운에게 샅대질하며) 이봐, 어떻게 하면 너 같은 놈들이 줄어들... 아니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 몰라도 한대, 이상한 말 두대, 대드는 말 석대, 묵비권 녀대. 자시간은 딱 10초 주겠다. 10, 8, 6, 4...

**취객** 여기 소주 한 병 더 줘.

**경찰**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취객** (소주병을 던지며) 지금 당장 소주 가져오라고!

*취객이 흐느끼며 소주병을 던진다. 모두 멀뚱히 그를 쳐다본다.*

**경찰** 어쩔거나...

**정운** 지금 고기 시킬게요.

**경찰** 응?

**정운** 고기 1인분만 가져다 주세요. 아까 손님이 왕이라면서요. 지금은 배가 고프니까 고기를 먹고 대답하든지 말든지 할게요.

**박사** 너 응용력이 참 대단하구나? 사회탐구 만점이니?

**취객** 에라이 시발, 개같은 세상!

**경찰** 이봐요 아저씨. 조용히 좀 합시다. 세상 혼자 사시우?

**취객** 뭐, 시발 놈들아. 니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경찰** 이게 보자보자 하니까. 고기 가져다 줬잖아 새끼야!

**취객** 뭐라고? 새끼? 너 방금 나한테 욕했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들어. 너, 기다려, 두고봐.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낸다, 고깃집에 전화벨이 울린다. 경찰이 받는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기, 무슨 정 의로운 고깃집인가로, 빨리 와주세요.

**경찰** (남자 앞에 서서) 안녕하세요?

**남자** 오, 벌써 왔네. 역시 대한민국 경찰 좋아.



**경찰** 이자식 묶어.

**후배경찰**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선배님, 이분은 범죄자이기 이전에 손님인데요? 손님을 괴롭히면 영업법상 3개월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10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 이건 경찰 신분으로 하는 일이잖아!

**후배경찰** 저는 지금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데요?

**취객** 이런 개 같은 새끼들. 경찰들도 다 썩었어.

**경찰** 이 새끼가 보자보자 하니까, 우리가 이빨이나? 어? 고기 잘 먹고 술 잘 먹고 난동을 부리고 있어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가. 박 경찰! 이 새끼 어서 묶으라니까!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경찰** 아이 씨바 또 누구야. 영업 끝났어요!

**복면** (총을 들고 등장하며) 영업은 다시 시작했다.

경찰, 박사, 정운, 후배경찰, 깜짝 놀라서 손을 들고 벽에 붙는다. 취객은 소주를 마신다.

**박사** 에이씨, 그냥 평범하게 살걸. 오픈 첫날부터 이게 뭐야.

**경찰** 선생님, 여긴 은행이 아니에요. 번지수 잘못 찾으신 거 같은데 못 볼 척해줄 테니까 그냥 가세요.

**복면** 이거도 물총이 아니다. 죽기 싫으면 고기 담아라.

**후배경찰** 고기를 담으라고요?

**박사** 왜요?

**복면** 돈을 훔치는 건 나쁜 짓이니까 하지 않는다.

**경찰** 새로 오픈한 고깃집 거덜내려 온 거면서 정의로운 척하지 마요.

**복면** (사이) 나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지. 고기나 썰는 놈들이지만 최소한의 교양은 있을 거라 믿는다. 페리 로시라는 작가가 쓴 <쓸모없는 노력의 박물관>이라는 소설이 있다. 집에 가서 읽어보라. 결국 삶을 쓸모없는 것들로부터 지탱받는다고, 나는 해석했지. 돈이나 고기, 명예, 전부 쓸모없는...

**정운** 그러니까 결국엔 고기 담으라는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 돌려 말해요.

**복면** 한때는 쓸모 있는 모든 것을 탐닉했다. 물질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는 삶. 하지만 산다는 게 녹록지만은 않더라.

**복면** 지금 이곳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너무도 한심하다. 하지만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 나를 이해해주길 바란다. 현실은 흥해도 인간은 아름다운 거다.

**경찰** 아 씨바 그래서 담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복면, 천장에 총을 발사한다. 경찰, 박사, 후배경찰, 정운.

열심히 고기를 담는다. 복면은 팔짱을 끼고 묵묵히 바라본다.

**취객** 술 더 가져와... 술... 개 같은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경찰** 이봐요 아저씨, 조용히 좀 합시다.

**박사** 지금 고기 다 털리는 거 안 보이시요? 기분 안 좋거든요?

**취객** 으... 싹 다가져가는 세상... 더러운 세상...

**정운** 아, 진짜. 조용히 좀 해요! 아저씨가 담을래요?

**남자**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나 어제도 우울했는데...

**복면** 항정살은 안 담아도 돼.

**후배경찰** 고맙습니다!

**경찰** 미친놈아. 고맙냐?

**남자** 내 얘기를 들어줘! (소리 지르면서 굵고 있던 고기를 강도의 얼굴에 던진다)

**강도** 으악!

멍하니 서 있는 경찰, 박사, 후배경찰, 정운.

**경찰** 이때대!

경찰, 박사, 후배경찰, 정운.

"에잇!"을 연발하며 쓰러진 복면을 밟는다.

복면이 꿈틀거리자 다시 "에잇!"을 연발하면서 밟는다.

**후배경찰** 기... 기절했는데 어떻게 하죠?

**경찰** 몰... 몰라 일단 문제가 일어났으면 숨겨야지. 다들 그렇게 하니까.

**정운** 저 집에 가도 돼요?

경찰들, 정운의 말을 무시하고 자루에 복면을 담기 시작.

그때 박사가 취객에게 가서 손을 내민다.

**박사** 당신이 우리를 구했소.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흡연, 음주율을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소. 생각해보면 이건 학생들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 있는 듯하군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알고 계신가요?

남자 (긴 침묵 후에) 그럼 일단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 작가소개

<경찰의 고깃집>을 쓴 류연웅 작가는 극한의 외환위기를 겪으며, 우리나라 기업이 줄줄이 도산하고 중산층이 무너지던 어두운 시대에 태어난 'IMF둥이'다. 아침이면 풀 냄새 나는 인천의 가정동에서 자랐으며, 일곱 살 때부터 힙합 음악을 듣기 시작했다. 인생을 바꾼 노래는 에픽하이의 'remember'. 그리하여 인간의 심오함과 세상의 이치만큼이나 라임의 법칙과 국어의 창조적 파괴 또한 중요한 현대를 살고 있다.

2013년 국립극단 예술가 창작벨트에 뮤지컬 <북치기 바치기>가 당선되면서 극작을 시작했으며, 전교 1등부터 5등까지에게만 점심시간마다 팝콘을 튀겨주는 교장에게 분노한 학생들이 팝콘 기계를 사서 파이프를 연결하고 팝콘 총알로 세계를 정복하는 소설 <팝콘 전쟁>으로 대산청소년문학상 금상을 수상했다. 글쓰기란, '잘 살자'는 얘기를 재밌게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류연웅 작가는 독자와 관객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소설과 희곡을 향해 '열심히 가고' 있다. 10분 희곡 릴레이 역사상 최초로 10대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게 돼 영광이다. 문천(文天) 류연웅 작가가 보여줄 22세기적 '문장'에 다들 동참하시라!

소개글 정진세 서울연극센터 웹진 <연극인> 편집위원

<10분 희곡 릴레이>는 젊은 작가 혹은 지망생들의 재기발랄한 10분 단막극입니다. 서울연극센터 웹진 연극인에게 가시면 더 많은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webzine.e-stc.or.kr)





**남산예술센터 2016 시즌프로그램**  
**연극 <햇빛사위>**

2015년 초연 당시 굵직한 연극상을 휩쓸며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호평 받은 연극 <햇빛사위>가 올해도 관객을 찾아온다. 차범석 희곡상과 한국연극 베스트7에 빛나는 장우재 작·연출의 극단 이와삼 작품으로 순수 청년 '동교'와 그의 집 반지하 셋방에 사는 백화점 직원 '광자'를 통해 비틀린 삶과 가난한 자들의 모습을 덩덤하게 그려냈다.

**일시** 5월 17일(화)~6월 5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관람료** 전석 3만 원 \*만 16세 이상

**문의** nsartscenter.or.kr 02-758-2150



- 시민청·시청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거리예술 창작센터
- 관악어린이 창작놀이터
- 서교예술실험센터
- 문래예술공장
- 서울예술치유허브
- 금천예술공장
- 연희문화창작촌
- 잠실창작스튜디오
- 신당창작아카데미
- 남산예술센터
- 창작지원팀 제휴협력실
- 문화자원기증센터
- 공공예술센터 축제지원센터
- 문화나눔팀
- 예술교육팀
- 서울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 기타 문화행사 추천

MON

- 2
- 서울댄스프로젝트 '청년참×춤'모집(~5.20)
  - 극단글로브 <더 퍼펙트라이브>(~6.19)
  - <2016 서울대학교 관악합주 연주회>
  - 전시 <용의 비늘 2016>
  - 2016 세종페스티벌 <봄소풍>

- 9
- 서울프린지페스티벌 2016 봄-올모스트프린지(~5.11)
  - 비기너스프로젝트(예술지원) 접수(~5.20)
  - 임동진 모노드라마 <그리워 그리워>(~6.25)
  - 비루투오조 트롬본 앙상블 제7회 정기연주회
  - 경복궁 야간개장(~6.2)

- 16
- PLAY-UP 아카데미 <되어지는 말>(~5.19)
  - 이화여대 창립 131주년 기념공연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5.17)

- 23
- 서커스 전문기양성과정 Jumping UP\_공중극예
  - 제6회 대한민국발레축제-해의콩쿠르 수상자 초청공연

- 30
- 유지현 귀국 피아노 독주회
  - 베이스 김민기 초청 독창회

TUE

- 3
- 연극 <리스크>(~5.10)
  - 연극 <핑키와 그랑쵸>(~5.15)
  - SEMA <예술가의 런치박스>
  - MMCA <에코시스템: 질 바비에>(~7.31)
  - 정동극장 <건축의 길-봄>(~5.14)

- 10
- <보이스테라피프로젝트II> 모집(~5.28)
  - 연극 <연극 Q>(~7.3)
  - 코리아안심포니 196회 정기연주회
  - 코리아안 챔버 오케스트라 트로이카 콘서트 시리즈 9

- 17
- 남산예술센터 2016 시즌프로그램 <햇빛사위>(~6.5)
  - 연극 <레알 솔루트>(~6.12)
  - 오페라 마티네 <운명의 힘>
  - 2016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5.29)

- 24
- 가곡과 아리아의 밤(~5.27)
  - 합창음악회 <우리동요 세계절>(~5.25)
  - 연극 <인터넷 이즈 세리어스 비즈니스>(6.25)

- 31
- 2016 서울예술단 <국경의 남쪽>(~6.12)

WED

- 4
- 고애리 <어떤사람>전(~5.20)
  - 씨-페스티벌(~5.8)
  - 오페라 <사랑의 묘약>(~5.8)
  - 국립창극단 <변강쇠 점 찍고 웅녀>(~5.22)
  - 국립국악원 <5월 수요일콘서트>
  -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 연극 <위는 봄 위에 나는 봄>(~5.29)

- 11
- 가정의 달 기념 <사랑의 노래>
  - KT챔버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 바이올리니스트 피호영 리사이틀

- 18
-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 25
- MMCA <한국현대미술작가시리즈 김봉태>(~7.10)
  - MMCA 과천관 30주년 기념전 <무릎을 꿇고 턱으로 빠지는 노래-김소라 프로젝트>(~7.10)
  - MAC <천원의 문화공간>

THU

5

- 어린이날 기념행사
- 2016 안산국제거리극축제(~5.8)
- 연극 <장수상회>(~5.29)
- 세종페스티벌
- 2016 혜화동1번지 6기동인 볼페스티벌 <문제 없는 인생>(~5.15)
- SAC <크레디타 어린이날 음악회: 더 쿨 온 아이스>
- SAC <동요콘서트>(~5.8)

12

- 연극 <당신의 손>(~5.22)
- 한화생명과 함께하는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
- 막심트라비차, 박완 클래식컬 콘서트
- <세 도시 이야기 '파리'> - 유 + 김 Piano Duo

19

- <국립극장 믹스&초이스>
- 국립극단 청소년극 릴-레이 <고등어>(~5.29)
- 2016 혜화동1번지 6기동인 볼페스티벌- <봄은 숲에서 사는 것, 도시에는 오지 않네>(~5.29)

26

- 조재혁의 음악상자
- 2016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 - 선우예권 Piano

FRI

6

- 서울댄스프로젝트 춤단 4기 모집(~6.6)
- 예술로놀이터 <풀색업지 특공대>
- 남산국악당 <예인, 한옥에 들다>(~6.10)
- 재즈인 서울(~5.8)
- 제4회 부안 마실축제(~5.8)
- 제7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한국오페라단 <리날도>(~5.8)

13

- 국립현대무용단 <공일차원>(~5.15)
- 유니버설발레단 <심청>(~5.14)
- 제6회 대한민국발레축제 <국립발레단 스페셜 갈라>

20

- 서울장미축제(~5.22)

27

- 정동야행(~5.28)
- 파이프로간시리즈X <5대륙, 5인의 오르가니스트>
- 2016 국립국악원 안숙선 명창과 함께하는 작은창극 '심청아'(~6.29)

SAT

7

- 거리예술 시즌제-선유도(~5.8)
- 2016 지구촌 나눔 한마당(~5.8)
- 미래를 여는 클래식(~5.8)
- 세종 예술시장 '소소'
- 신세계와 함께하는 2016 예술의전당 <토요콘서트>
-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6.25)
- 청춘페스티벌 2016(~5.8)

14

- 거리예술 시즌제-서울숲(~5.15)
- 한마음살림장(~5.15)
- 시장에 간 서커스 공연(~6.5)
- 한강 서래섬 유채꽃 축제(~5.15)
- 국악이야기콘서트 <세종음악기행>

21

- 거리예술 시즌제-어린이대공원(~5.22)
- 서커스예술교육아카데미: 저글링
- 한강 필레나라 축제
- 한강 청보리밭 축제(~5.22)
- 비틀즈 뮤키러 <렛잇비>
- 어린이를 위한 WOW 클래식 앙상블

28

- 거리예술 시즌제-DDP(~5.29)
- 서커스예술교육아카데미: 아크로바틱
- 토요일은 청이좋아
- <어른·아이·서울>展(~6.12)
- 한마음살림장(~5.29)
- 김수환, 방지영 2인展(~6.2)
- 박정량 <내 마음의 우화(寓話)>전(~6.11)
- 국립극장 완창판소리 <김금미의 수궁가\_유성준제>

SUN

1

- 박물관도시 서울 프로젝트 <서울을 모아줘>(~12.31)
- <모네, 빛을 그리다>intro展(~6.30)
- <숨쉬는 안전한 서울>展(~6.30)
- <연희문화학교> 모집(~5.10)
- <연극으로 만드는 행복서울> 모집(~5.11)
- <복숭아 꽃이 피었습니다>(~6.26)
- 김광석을 보다展; 만나다·들다·그리다(~6.26)

8

- 극단차이무 <원파인데이>
- 창작재음공방 <업사이클링아트-골판지 연필꽃이 만들기>(~5.28)
- 윤소영 리사이틀 <4명의 아티스트가 풀어내는 브람스>
- 청춘페스티벌 <청춘영화제>(~5.9)
- 계절성 기본장에 극복 프로젝트 stage.4

15

- 서울시 대표 비보이(B-boy)존

22

- 실내악 시리즈 I <마지막의 세계로 여행>

29

- 전시 <네모 눈>

**01**  
SUN



**박물관도시 서울 프로젝트 <서울을 모아줘>**

시민의 일상에서 사용되던 물건이 모여 서울의 작은 박물관이 만들어집니다! 사회·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뛰어난 생활유산을 기록하고자 하는 이번 캠페인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12월 31일(토)  
**참여방법**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클릭 후 '캠페인 참여 페이지' 카테고리 등록  
**문의** fb.com/museumseoul 02-3290-7192~4



**전시 <숨쉬는 안전한 서울>**

서울의 안전과 환경정책,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서울을 담아낸 전시다. 시민이 직접 촬영한 서울의 사진과 미래의 서울을 만들어보는 블록체험 등 다양한 서울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일시** ~6월 30일(목) 오전 9시~오후 9시  
**장소** 서울시청 지하1층 시민청 시터갤러리  
**관람료** 무료  
**문의** seoulcitizenshall.kr 02-739-9922



**<모네, 빛을 그리다> Intro展**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의 작품이 미디어와 만나 새롭게 태어났다. 클로드 모네가 웅장하게 그려낸 자연의 풍경으로 건조하고 숨 가쁜 일상 속, 잠시나마 휴식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일시** ~6월 30일(목) 오전 9시~오후 9시  
**장소** 서울시청 지하1층 시민청 소리갤러리  
**관람료** 무료  
**문의** seoulcitizenshall.kr 02-739-5811



**PROJECT 284 <복숭아 꽃이 피었습니다>**

7개국 27팀으로 구성된 융복합 예술프로젝트. 가브리엘 프로코피에프, 강소영릴릴, 국형걸 등 다양한 작가들의 공연, 전시와 토크쇼, 워크숍 등을 만나고 유명인들이 추천한 영화도 관람할 수 있다.

**일시** ~6월 26일(일) 오전 10시~오후 7시  
**장소** 문화역서울 284 전관  
**관람료** 무료  
**문의** seoul284.org 02-3407-3500



**국립현대미술관 <망상지구 The Paranoid Zone>전**

미술, 영화, 음악, 공연, 조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협업 프로젝트 전시. 현실과 망상의 경계에 놓인 동시대적 상황에 대한 은유를 4개의 존(zone)으로 보여준다. 5월 11일(수), 28일(토)에는 퍼포먼스로도 만날 수 있다.

**일시** ~7월 17일(일)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관람료** 무료  
**문의** mmca.go.kr 02-3701-9500



**<김광석을보다展: 만나다·듣다·그리다>**

수많은 명곡을 남긴 가수 김광석에 대한 음악전시. 고인을 추억하고 기억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김광석이 공연할 당시 사용했던 자필 악보, 일기 등 300여 점의 유품을 만날 수 있다.

**일시** ~6월 26일(일) 오전 11시~오후 8시  
**장소**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B1갤러리  
**관람료** 성인 1만 2천 원, 중고생 1만 원, 유아·초등생 8천 원  
**문의** hongikartcenter.com 02-837-6611

**02**  
MON



**극단 글로벌극장 <더 퍼펙트 라이프>**

'카르페 디엠'이라는 명대사를 낳은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Dead Poets Society)>를 떠오르게 하는 극단 글로벌극장의 2016년 신작이다. '카르페 디엠'을 외치는 연극반지도교사와 아이들의 성장기를 담아낸다. 김용을 연출.

**일시** 오픈런 화~금 오후 3시, 토 오후 8시  
\*5월 5일, 5월 14일, 일·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대학로 한성아트홀  
**관람료** 일반석 3만 원  
**문의** 1566-5588

**서울댄스프로젝트 '청년춤×춤'모집**

춤 사랑하는 서울시민 3인 이상(만 39세 이하)으로 구성된 커뮤니티를 모집하며, 춤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년 커뮤니티의 활동을 지원한다.

**모집** 5월 2일(월)~20일(금) 온라인 지원  
**문의** seouldance.or.kr 02-3290-7174

**03**  
TUE

**정동극장 돌담길프로젝트: 건축의 길-봄**

길 위에 펼쳐진 사람의 공간, 건축 안에서 옛 시간과 지금의 이야기를 선보이는 돌담길 축제다. '사람을 담다', '시간을 잇다', '라디오를 켜다' 등의 주제로 다양한 공연을 만날 수 있다.

**일시** 5월 3일(화)~14일(토) 평일 오후 12시~7시, 공휴일 및 토요일 오후 2시~6시 \*일요일 공연 없음  
**장소** 정동극장 야외마당  
**문의** jeongdong.or.kr 02-751-1500



**04**  
WED

**전시 <어떤사람>**

빠르게 돌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거나 돌아볼 시간을 갖지 않는 현대인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런던 속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는 질문을 던진다. 작가 고애리.

**일시** 5월 4일(수)~20일(금)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서울예술치유허브 갤러리 멧음  
**문의** sfac.or.kr 02-943-9300



**국립극단 <변강쇠 점 찍고 옹녀>**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판소리 '변강쇠타령'을 새롭게 해석했다. 스타 연출가 고선웅의 2014년 초연 이후, 매해 완성도를 높여가며 프랑스까지 사로잡은 창극의 매력에 빠져보자.

**일시** 5월 4일(수)~22일(일) 화·수·주말·공휴일 오후 3시, 목·금 오후 8시 \*5월 4일(수) 오후 8시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5천 원, A석 2만 원 \*만 18세 이상  
**문의** ntok.go.kr 02-2280-4114~6



**오페라 <사랑의 묘약>**

가정의 달을 맞이해 온 가족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오페라. 펠리체 로마니가 일주일 만에 대본을 완성하고 가에타노 도니제티가 곡을 붙여 탄생시킨 걸작으로 시골마을에서 벌어지는 사랑이야기를 오페라무대로 만나보자.

**일시** 5월 4일(수)~8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3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관람료** VIP석 12만 원, R석 8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B석 2만 원  
**문의** sejongpac.or.kr 02-399-1783~6

**국립현대미술관 <아주 공적인 아주 사적인: 1989년 이후, 한국현대미술과 사진>**

지난 30년간 한국 현대미술사 속 사진매체와 현대미술의 만남을 조망하는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이후 최대규모의 사진전시. 주명덕, 구본창, 배병우 등 약 50여명의 작가들이 참여했다.

**일시** 5월 4일(수)~7월 24일(일)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관람료** 4천 원  
**문의** mmca.go.kr 02-3701-9500

**05**  
THU

**시민청 어린이날 기념행사**

어린이날을 맞아해 어린이와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서울시청 지하1층 시민청에서 즐길 수 있다.

**일시** 5월 5일(목)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 서울시청 지하1층 시민청 시민플라자  
**관람료** 무료  
**문의** seoulcitizenshall.kr 02-739-5818

**2016 혜화동1번지 6기동인 불페스티벌-심시티 <문제 없는 인생>**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의 축제에서 선보이는 극단 창세의 연극.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기 위해서 현실적인 삶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현실과 사랑에 대해 이야기한다. 백석현 작. 연출.

**일시** 5월 5일(목)~15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일요일 공연 없음  
**장소**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070-8276-0917

**06**  
FRI

**서울댄스프로젝트 '춤단 4기' 모집**

서울댄스프로젝트의 주역으로 게릴라 춤판을 만들어갈 '시민 춤꾼 100명'을 선발한다. 2개월간의 춤 워크숍으로 몸의 감각, 삶의 기운을 깨워보자!

**모집** 5월 6일(금)~6월 6일(금) 온라인 지원  
**문의** sfac.or.kr 02-3290-7174



**서울남산국악당 <예인, 한옥에 들다>**

조선시대 풍류방에서 우리 음악을 즐기던 문화를 재현한 산조 공연이다. 박송희 명창, 지성자 명인, 안옥선 명인으로 구성된 시대의 명인 3인과 신진 예인 15인 산조의 향연을 만날 수 있다.

**일시** 5월 6일(금)~6월 10일(금) 매주 수·목·금 오후 8시  
**장소** 남산골한옥마을 민씨 가옥 안채  
**관람료** 오늘의 예인 5만 원, 내일의 예인 3만 원  
**문의** hanokmaeul.or.kr 02-2261-0500



**서울밤도깨비야시장@DDP**

밤에 반짝 열렸다가 아침이면 사라지는 도깨비 같은 시장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올해는 상설시장으로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매주 금, 토요일 밤마다 찾아올 예정이다. 5월 야시장은 청춘런웨이&댄싱나이트의 콘셉트로 만날 수 있다.

**일시** 5월 6일(금)~10월 매주 금·토요일 오후 7시~오전 12시  
**장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문의** bamdokkaebi.org 02-120

**2016 세종페스티벌 봄소풍 <재즈 인 서울>**

4월 30일부터 시작된 2016 세종페스티벌 봄소풍에서 재즈를 즐겨보자! 세종문화회관 뒤편 예인마당과 세종뜨락 등에서 진행되는 <재즈 인 서울>프로그램에서는 김반장, 김사월&김해원 등 국내 재즈 그룹과 엘스 카타레스, 미디 라비캐드 등 해외 재즈 아티스트의 공연을 만날 수 있다.

**일시** 5월 6일(금) 오후 12시~오후 9시 40분  
**장소** 세종문화회관 곳곳  
**관람료** 무료  
**문의** www.sejongpac.or.kr 02-399-1609



**2016 지구촌 나눔 한마당**

서울광장, 무교동 거리, 청계천로 일대에서 열리는 도심 속 최대 다문화 축제다. 해외 도시 초청 공연단의 공연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 풍물 등 지구촌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일시** 5월 7일(토)~8일(일)  
**장소** 서울광장, 무교동길, 서울시청, 청계천로  
**문의** seoulfriendshipfair.org 02-120



**거리예술 시즌제-선유도 공원**

'거리'에서 만나는 '예술'을 주제로 4월~6월 주말마다 도심 속 공원에서 진행되는 거리예술 공연 프로그램이다. 5월 선유도에서는 트러스트 무용단의 현대무용 <꿈꾸는 사람들-춤추는 돌>과 더더더의 팝업북 형식 인형극 <자전거 극장 모빌리베라> 등 6팀이 8회 공연한다.

**일시** 5월 7일(토)~8일(일) 오후 2시~6시  
**장소** 선유도 공원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290-7000



**세종예술시장 '소소'**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젊은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는 세종문화회관 예술정원. 독립출판물, 커뮤니티 아트 퍼포먼스, 사진, 회화, 공예 등 약 100팀이 여는 예술 장터를 다양한 공연과 함께 만날 수 있다.

**일시** 4월 16일(토)~6월 18일(토)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뒤편 예술의 정원  
**관람료** 무료  
**문의** sejongpac.or.kr 02-399-1077



**극단차이무 <원파인데이>**

올해 21주년을 맞이한 극단 차이무의 소동극. 개 한 마리에게 물린 한 아주머니로 시작해 소동이 일어나는 마을 이야기를 그리며 어쩌면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는 이야기를 따뜻하고 유쾌하게 풀어낸다.

**일시** 5월 8일(일) 오후 2시, 5시  
**장소** 코엑스 컨퍼런스홀  
**관람료** 전석 1만 원  
**문의** stageship.com 02-747-1028



**서울프린지페스티벌 2016 봄-올모스트프린지**

축제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도시에서 예술축제의 의미, 사회구조 속 예술가의 위치와 환경 등 예술 환경을 둘러싼 생태계 이슈를 다루는 기획포럼이다. 예술가들의 참여와 연대를 독려하고 축제의 주요 의제를 찾고자 한다.

**일시** 5월 9일(월)~11일(수) 오후 4시~10시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전 공간  
**문의** seoulfringe.net 02-325-8150



### 2016 서울문화재단 비기너스(Beginners)프로젝트 모집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진 예술가와 소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응원하기 위한 지원사업. 장르 구분 없이 예술가의 첫 단계를 지원하는 '최초예술 지원'과 흥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작은 예술 지원(소액다독)이 있다.

**모집일시** 5월 9일(월)~20일(금) 오후 4시까지  
**문의** sfac.or.kr 02-333-0246



### 국립현대무용단 <공일차원>

2016 국립현대무용단 대표 레퍼토리 레트로 사이언스 픽션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영화감독인 박찬경과 독특한 음악 세계를 펼치고 있는 장영규가 음악을 맡는 등 아날로그와 테크놀로지를 넘나드는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으로 0과 1의 가상세계를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일시** 5월 13일(금)~15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장소**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관람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의** sac.or.kr 02-3472-1420



### 코리안심포니 196회 정기연주회

한불수교 130주년을 기념, 한불상호 교류의 해를 맞아 프랑스 작곡가들의 대표 걸작으로 꼽히는 명곡을 한데 모았다. 프랑스 출신의 객원지휘자 로랑 프리지라와 첼리스트 양성원의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일시** 5월 10일(화) 오후 8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C석 1만원  
**문의** sac.or.kr 02-523-6258



### 거리예술 시즌제-서울숲

'거리'에서 만나는 '예술'을 주제로 4월~6월 주말마다 도심 속 공원에서 진행되는 거리예술 공연 프로그램이다. 5월 서울숲에서는 프로젝트 루미너스의 에어리얼 아트(서커스) <항해>와 코끼리들이 웃는다는 관객 참여형 공연 <놀이사용설명서> 등 5팀이 9회 공연한다.

**일시** 5월 14일(토)~15일(일) 오후 2시~7시  
**장소** 서울숲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290-7000



### 연극 <당신의 손>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가업이던 동네 슈퍼를 물려받아 2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40대 미혼 여성의, 수현의 이야기다. 배우이자 연출가인 남미정을 모티프로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일시** 5월 12일(목)~22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7시, 일 오후 3시  
\*화요일 공연 없음  
**장소** 대학로 연우소극장  
**관람료** 전석 2만5천 원



### 시장에 간 서커스 공연

시장에 서커스가 나타났다! 은평대림시장, 금천현대시장, 강북수유시장, 중곡제일시장 등 시장에 활기를 북돋워줄 서커스 공연이 펼쳐진다.

**일시** 5월 14일(토)~6월 5일(일)  
**장소** 은평대림시장, 금천현대시장, 강북수유시장, 중곡제일시장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437-0099



### 을지유람

을지로 골목골목에 숨겨진 이야기를 해설사와 함께 탐험하는 여행. 을지로의 특화거리를 돌며 송림수제화, 양미옥 등 을지로의 어제와 청년예술창작공간 등 을지로의 오늘을 들어보는 시간.

**일시**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을지로 3가 일대  
**참가비** 무료(\*체험프로그램 별도)  
**문의** junggu.seoul.kr 02-3396-5085



### 한마음살림장

시민예술가가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선보이고 공유하는 시민 소통 장터. 아끼자끼한 소품부터 다양한 체험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일시** 5월 14일(토)~15일(일), 28일(토)~29일(일) 오후 12시~오후 6시  
**장소** 서울시청 지하1층 시민청 시민플라자  
**문의** seoulcitizenshall.kr 02-739-5817

**15**  
SUN

**서울시 대표 비보이 존(B-boy Zone)**

비보이 배틀 전용 무대가 될 '서울시 대표 비보이 존(B-boy Zone)'을 알리는 공연이다. 2016년 서울시 대표 비보이(B-boy)단인 드리프터즈 크루의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보이 팀이 돌아가면서 춤을 추는 비보이 사이퍼(Cypher,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자유롭게 춤추는 행동)와 배틀을 관람할 수 있다.

**일시** 5월 15일(일) 오후 1시 30분  
**장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장충단로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290-7175

**18**  
WED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국악 브런치 콘서트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돌아왔다. 해금협주곡, 재즈보컬의 스캣이 어우러진 판소리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와 송혜진 교수의 해설로 한국음악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다.

**일시** 5월 18일(수) 오전 11시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R석 1만5천 원, S석 1만 원  
**문의** ntok.go.kr 02-2280-4114~6



**17**  
TUE

**남산예술센터 2016 시즌프로그램 <햇빛사위>**

2015년 초연 당시, 굵직한 연극상을 휩쓸며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연극. 순수 청년 '동교'와 그의 집 반지하 셋방에 사는 백화점 직원 '광자'를 통해 비틀린 삶과 가난한 자들의 모습을 덩덤하게 그려냈다. 극단외와삼 장우재 작·연출.

**일시** 5월 17일(화)~6월 5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관람료** 전석 3만 원 \*만 16세 이상  
**문의** nsartscenter.or.kr 02-758-2150



**19**  
THU

**<국립극장 믹스&초이스>**

다양한 장르를 섞고(믹스) 실력과 아티스트를 선정(초이스)해 국악과 타 장르의 협업을 시도하는 공연. 드러머 겸 크리에이터로 활약하는 남궁연이 무대 연출과 사회를 맡아 무대를 꾸민다. 이번 5월 공연에서는 가수 손승연이 판소리, 민요 등의 국악 레퍼토리를 색다르게 선보일 예정이다.

**일시** 5월 19일(목) 오후 8시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R석 3만 원, S석 2만 원  
**문의** ntok.go.kr 02-2280-4114~6



**2016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음악을 통한 우정"이라는 모토로 올해 11번째 서울의 봄을 맞이하는 클래식 축제다. 한불수교 130주년을 맞아 '프랑스의 향기'라는 주제로 프랑스 작곡가들의 음악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일시** 5월 17일(화)~29일(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금호아트홀, 윤보선 고택 등  
**관람료** 2~7만 원(\*고택 음악회 15만 원)  
**문의** seoulspring.org 02-720-3933

**2016 혜화동1번지 6기동인 봄페스티벌-심시티 <봄은 숲에서 사는 것, 도시에는 오지 않네>**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의 축제에서 선보이는 앤드 씨어터의 작품. 봄마저 빼앗겨버린 상실의 도시에서 봄, 구체화된 일상과 현실을 찾아 떠나는 도시기행 연극이다. 그리고 봄을 관객에게 선물하는 작업. 전유환 글쓰기·연출.

**일시** 5월 19일(목)~29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연극실험실 혜화동 1번지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070-8276-0917



**국립극단 청소년극 100-레이 연극 <고등어>**

두 소녀의 우정과 사랑, 성장 이야기를 놀이 형식의 스토리텔링 시어터로 담아냈다. 배소현 작가의 일기에서 출발한 이야기를 미래엔 연출이 섬세하게 표현해 속도감 있는 전개와 역동적인 무대가 관객마저 들썩이게 만든다.

**일시** 5월 19일(목)~29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3시  
\*화요일 공연 없음

**장소** 국립극단 소극장 판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ntck.go.kr 1644-2003

**서울시향 리허설룸 콘서트 I**

서울시향 리허설룸에서 진행되는 새로운 형식의 콘서트. 공연장에서 연주되는 음악회와 차이가 있는 실제 리허설을 음악회로 만날 수 있다. 조금은 색다른 콘서트를 최수열의 지휘로 만나보자.

**일시** 5월 19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시향 리허설룸 5층  
**관람료** 전석 1만 원  
**문의** seoulphil.or.kr 1588-1210

**21**  
SAT



**거리예술 시즌제-어린이대공원**

'거리'에서 만나는 '예술'을 주제로 4월~6월 주말마다 도심 속 공원에서 진행되는 거리예술 공연 프로그램이다. 5월 어린이대공원에서는 극단 사하따나의 무연극 <음악의 유령>과 배낭속사람들의 거리극 <WORK> 등 5팀이 7회 공연한다.

**일시** 5월 21일(토)~22일(일) 오후 2시~6시

**장소** 어린이대공원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290-7000

**22**  
SUN



**실내악 시리즈 I: 미지의 세계로 여행**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선사하는 실내악 시리즈. 체코 출신의 작곡가 드보르자크, 마르티누, 하스, 스메타나가 인생을 바꾸는 여행을 시작하던 시기의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서울시향 호른 부수석 미샤에마노브 스키 출연.

**일시** 5월 22일(일) 오후 3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관람료** R석 3만 원, A석 1만 원  
**문의** hanokmaeul.or.kr 02-3700-6365

**24**  
TUE

**남산골기 획공연 <다시 만드는 판의 소리>**

판소리에서 각 문파를 대표하는 소리꾼이 나와 판소리 릴레이를 펼치는 '판소리 문파전'과 다섯 개 대학에서 선발된 젊은 소리꾼들이 경합을 펼치는 '판소리 대학전'을 만날 수 있는 공연.

**일시** 판소리 문파전 5월 24일(화)  
판소리 대학전 5월 31일(화)

**장소** 남산골한옥마을 서울남산국악당  
**관람료** 전석 1만 원  
**문의** hanokmaeul.or.kr 02-2261-0500

**25**  
WED

**한국현대미술작가시리즈 김봉태**

한국현대미술작가시리즈 회화 부문에 선정된 김봉태 작가의 개인전이다. 미국 LA에 체류하며 판화 공방을 여는 등 다각적 활동을 했으며 기하학적 구성과 색면 작업으로 당시 한국 주류 미술계와는 또 다른 경향의 작업을 보여준다.

**일시** 5월 25일(수)~7월 10일(일)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제2전시실 중앙홀  
**관람료** 미정  
**문의** mmca.go.kr 02-2188-6000



**마포아트센터 <천원의 문화공감>**

‘아름다운 목소리의 향연 Sing Sing Sing’을 주제로 월드비전합창단과 마포구립소년소녀합창단, 그리고 카운터테너 이희상이 세계합창명곡, 오들송 등 다양한 음악을 들려준다. 단돈 ‘천 원’으로 감동의 무대를 만나보자.

**일시** 5월 25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관람료** 전석 1천 원(\*1인 4매 제한)  
**문의** mapoartcenter.or.kr 02-3274-8600



**조재혁의 음악상자**

연주가, 해설가 그리고 방송인으로 폭넓은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재혁의 클래식 프로그램. 알고 싶은 클래식 음악을 이해하기 쉽게 실제 연주와 함께 해설한다.

**일시** 5월 26일(목) 오전 11시  
**장소** 스트라디움 스튜디오  
**관람료** 전석 4만 원  
**문의** stradeum.com 02-2188-6000



**정동야행**

밤 늦은 시간까지 서울 중구 근대 문화유산 일번지 정동 일대를 돌며 문화시설을 탐방하고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축제.

**일시** 5월 27일(금)~28일(토)  
**장소** 서울 중구 정동  
**관람료** 무료  
**문의** culture-night.junggu.seoul.kr 02-3396-8400



**2016 국립국악원 안숙선 명창과 함께하는 작은 창극 <심청아>**

판소리 다섯 바탕 가운데 가장 애절한 바탕인 <심청가>의 미학을 안숙선의 무대로 풀어낸다. 1900년대 원각사 초기 창극 형태를 동시대적 관점에서 재창작한 안숙선 명창의 <심청아>를 만나보자.

**일시** 5월 27일(금)~29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장소**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gugak.go.kr 02-580-3300



**거리예술 시즌제-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에서 만나는 ‘예술’을 주제로 4월~6월 주말마다 도심 속 공원에서 진행되는 거리예술 공연 프로그램이다. 5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는 프로젝트 모아의 언버벌 퍼포먼스 <바가&본드>와 창작음악그룹 THE툰의 국악 월드뮤직 <인생예찬 콘서트 길가락유랑> 등 5팀이 7회 공연한다.

**일시** 5월 28일(토)~29일(일) 오후 2시~6시  
**장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290-7000

**어른·아이·서울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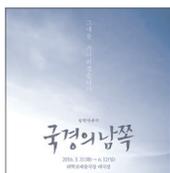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전시다. 서울을 주제로 한 장난감, 시민이 모아온 장난감 등 키덜트 토이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다.

**일시** 5월 28일(토)~6월 12일(일) 오전 9시~오후 8시 30분  
**장소** 서울시청 지하1층 시민청갤러리  
**관람료** 무료  
**문의** seoulcitizenshall.kr 02-739-5811

**토요일은 청이 좋아**

다양한 문화공연으로 더 나은 서울을 상상하는 ‘토요일은 청이 좋아’. 서울의 초등학생들이 참여하는 어린이합창대회와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된 다양한 체험형 즐길 거리가 가득!

**일시** 5월 28일(토) 오후 1시~ 5시  
**장소** 서울시청 지하1층 시민청 활짝라운지, 시민플라자  
**관람료** 무료  
**문의** seoulcitizenshall.kr 02-739-5818



**2016 서울예술단 창작가무극 <국경의 남쪽>**

한국적 가치를 중심으로 역사, 인물, 신화적 소재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던 서울예술단이 이번에는 영화 <국경의 남쪽>을 원작으로 해, 탈북자인 주인공을 중심으로 남과 북의 만남,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한다.

**일시** 5월 31일(화)~6월 12일(일)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3시·7시, 일요일 오후 2시·6시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관람료** R석 6만 원, S석 3만 원  
**문의** spac.or.kr 02-523-0986

정리 이나래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2016 서울댄스프로젝트

# 춤단 모집 4기

## 이런 분들을 찾습니다!

- 춤을 사랑하는 서울시민 남녀노소 누구나
- 잘 추든 못 추든 제멋대로 함께 어울려 춤출 수 있는 자
- 한 계절 내 한 몸 불살라 버릴 수 있는 패기와 체력을 가진 자
- 차가운 야·생·서·울 속 낯선 이와와 접촉이 두렵지 않은 자
- 내가 살고 있는 '서울' 곳곳을 유랑하며 몸으로 기억하고 싶은 자
- 메가시티에서 유령처럼 신출귀몰하는 댄스 런닝맨
- 몸 안의 원초성을 깨워 태초부터 내려오는 춤 DNA를 확인하고 싶은 자

## 일정계획

- 신청접수 5/6(금)~6/6(월)
- 1차 합격자 발표 6월 셋째 주중
- 면접·오디션 6/25(토)
- 최종 발표 7/1(금)
- 워크숍 7/9(토)~8/28(일) 매주 토·일 (총14회 내외)

게릴라춤판 등 9/3(토)~9/24(토) 매주 토요일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일정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전형방법

모집인원 : 총 100명

신청기간 : 2016. 05. 06(금) ~ 06. 06(월) 17:00까지

신청방법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sfac.or.kr>)

▶ 춤단 모집 하단 '지원신청'(※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문의 : 서울문화재단 축제팀 서울댄스프로젝트 담당자

Tel. 02)3290-7078 | E-Mail. [jee054@sfac.or.kr](mailto:jee054@sfac.or.kr)

## 춤단이란?

춤단은 춤을 사랑하고 즐기는 '시민 춤꾼 100명'으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되며, 2개월 간의 워크숍을 통해 서울댄스프로젝트의 주역으로 성장합니다. 춤단은 춤을 통해 몸의 감각을 깨우고 삶의 기운을 북돋아 도시와 대화하며 게릴라춤판을 만들어 갑니다.

## 춤단만의 특전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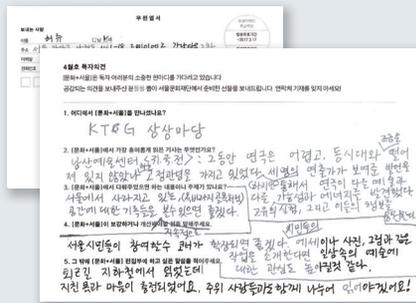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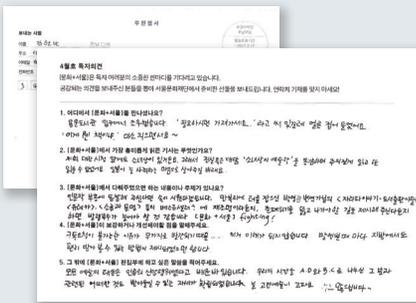
- 꽤 괜찮은 <서울댄스프로젝트> 기념품 지급
- 활동 기간 중 절대 밥은 굶지 않도록 식사 제공
- 음악이 나오면 어디서든 춤출 수 있는 배짱과 자신감
- 서울에 숨어있던 춤을 사랑하는 동족 만남의 기회
- 방전되어 있는 일상의 활력 에너지 100% 충전
- 변해가는 세상 속에도 반짝이는 이 시대의 멋과 풍류
- 내가 몰랐던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탐구생활의 장(場)
- 서울을 발로 누비며 몸으로 기억할 수 있는 시간



# [문화+서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서울문화재단에서 준비한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셨으면 하는 내용이나 주제가 있나요?
4. [문화+서울]이 보강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해주세요.
5. 그 밖에 [문화+서울]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1. 용운도서관 입구에서 조우했습니다.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라고 써 있길래 얼른 집어 들었어요.
2. 저희 대전시청 앞에도 소녀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실 혹은 대담 '소녀상의 예술학'을 동감하며 주의 깊게 읽고 또 읽을 수 있었어요. 일본이 늘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주길 바라요.
3. 인문학 부흥에 동참해 주신다면 속이 시원하겠습니 다. 만복리에 터를 잡으신 박영준 번역가님의 <자라 피아 이야기> <유레카> <소금과 문명> 등의 베스트셀러 재조명이라든지, 존페 위기를 뚫고 나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신다든지 하면 발행부수가 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서울] Fighting!
4. 구독 요청이 불가능한 이유가 무가지로 발간되기 때문... 이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발행될 때마다 지방에서도 편히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5. 모든 예술의 태동은 인류의 신앙 행위였다고 배운 바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A.D와 B.C로 나누신 그분과 관련된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 수 있는 자세가 확립되었습니다. 늘 고전예술이 고평요.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빈 님

1. KT&G 상상마당
2. 남산예술센터 <귀.국.전>. 그동안 연극은 어렵고, 동시대와 조금은 떨어져 있지 않았나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세 명의 연출가가 보여준 발언을 통해서 연극이 다른 예술과는 다른 고유의 실험 가능성과 에너지를 발견했다. 이들의 행보를 응원한다.
3. 서울에서 사라지고 있는(혹바라지 골목처럼) 공간에 대한 기록들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4. 서울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코너가 확장되면 좋겠다. 시민들의 에세이나 사진, 그림과 같은 작업을 소개한다면 일상 속의 예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 같다.
5. 퇴근길 지하철에서 읽었는데 지친 몸과 마음이 충전되었어요. 주위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 읽어야겠어요!

허류 님

## 편집 후기

[문화+서울]의 '정기구독'이 어려운 이유는 저희 월간지가 월 1만 부만(?) 배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기사와 콘텐츠를 웹진(www.sfac.or.kr/munhwaplusseoul)으로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독자엽서에 문의주셨던 김현빈님께 드리는 답변으로 후기를 대신합니다).

이규승 | 서울문화재단 홍보팀장

## [문화+서울] 111호!

어떤 우주의 01010100101번째 발코니에 착륙한 우주선 이름 같아. 안녕? Ann 혹은 메라고 해. a9 앞으로 앞으로~ 안현미 |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차장

'젊음'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오늘날의 특권이 아닐까요?

이나래 |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오랜만에 원고를 쓰다보니 웹진을 만들던 사회초년생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문화'계에서 일하다 [문화+서울]을 만났습니다. 전민정 | 객원 편집위원

[문화+서울]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문화+서울] 웹진(www.sfac.or.kr/munhwaplusseoul)에서 매일 업데이트되는 기사를 편리하게 만나시거나,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 주요 배포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금천 예술공장, 남산예술센터, 남산창작센터, 동숭아트센터, 대학로연습실, 두산아트센터, 몽앤몽, 문래예술공장, 백암아트홀,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자치구청 문화체육과,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치유허브, 시민청, 신당창작아카데미,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잠실창작스튜디오, 정동극장, 종림아트갤러리, 한국공연예술센터, 한전아트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

남산예술센터  
2016 시즌 프로그램

제 9회  
차범석희곡상  
수상

제 52회  
동아연극상  
연기상 수상

월간 한국연극  
2015 올해의 공연  
베스트7

연극  
시각문화  
재단  
이와삼

장우재 작/연출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 햇빛샤워

주최  
서울특별시  
주관  
서울문화재단  
극단 이와삼  
제작  
남산예술센터  
극단 이와삼  
예매  
남산예술센터  
인터파크  
대학로티켓닷컴  
문의  
남산예술센터  
02-758-2150

5.17 -  
6.05

NAMSAN ARTS CENTER

# 5



## 테마 토크

5월, 거리에서 문화예술로 즐기는 봄

## 사람과 사람

12년 만에 개인전 연 미술가 김정현

## 진실 혹은 대담

예술가가 당면한 문제: 공적 지원, 작가보수, 검열, 그리고...

## 쟁점 1

자동화 시대, 인간과 인공지능의 바람직한 공존법

## 쟁점 2

CGV 영화 관람료 차등제 논란

## 화제

거리를 수놓은 한복 입기 열풍

## 공간 1

지속 가능한 무용 예술 실험 공간 '서울무용센터'

## 공간 2

책에 아름다움을 더하는 콜라보 서점 '북티크'

5월의 서울문화매뉴얼